금주 법구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법구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선흥사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2월 13일 수요일(주간) 제 298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불교 출판의 내일을 논할 때마다 '희망 없음'을 한탄하는 소리가 높다. 불교 출판계가 이렇게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은 한 두가지 원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남의 탓만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불교출판계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본질은 무엇일까. 돌이켜 보면 우리 불교계는 스스로 출판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자금과 같은 불교출판이 본격화된 시기는 80년대. 그 이후 불교출판은 부흥기를 맞는다. 불교출판사는 줄이어 문을 열었고,

불교출판

학술·문화재 책 줄고 수필류·답사기 늘어

출판물 역시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요즘에는 한 달에 20여종 이상의 신간이 출간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적 증가에 비해 질적 향상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학술·문화재 등 불교전문 서적들은 줄어들고 수필과 답사기, 그리고 번역서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책이 독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불교출판인이라면 최소한 '어떤 책을 낼 것인가', '어떤 필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출판물에서 그러한 의지가 담긴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렇지 않는 책들이 더 많다. 심지어 모 불교출판사가 최근 내놓은 책의 경우 다른 출판사의 관련서적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거나, 아예 자비 출판 형태의 법공양서 등을 출판사의 주력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스님'을 지나치게 상품화해 불서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좋은 불서를 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씨름하는 불교출판인들이 늘어나지 않고는 불교출판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복지부 입법예고 '종교계 납골시설 30평 규제'

"화장·납골 장려 말뿐인가"

공청회서 학자-전문가 한목소리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가 11월 18일 입법예고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종교계의 납골시설 면적을 30평 이하로 규제한 조항이 화장·납골문화 확산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지난 5일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서울 YWCA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필도 교수(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학과)는 "개정안이 납골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종교계의 납골시설 면적을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고, 허근두씨(한가묘 경기남부지사장)는 "30평 미만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면적이 너무 작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영철씨(서울시 노인복지과)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수천 명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면적제한은 분명 무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불교계의 납골시설 건립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계 관계자들은 납골당의 경우 30평 규모에 많아야 12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 지속성과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형 납골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찰들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조계종 복지재단은 면적제한 조항이 화장·납골문화 확산을 가로막는다고 판단,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 조항을 삭제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난 2년간 화장문화 캠페인을 벌여온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 사무처장은 "화장을 하면 대부분 납골을 하는데 납골시설이 부족해진다면 누가 화장을 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으며, 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면적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화장·납골문화를 장려하는 국가정책 측면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김현준 사무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된 후 법제처의 규제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스님(가운데)과 부소장 진화, 보존실장 남일스님이 크리스탈 불탑에 담은 '고려대장 2000'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방송광고 자율경쟁 반대"

조계종종회 결의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5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송광고 시장 자율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업 출자 금지를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방송광고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공공재화이자 한정재화인 방송을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완전자유경쟁체제로 방송광고시장이 법제화되면 방송은 상업주의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종회의원들은 또 "방송의 공익 목적 수행에 적합한 정도와 방법으로 광고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공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문화발전기금의 신설 △유해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강화 △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업 출자 금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에 방송사와 외국자본, 대기업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골프장 등 위락시설 사찰 환경분쟁 요인"

조계종 '분쟁현황' 조사

사찰환경 분쟁의 주요 원인이 골프장 온천 러브호텔 등 위락시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무원 사회부(부장 양산)가 최근 조사한 '사찰환경분쟁 현황 통계'에 따르면, 90년 이후 10년간 일어난 93건의 사찰환경 분쟁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골프장 온천 러브호텔 등 위락시설과 관련된 것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도로개설 10건, 공산 개발 8건, 고층건물 건설 8건, 케이블카 설치 4건, 댐 건설 2건 등의 순으로 분쟁요인이 분석됐다.

90년 해인사 골프장 문제를 계기로 종단 안팎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사찰환경 분쟁은 96년부터 발생한 분쟁 건수가 전체 분쟁의 70%를 웃도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제 실시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환경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조계종의 분석이다.

총무원 사회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찰환경분쟁사례집〉을 연내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월부터 4년여간 축적한 사찰분쟁사례 자료들을 망라한 이번 사례집에는 개별 사찰의 환경분쟁 대응 지침자료를 비롯해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등을 통한 법률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게재하여 전국사찰에 무료 배포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베이징 회동 대책 논의 종단협 각종단 간담회

종단협의회는 4일 각 종단 실무부장 간담회를 열고 조불련과의 베이징 회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13~14일 사이 각 종단이 조불련과 개별적으로 회동하되, △종단협의회 실무대표단 방북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기타 교류사업을 의제로 삼기로 했다.

한편 총무원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태고종은 조불련과의 베이징 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천태종은 개별접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디지털대장경 '봉정식'

1만2천여명 동참

세계 첫 디지털 한글대장경인 '고려대장경 2000' 봉정식이 6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1만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우렁찬 법고와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봉정식에서는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과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됐고,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대독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고려대장경 2000이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림, 진화(고려대장경 부소장), 남일(고려대장경 보존실장) 스님이 '고려대장경 2000'을 담은 높이 40cm의 크리스탈 불탑을 봉정하고, 시연회를 열었다.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에는 김덕수 사물놀이, 최익환과 두드락, 이미숙 무용단, 은광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의 축하 공연과 박정욱·장사익 씨 등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제 6회 신행수기 공모 16일 마감

교계의 강경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심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제6회 신행수기 공모가 16일로 마감됩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종화종 총무원장상이 추가돼 신행수기 공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상작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되오니 이번 공모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0년 12월 16일
△당선작 발표: 2001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종화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사 설

'장묘정책' 뒷걸음질 하나

최근 몇 차례 실시한 장묘제도에 관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화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서울시립화장장을 이용했던 가족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결과, 57.7%의 시민들이 화장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94년의 46.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실제 화장을 한 비율도 95년 28.6%에 머물렀으나 99년 43%로 경충 뛰었다. 올해는 절반을 넘어선 54.3%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묘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식 조사' 결과, 화장 찬성률은 59.1%, 납골당 또는 납골묘 선호도는 33.4%였다.

화장과 납골당(묘) 안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여러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작용했다. 이것보다 더 큰 원인은 매장을 원해도 묻힐 곳이 없기 때문이다. 묘지 수는 2000만기로 서울시 면적의 1.6배, 우리나라 전체 공장 면적의 3배나 된다. 묘지 1기당 평균 면적은 19평, 1인당 주거공간이 4평인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5배나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화장과 납골당(묘)이 죽은 사람이 국토를 잠식하는 현상을 막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화장률이 높아지는 만큼 납골당(묘)의 수요도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방향을 거꾸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함을 떨칠 수 없다. 시행령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종교단체가 납골 시설을 건설할 경우 1개 시설 이상 지어서는 안되고, 면적은 30평 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을 결여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0평이면 120구밖에 수용할 수 없다. 적은 사찰이라도 1천 가구 정도의 신도들이 있는데, 신도들을 위해 납골당(묘)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찰의 경우, 시행령대로 한다면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납골 시설을 설치하기도 쉽지않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사찰 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해 면적 제한 조항 등을 없애고, 사찰의 형편에 따라 납골 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名山 케이블카'는 안된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제주도 당국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도 당국은 한라산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은 어떤 변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정당화하려 한다 해도 결국은 유서깊은 제주도 문화의 뿌리와,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태의 보고인 한라산의 환경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측의 입장에는 각각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를 듣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에 대하여 가져야 할 중요한 근본 태도가 있다. 자연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지금의 잘못된 자연관리의 방식에 의하여 훼손되는 한라산 환경을 주어진 현실로 놓고, 케이블카 설치가 어느 정도 한라산 자연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 설정된 조건을 바탕으로 잘못된 결론을 낸 것이 된다. 지금의 제주도 관광자원 개발 양태와 환경보호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근원적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가운데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잘못된 지금의 양태를 임시 방편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명분 아래 더 큰 만행을 저지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근본적인 시책을 마련할 때 오히려 한라산의 귀한 가치가 제대로 살아날 것이며, 고급의 관광자원으로 승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케이블카 설치 지역으로 지목된 구역은 불교 남방전래설 근거지로 문화적 유래가 깃든 곳이며,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무슨 명분으로든 여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두고두고 지목될 만행이 될 것이 분명하다.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단지 한라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러 명산들에 관광을 목적으로 한 케이블카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한다. 이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또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싸구려로 우리 자연을 포장하여 파는 그러한 저급 관광은 하루 빨리 지양해야 마땅하다.

청년불교 활성화 '파란불'

조계종포교원, 대불련·대불청 예산 최고 4배 증액 지원

네트워크 구축…교육·조직 재정비 기대

대학·청년불교 포교에 파란불이 켜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내년 계층포교 활성화 대상으로 대학·청년불교계를 선정하고,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한 청년불교 활성화 및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포교원은 예산개요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본지 295호 1면 참조>와 포교연구실 지역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여러 계층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곳이 청년불교인만큼, 내년도 계층포교의 집중점을 청년불교 활성화로 잡고 집중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도 종무회의를 통해 "청년불교는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불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 포교를 위해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라"고 당부한바 있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올해 2천1백만원보다 9,300만원을 증액한 1억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원예산은 4배가 증액된 것이다.

대불련은 이 같은 예산증액에 따라 학내포교 활성화, 정보통신정비, 지역활동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전국 지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및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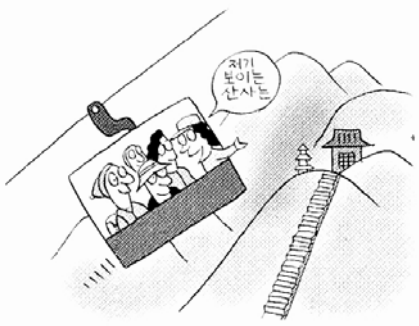
또 대한불교청년회는 올해 1천300만원보다 약 1,120만원(84%) 증액된 2천400만원이 지원된다. 대불청은 내실있는 조직으로 재도약 한다는 방침아래 조직과 교육, 사회포교활동을 실천과제로 삼고, 전국조직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불교 청년지도자 개발교육'을 비롯해 전국조직 재정비를 위한 각 지부 홈페이지 구축 활성화, 부다피아 청년공동체 건설을 위한 밀알결사사업을 펼친다.

포교원의 청년불교에 대한 지원예산 대폭 증액편성은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과 관련하여 내년도 포교원 예산이 동결된 상태(실제로 6천만원 삭감)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포교원 황찬익 과장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대불련과 대불청에 대한 집중지원과 현장감있는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포교원 차원에서도 내년 핵심사업으로 잡고 있는 청년불교에 대한 예산확충 등이 이뤄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청년포교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편한 세상이지만…

국방부 선도책자 재발간

문제 책 폐기…종편위 관련자 문책요구

국방부는 군장병 선도 책자인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가 기독교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고 내용을 전면 수정해 재발간키로 했다.

국방부 김승렬 인사복지국장, 전인구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김규대 국방부 군종실 법사는 지난 6일 총무원 사회부 내 종교편향대책위(이하 종편위)를 방문해 위원장 양산스님에게 불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책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12월 중에 편집위원을 동수의 불교·기독교·천주교 군종장교로 재구성해 문제의 부분을 전면 수정, 종편위의 검토를 마친 후에 재발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종편위는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 △재방 방지 약속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조만간 국방부에 공식 항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책이 발간되기까지 군법사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태만이라 보고 감수자등으로 참여한 관련 법사에 대해 문책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두식 기자

태고종 종연 총무원장 27일 취임

총무-일운 교무-학현 재무-법선 규찰-수보스님 임명

지난 11월 23일 선출된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종연스님의 취임법회가 27일 오전 11시 성북구 태고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한편 종연스님은 7일 총무부장에 일운(부천 보리정사) 교무부장에 학현(남양주 선덕사), 재무부장에 법선(강남 불국사), 규찰부장에 수보(제주 광명사)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일운스님:1945년生, 62년 현공스님 은사로 득도, 65년 추담스님에게 비구계, 66년 법주사 강원 수료, 태고종 교무부장, 종무위원 등 역임.

△학현스님:1944년生, 62년 인공스님 은사로 득도, 백양사강원 대교과 수료, 태고종 경기동부교구종무원장 역임, 현재 법규위원회 위원.

△법선스님:1943년生, 62년 풍곡스님 은사로 득도, 태고종 사회부장 교무부장 연수부장 재무부장 등 역임, 현재(사)태고종 중앙회 이사.

△수보스님:1952년生, 60년 광명사에서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방불교대, 탐라대 졸업, 제주소년원 불교지도위원 역임.


◇일운스님


◇학현스님


◇법선스님


◇수보스님

이경숙 기자

'종교편향' 영주 6개 사립교 경고

경북도교육청…각서도 받아

종교편향 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영주 시내 6개 사립학교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경고조치등 행정지도에 나섰다.

도승희 경상북도 교육감은 11월 28일 영주 시내 6개 사립학교에 특정종교교육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4일 경북도교육청에 6개 학교 교장을 불러 정규 수업시간에 예배를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도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종교과목을 선택할 경우 종교 외 과목을 제시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정규수업 시간의 종교교육 실시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주시실천승려회 사무총장 도기스님은 "종교교육법규의 벌칙조항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새해예산 261억9천만원

조계종 중앙종회는 5일 149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261억9525만원(일반회계 157억3600만원, 특별회계 104억5925만원)의 새해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재적의원 78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해 개회한 이날 종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규모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에 비해 0.2%포인트(2490만원) 줄었다. 특별회계 가운데 시설특별회계와 신도교무금특별회계도 각각 39.5%포인트, 77.3%포인트 줄었으며, 다만 중앙승가대이전 특별회계만 30.2%포인트 증가했다.

세출부문에서 각 부서가 동결 또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사회부의 경우 △민족공동체추진본부 1억5000만원 △사찰환경 보존 사업 3700만원 △불교사회단체 육성 4800만원 △사회복지재단 사업비 및 기금 적립금 4억8000만원 등 올해 대비 15.8% 증액됐다.

예산안 승인에 앞서 종회는 △법제분과위원장에 근일스님 선출 △기초선원 운영위원에 현묵스님 위촉 동의 △관람료관리법을 개정했다. 또 정부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방송광고시장의 완전자유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성운 기자

법륜종 일화 종정 원적

7일 종단장 봉행



한국불교법륜종 2세종정을 역임한 혜연당 일화스님이 3일 오전 7시 30분 공주 원효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0세, 세수 74세.

스님은 "맑고 흐림 본바탕이 차별없는 하나인데/밉다 곱다 좋고 나쁨 굳이 따져 무엇하랴/나고죽고 하는 것이 본래면목 아닌지라/분별심을 다 여의면 일체경계 통하리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일화스님은 1927년 충남 공주生으로, 40년 마곡사에서 금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44년 마곡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90년 한국불교 법륜종을 창종하고 초대 총무원장, 95년 법륜종 2세 종정을 지냈으며 지난 7월 원로원 원로위원으로 위촉됐다.

일화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7일 오후 1시 공주 원효사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이경숙 기자

인도·미얀마·스리랑카·파키스탄

성원해 주시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크로드 여행사의 출발 가능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성지 15일
1월5일 출발, 265만
서울-봄베이-아잔타·엘로라석굴-산치대탑-카쥬라호 조각사원 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히말라야영봉-카투만두-서울

미얀마성지 6일
1월10일 출발, 165만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몽유아-밍군-양곤-서울

스리랑카 6일
2월9일 출발, 135만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아-담불라-캔디-콜롬보-서울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미술 8일
2월9일 출발, 195만
서울-라호르-탁실라-이슬라바마드-스와트-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부처님 고행상이 있는 라호르 박물관)-서울

완벽한 일정!! 철저한 준비!! 정성어린 안내!! 실크로드는 최선을 다해 모실 것 입니다.

주) 실크로드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빌딩 505호 (02) 720-9600 (FAX) 734-9937

대표이사 이상원·부장 이상일·차장 이기만·과장 김선겸·과장 최영아·대리 박미영 합장

목어

'새별'들의 예언

도시의 밝은 조명 때문에 서울의 밤하늘에서 좀체 별을 볼 수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밝은 지상에 눈길을 보내느라 밤하늘을 쳐다보지 않아 그렇지 맑은 날 밤하늘로 눈길을 돌리면 아직 우리는 적어도 2등성까지는 볼 수 있다.

겨울철인 요즘이라면 저녁 7시쯤 남동쪽 하늘에 오리온좌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도 그 아래서 반짝인다. 밤 동안 서서히 움직여 새벽 5시쯤이면 남서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경이롭게 관찰할 수 있다. 날마다 위치가 변하는 화성이나 목성 같은 행성, 또는 혜성을 제외하면 하늘에는 대부분 이 같은 붙박이별들이 성좌를 이루어 하늘을 수놓는다.

그 하늘에 샛별이나 마이너스 1등급별보다 훨씬 크고 달보다는 작은 밝은 새별 하나가 곧 나타날 모양이다. 미국 등 세계 15개국이 힘을 모아 건설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커다란 날개 같은 태양전지판이 지금 활짝 나래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폐기 직전에 있는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도 가끔 샛별처럼 반짝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번의 우주정거장은 그 크기가 미르와 비교되지 않는다.

어디 우주정거장뿐이겠는가. 우주관광을 위한 우주호텔이며 우주납골당 등 앞으로 하늘의 별로 등장할 우주선 계획은 끝도 없다.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이 새롭게 속속 나타날 것을 예고한다고나 할까. 점성술사들이 사전 정보 없이 그런 새별들을 본다면 무슨 예언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런데 우주선에서 푸르고 둥근 지구를 한번쯤 내려다 본 사람들은 과학이기보다 오히려 종교적 심성으로 기울게 된다 한다. 역시 하늘은 종교의 영역인 모양이다.

지금 우주학계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우주다원론은 불교의 우주관에 접근해 있다. 무(無)에서 수많은 우주가 탄생하고 그 우주끼리 보이지 않는 웜홀(Wormhole)이란 통로에 의해 그물처럼 엮어져 있다는….

지혜로운 점성술사라면 앞으로 그런 새별들을 보며 아마 미래의 불교적 우주관을 예언할 것 같다.

김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납골시설 30평 제한' 왜 문제인가

가족단 조성해도 120구 수용

무리한 규제…화장문화 후퇴
재단법인 설립 현실성 없어
"정부 환경훼손 우려는 억지"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납골시설에 대해 이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과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면적을 100㎡(30평)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중 신고제로 완화된 것은 화장과 납골문화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매장문화 개선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면적 제한에 대해서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어느 절이 동참하겠나

더욱이 문제제기의 주체들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와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이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를 빚고 있는 조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이다. 이 조항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우선하는(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적 제한 조항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지만, 이 조항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둘째는 실효성 측면이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30평 규모는 납골당의 경우 개인단의 점유면적을 최소 1기당 1평으로 보더라도 30구 밖에 안치할 수 없으며, 가족단의 경우 1기당 6구 안치를 기준으로 점유면적을 최소 1.5평으로 잡더라도 안치능력은 120구에 불과하게 된다. 납골탑의 경우도 1기당 최소면적을 1.5-2평으로 잡을 경우 많아야 15기에서 20기 이상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1기당 6구 안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여기 이상을 넘기는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납골시설이 지속성을 갖고 운영될 수 없다는 문제에 부딪힌다. 달리 말하면 납골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한 단체가 시설 1개소 이상 건립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시설 이용자가 들어찰 경우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곧 화장 · 납골을 권장하는 법률 취지와도 완전히 어긋난다.

대규모 납골시설이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논리도 '억지'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은 "제한면적 3평에 1구를 수용하는 분묘와 1.5평에 6~8구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비교하면 납골시설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고제 전환 효과없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크게 짓고 싶으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된다"는 논리로 이같은 지적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불교계의 납골시설 건립 현실과 비춰볼 때 종교계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이 아닌 '납골시설 설치 · 관리 목적'의 법인이라야만 된다. 즉 조계종의 경우 사찰들이 종단의 재단법인을 이용할 수도 없다. 또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 해도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다 법인신고까지 해야 한다. 이것은 납골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볼 때는 결국 허가제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납골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사찰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번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불교계에서는 더 이상 납골시설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지난 5일 종로 YWCA에서 열린 장묘문화 공청회에서 관계 전문가와 학자들은 종교단체 납골시설의 30평 규제조항이 불합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사면' 해 넘긴다

'종헌 개정안' 논의 못하고 다음회기로
'종회의원 2/3 동의' 집행부 힘든 숙제

5일 열린 조계종 149회 임시종회에 종헌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차기 종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사면은 불가능해졌다. 이번 종회는 회기가 5일이지만,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과 관람료관리법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하루만에 서둘러 폐회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헌 개정안 내용을 놓고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총무원이 지난 3월 종회에 낸 개정안에서는 62년 통합종단 이후 멸빈자를 사면 · 경감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 종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94 · 98년 종단사태에 관련되어 멸빈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사면 이후 10년간 공직 취임을 못하게 했다. 몇 가지 변화된 사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했지만, 다음 회기 이월을 놓고 종회의원들 사이에 논란을 벌이는 데 그쳤다. 이후 통과 여부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5일 열린 조계종 149호 임시종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심의조차 못해 연내 사면은 불가능해졌다.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종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담, 정념, 광조스님 등은 "이번 종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다. 종헌 개정안을 제출한 총무원장과 종헌특위 위원장이 자리에 없으니 차기 회의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 장적스님 등은 "종단의 가장 큰 현안으로, 이미 146회 종회 때부터 안건으로 상정됐다. 토론 한번없이 내년으로 넘긴다면 무책임한 것이며, 종도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논의라도 해야 한다고 따졌다.

토론을 지켜본 한 종회의원은 "종헌을 개정해 94, 98년 종단 사태와 관련된 멸빈자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종회의원은 또 "종회에 종헌 개정안만 상정했지 종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종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종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종회의 분위기를 봐서는 획기적인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다음 종회에서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화개혁회의측에서 제기한 총무원장 부존재확인,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숙은커녕 소송을 통해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에 반대하는 종회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 종단의 화합을 위한 조치로 사면이 논의되고 있으나, 또다른 분란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음도 사실이다.

다만, 종정 혜암스님도 "종헌 · 종법에 따라 사면을 실시하라"는 유시를 내렸고, 총무원장 정대스님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적이 있어 사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 3월 정기종회에서 통과된다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한 사면은 가능하다.

종회 개회에 앞서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 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종하)는 3일 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수정 제출한 종헌 개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종헌 개정안은 부칙 1, 2조를 신설하는 형식을 취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1조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①불기 2538(1994). 5. 3. 2543(1999). 1. 25 제정 · 공포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하여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멸빈의 징계자는 사면 복권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면 · 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 ·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사면 · 경감된 자는 사면 · 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 · 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 취임과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금지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訃 告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輪宗 前 第2世 宗正 慧蓮堂 一華 大宗師 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4年 12月 3일(陰曆 11月 8日) 午前 7時 30分
忠南 公州市 金鶴洞 323-3 元曉寺에서 圓寂하시었기에 玆以 訃告합니다.

佛紀 2544年 12月 3일

▣ 永訣日時 : 佛紀 2544年 7日(陰曆11月 12일)
午後 1 時(宗團葬)
▣ 永訣場所 : 忠南 公州市 金鶴洞 元曉寺
▣ 茶 毘 場 : 忠南 公州市 金鶴洞 元曉寺 蓮華臺
問議 및 連絡處 : 總務院 (02) 733-4445~6
元曉寺 (041) 855-2839, 855-2551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輪宗 前 第2世 宗正 慧蓮堂 一華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總務院長 釋 德 山(昌法)

宗團葬 葬儀委員會

증 명 : 영산정각, 금암, 환묵, 혜우
고 문 : 혜안, 벽송, 용명, 혜명, 혜정, 탄공
장의위원장 : 덕산(창법)
부 위 원 장 : 혜봉, 법천, 명진, 도승, 필종
장 의 위 원 : 무주, 능허, 혜천, 혜성, 해덕, 성각, 월산, 지법, 보덕, 도담, 도안, 도원, 보련, 월파, 향덕, 홍구, 성타, 송정, 혜명, 무등, 지각, 혜능, 무공, 무진, 창교, 법장, 수덕, 도광, 도인, 자오, 명안, 법홍, 성진, 성오, 지오, 홍인, 혜일, 지담, 혜진, 도혜, 보선, 회광, 정현, 정오, 혜월, 수정, 백운, 원정, 법달, 법성, 월운, 가행, 법해, 지엄, 성각, 지월, 성초, 경업, 혜진, 법명, 영암, 서광, 담연, 천무, 성초, 현오, 허주, 근원, 도광, 명성, 자성, 혜인, 벽파, 명관, 혜수, 혜인, 혜송, 용각, 보련, 관음행, 자비행, 선심, 혜련, 진여심, 보현, 혜덕, 대덕화, 미타원, 보현행, 보화, 진각화, 연화심, 무량화, 양영옥, 대지화, 세안심, 묘화, 석암 , 월진, 문수행, 대광, 묘법, 대덕화, 대덕화, 이근봉, 보광월, 관음행, 이종익, 연화, 보광심 (무순)
집행위원장 : 보명
집행부위원장 : 자명
총무위원:선종 총무간사:지광 의전위원:일정 의전간사:혜정
재무위원:봉안 재무간사:도명 설비위원:도광 설비간사:법정
동원위원:도림 동원간사:혜정 치산위원:성진 치산간사:지현
경호위원:무학 경호간사:금륜
은 법 상 좌 : 필종, 법선, 명진, 승도, 오현, 원봉, 성우, 법안, 해송, 도은, 의정, 도혜, 심진, 법정, 성련, 법성, 월아, 정덕, 대연, 용락, 경업
사 자 : 정종한, 사문해월, 정종화
신도회장 : 조보광화 관음회장 : 정대비화
청년회장 : 남 상 걸 울림불교학생회장 : 소 형 준
보리수불교학생회장 : 박 홍 규

일주문



은빛 식구 솜씨자랑 행사

혜성 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 대표는 16일 오후 1시 청담노인복지관 1층 강당에서 '은빛식구 솜씨자랑'을 연다. (02)806-1375



독거노인에 쌀 전달

혜총 부산 감로사 주지는 18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 노인 50명에게 쌀 20㎏씩을 전달하는 '나누미(米)후원행사'를 갖는다.



결식청소년돕기 하루찻집

정련 부산 내원정사 주지는 22일 오전 9시~오후 8시 부산 중구 중앙동 쌍계다전에서 '결식청소년돕기 하루찻집' 행사를 연다.



아동복지공로 서울시장상

운경 태고종 종승연구원장은 2일 리틀엔젤스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민상 시상식에서 아동복지에 앞장선 공로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마산교도소 종교위원에

호정 마산 세심사 주지는 최근 마산교도소 종교위원에 위촉됐다. 호정스님은 99년부터 마산교도소 교화법사로 활동해 왔다.



좋은벗들 창립 4돌 기념식

법륜 좋은벗들 이사장 스님은 12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창립4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9층석탑 봉안불사회향

선일 인천 법명사(舊 부루나포교원) 주지는 10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의 증명으로 9층석탑 봉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졸업기념 표충사 순례

월우 해남불교대학장은 13~14일 밀양 표충사 등으로 졸업기념 성지순례를 떠난다. 또 3기 신입생도 모집한다. (061)534-3355



2000 동국인의 밤

권노갑 동국대총동창회장은 14일 오후 7시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00 동국인의 밤'을 개최한다.



네팔서 학술문화 교류 협의

김재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1일 네팔과의 학술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동산불교대학 재학생 20여명과 함께 네팔로 출국했다.



도심 복판서 만나는 부처님 말씀

Focus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러나, 우리의 번뇌는 존재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일어난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무상(無常)'을 일깨우는 부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광화문 사거리 교보빌딩 정면 커다란 간판위에 쓰여져 있는 〈아함경〉의 이 경구는 얼마남지 않은 한 해를 마감하는 시민들에게 잠시동안이나마 삶을 돌이켜보게 한다. 광화문을 오가는 매일 5천여 명의 시민들은 내년 2월까지 〈아함경〉 부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성웅 스님



◇진옥 스님



◇박근련 씨

불교복지 유공자 13명 선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은 1일 불교복지 유공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시설단체 운영부문·불교사회복지 발전공헌부문·자원봉사 활동부문 각 4명씩과 특별상 1명을 선정, 발표했다.

복지시설단체 운영부문에는 상주냉림사회복지관장 성웅스님, 여수문수사회복지관장 진옥스님, 천마재활원장 박근련씨, 관음대비원장 유영희씨가 선정됐으며, 불교사회복지발전 공헌부문에는 풍기어린이집원장 혜득스님, 전농동공부방관장 이정남씨, 대구남구사회복지관 부장 고강호씨, 광주 송광사회복지관 김재진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 자원봉사활동부분에는 구로사회복지관 한마음회, 국립재활병원 법륜회, 조계종 자원봉사단 이제숙·엄춘희씨가, 특별상에는 활발한 복지활동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행을 펼치다 지난 8월 입적한 정진스님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5일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열리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열린다. 한명우 기자

"배운다는 생각으로 도왔을 뿐"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행자부장관상 정형자 보살



"봉사라기 보다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타게 돼 부끄럽습니다. 모두가 부처님과 재단에 계신 분들 덕분입니다."

IYV2001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조계종 자원봉사단 정형자(52)보살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자원봉사자들도 많다며 겸손해 했다.

이날 행사는 UN이 자원봉사자의 위상을 높이고 그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 2001년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로 제정, 자원봉사 촉진과 봉사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IYV는 '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의 약자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라는 뜻.

정형자 보살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되기까지는 남모르는 아픔과 신심이 있었다. 88년 집안에 큰 일이 닥치면서 정보살은 삶의 의욕과 건강까지 잃게 됐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갔다. 그러다가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자 유료간병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93년 간병인협회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리더군요. 건강이 안 좋다보니 그게 마음이 안 놓였던 거죠. 그래서 마음 내킬 때마다 할 수 있는 무료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생각해 시작했던 무료봉사였지만 정보살은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즐거웠고,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까지 얻게 됐다. 지금까지 길음복지관과 벽제 군병원, 독립문공원·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 국립재활병원 목욕봉사, 경희의료원 기록실 봉사 등 인연이 닿는 곳에서는 모두 자원봉사를 했다.

"사실 노력보시도 좋지만 어려운 곳에 충분한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복지시설들이 보통 여유가 없잖아요. 제 평생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정보살은 88년 이후 1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제는 자원봉사라는 생각보다는 '점심 먹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봉사에 나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토·일요일도 쉴 틈이 없지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 '부처님의 일'이 있기에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겠다는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마창불교련 시민불교문화상 시상



◇김교환 씨



◇장영준 씨



◇이균대 씨

마산·창원불교연합회는 불교와 지역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한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시민불교문화상 문학상은 김조한 경남문인협회 고문이 수상했고, 예술상은 장영준 경남 전업미술가협회 고문이, 행원상은 이균대 경남도민일보 총괄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각 부문별로 창작지원금 3백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2일 마산 롯데크리스탈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0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에는 마산과 창원지역 불자 5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진각종 전청회장 김구용씨

김태성씨 자랑스런 진청인상



김구용 진각종 전국청년회장(사진)이 2일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열린 진각종 전국청년회 제27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재선출됐다.

역대 진각청년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6회 진각청년의 밤을 겸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제14회 올해의 주인공상은 △자비인상 김연홍(신혜청년회), 정여화(보정청년회)씨 △용기인상 최원호(명륜청년회)씨 △지혜인상 박혜경(신촌청년회)씨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자랑스런 진청인상'에는 경주를 아끼는 모임을 결성해 민족과 불교의 얼인 신라문화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온 역대 진각청년 모임 회원 김태성(경주지부)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중앙승가대총장 종범스님 취임법회

중앙승가대는 6일 정진관 대강당에서 '제3대 총장 종범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을 비롯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교육원장 일면 스님,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종범스님은 "폭넓은 교양과 깊은 지식을 갖춘 선지식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국토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

사단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00년 불국토의 밤을 개최하고 제8회 자랑스런 불자상과 보리방송문화상을 시상했다.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정관스님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함께 사는 마음을 되찾자"고 당부했다.



부다가야 청년문화예술제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회장 이주성)는 3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제2회 '부다가야 청년문화예술제'를 펼쳤다.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마음선원어린이합창단과 원각사청년회 풍물팀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한국불교학회 추계 학술회

한국불교학회(회장 목정배)는 2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제34회 추계불교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쯔까모또 게이쇼(동북대·일본) 명예교수, 한종만(원강대) 명예교수 등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백제 현광의 교화행에 대한 연구'(이기운) 등 1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영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1년 2월 3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상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진욱스님의 생활속의 금강경

개 강

불자라면 한번씩은 펼쳐보는 금강경!
반야지혜를 강조하는 금강경을 이제 생활속에서의 반야지혜로, 삶의 현장속에서 터득하는 금강경 강좌를 개설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강의개요

1. 개강일시	2001년 1월 5일 (금) 오후 2시
2. 강의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1년간)
3. 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 (안국동 로타리)
4. 지도법사	진욱 스님 (여수 석천사) → 불교 T·V 신행상담법사
5. 교 재 및 모집인원	·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 모집인원 80명
6. 입 학 금	50,000원
7. 수 료 증	1년과정의 생활속의 금강경 강좌를 이수한분들께 수료증 드림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동산불교대학 · BTN불교T·V

감사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12월 6일 봉행된 中央僧伽大學校 제 3대 총장 취임식이 원만하게 회향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원로대덕 스님과 제방동문 및 사부대중, 학계와 정계, 각 신행단체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부터 중앙승가대학교를 '善知識'을 양성하는 '特性化 大學'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僧伽學風의 樹立과 僧伽敎育의 具現'을 반드시 성취해 내겠습니다.

본교의 발전은 곧 한국불교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본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仰願하며 이렇게 紙面으로 나마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佛紀 2544年 12月 8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宗梵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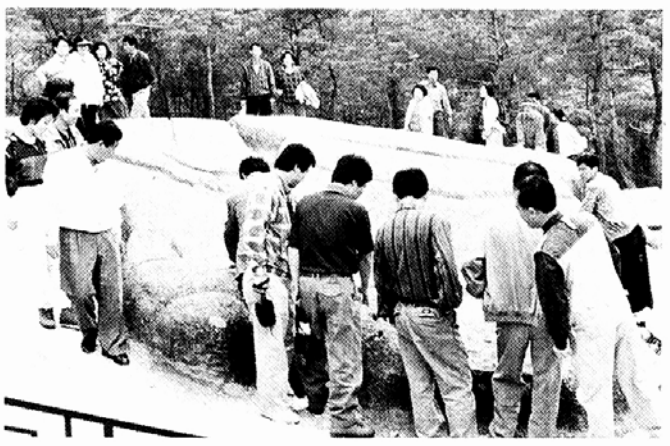
재소자 마음 밝히기 16년

지장보살 원력 실천하는 부산불교수계회

일순간의 유혹으로 범죄자가 된 이들을 마지막 한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활동하는 불자회가 있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오늘의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에 되살리고 있는 부산불교수계회(회장 이창우 부산구치소 교도관·54)가 바로 그 주인공.

죄를 짓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재판과정에 머물게 되는 곳인 부산구치소. 그곳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모임인 부산불교수계회는 84년 4월 정관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36명이 모여 불심을 고취하고 재소자들의 심성을 순화시키고자 모임을 시작했다. 수계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름도 '수계회'라 했다. 3교대 근무로 회원 모두가 모인 행사는 단 한번도 없었지만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오며 정기법회, 사찰순례, 수련회, 불우이웃 돕기 등 안팎으로 내실을 다져왔다. 지금은 87명의 회원에 가족회원까지 200명에 달하는 부산불교수계회는 나날이 흉포해지는 세상에서 더욱 중요한 교도관들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가장 양심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교도관직.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자부하는 교도관이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범죄피의자들이고 보니 부딪히게 되는 한계가 많다. 스스로 바른 양심을 지켜내고 열린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대하는 것은 교도관 본인과 재소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 부산불교수계회는 창립 이후 단 한사람도 일체의 부정에 연루된 적이 없을 정도로 바르고 양심적인 교도관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 여해스님을 지도법사로 갖는 정기법회와 40차를 맞이한 사찰순례법회 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도관직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다. 11월 26일에는 칠불사와 쌍계사를 찾아 다시 한번 지장보살의 원력을 곱추 세우고 자신을 내려놓아 재소자들과 하나되고자 발원하고 돌아왔다. 그동안 부산불교수계회는 강화도 전등사, 보문사, 설악산 능성암, 해남 대흥사를 비롯한 120여 곳의 사찰을 찾아 신심을 다져왔다.



◇전남 화순 운주사 와불을 참배하고 있는 수계회 회원들.

청렴한 교도행정 선도

영아원·노역수 돕기 앞장

스스로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도 제도할 수 없다. 부산불교수계회 회원들의 수행력과 정진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소자들과의 인연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업장소멸을 위한 참회기도로 밤을 새우곤 한다. 재소자들에게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은 '아차, 내 수행이 부족했구나' 하며 또 한번 기도와 정진으로 마음의 힘을 모은다. 지금은 회원 스스로 정진을 이어갈 법당 마련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게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키우고 보니 저절로 보살행을 베풀 수 있는 인연이 다가왔다. 소녀가장 1명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이제는 학교를 마치고 직장인이 되었는가 하면, 수계회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독거노인이 고향에 내려가 정착하기도 했다. 또한 회원은 아니라도 형편이 어려운 교도관의 사정을 알게 되면 도움을 주고 영아원, 수용시설 등에 인연닿는대로 물품을 후원하는 것은 다반사. 특히 부산불교수계회가 마음 기울여 하고 있는 것은 벌금형을 받은 노역수들이 돈이 없을 때 그들의 벌금을 대신 내어 주고 석방시켜 주는 인간방생. 가정파탄에까지 이를 지경에 있었던 그들은 부산불교수계회의 도움으로 재활해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한다.

"부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준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귀의"라고 강조하는 이창우 회장은 "부산불교수계회의 모든 활동이나 보시는 주었다는 생각도, 했다는 생각도 없는 함께 하는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부산구치소 내에서 불자수첩, 단주 등의 보급과 따뜻하고 열린 마음의 교도관으로 간접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불교수계회. 그들의 활동은 겉으로 드러난 행사로는 가늠할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참회와 기도로 재소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지장보살의 미소와 손길이 되고 있으며 더욱 바르고 밝은 교도행정을 위해 묵묵히 정진할 뿐이기 때문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PC불동 세밑 이웃돕기 보살행

유불동-복지시설돕기 바자

하불동-군법당 찾아 위문법회

나우-생명나눔회 후원모임

PC통신 불교동호회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군장병위문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시샵 오기석)는 지난 6일 을지로 3가 트라이포트홀에서 바자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바자회는 그동안 회원들이 기증한 화장품, 보석함, 다관, 의류 등 총 30여점의 물품들을 경매방식과 정가판매로 진행됐다. 수익금은 서울 송암동산, 대부도 둥지마을, 부산 천마재활원의 후원금으로 쓰여질 계획이다. 바자회 이후 열린 송년의 밤에서 유니텔 회원들은 인사나누기, 장기자랑 등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졌다.

또한 16일에는 서울경기지역 모임 주최로 서울역 헌혈의 집에서 헌혈모임을 갖고 헌혈증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나 사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고, 9일에는 대구경북모임 주최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철야정진 참회법회를 가지기도 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샵 이성모)는 24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군법당 호국화랑사를 방문해 군장병을 위문한다. 강원지역모임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회원들은 군장병과 함께 법회를 봉행하고 떡, 초코파이, 음료수 등 다양한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서울 충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웠고, 17일에는 목포 보현정사에서 전라지역모임 송년법회도 개최한다.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시샵 최용원)도 23~24일 서울 도선사와 우이동 일대에서 열릴 송년법회 자리에서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날 수익금은 전액 생명나눔실천회에 기부된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오기석 대표시샵은 "소비 위주의 송년모임보다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 다지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PC통신 불교동호회들의 자비행이 풍성하다. 사진은 지난 6일 열린 유불동 바자회.

우리모임에선

철불협 임원 송년회

철도청불교단체신행협의회(회장 박창식)는 8일 조계사 인근 만포식당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 참석한 철불협 재경단체 임원 10여명은 올해 활동평가와 내년도 활동방향, 본청 불자회 창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빛은행 재활원 봉사

한빛은행 부산불자회(회장 하명찬)는 3일 부산 송도 천마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재활원 지체부자유자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한빛은행 부산불자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KIA법우회 백양사 참배

대우종합기계 KIA법우회(회장 정진한)는 3일 백양사를 참배하는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30명의 회원들은 백양사 원응스님의 사찰 소개와 함께 '화두'에 대한 설법을 들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선운사와 도솔암을 참배했다.

또한 5일에는 창원 성주사 신검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20여명의 회원들은 성주사 원광스님의 '유식사상'에 대한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졌다.

정신병원불자회 정기법회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회장 김주효)는 4일 병원내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이학주 교법사의 '묵우자'에 대한 설법을 들었다.



농협불교회 삼존불탱화 봉안법회

통합농협 화합발전 염원

농협불교회(회장 정용근)는 7일 본사 근환관 대강당에서 삼존불 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불자들은 통합농협의 성공적인 발전과 농촌을 비롯해 온 누리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서원했다. 농협은 지난 7월 1일 축협중앙회와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합되어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용근 회장은 "농협이 통합된 이후, 한지붕 아래 3가족이 므여 살면서 화합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며 "오늘 법회를 통해 불교회 회원들이 신심을 다지는 것은 물론 통합농협의 성공적인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알림

▲실직가정 지원 바자회=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실직가정 지원 바자회를 복지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 잡화,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02)852-0525

▲거금선원 겨울수련회=송광사 거금선원은 22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4차에 걸쳐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수련대회는 묵언, 오후불식, 발우공양,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061)843-8488

▲청소년 심성수련 체험 캠프=대한불교진흥원 다보수련원은 23~27일까지 4박 5일간 청소년 심성수련체험 캠프를 개최한다. 수련 내용은 심성훈련, 명상호흡 수련, 무리벌 토론과 주제발표, 별자리 보기, 사경 등이며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02)719-2606

▲달마도 무료 보시=대구 효봉사 설봉스님은 채색 전신 달마도를 전국의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시한다.(053)857-2181

▲은빛식구 솜씨자랑=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는 16일 오후 1시 복지관 1층 강당에서 어르신들의 작품 전시와 연주, 댄스, 합창 등을 공연하는 은빛식구 솜씨자랑을 개최한다.(02)806-1375

▲목요 기초선원 운영=통도사 부산포교원은 어린이, 중고생,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목요 기초선원'을 운영한다. 심산스님이 지도하는 목요 기초선원은 매주 목요일 예불과 참선지도 및 실수로 부처님을 향한 선수행을 배우게 된다. 051)816-2241

강좌

▲수험생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하동청소년수련원은 오는 22일까지 중·고등학교 수험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특별강좌를 운영한다.(055)883-5393

▲불교기초교리=제주 자비의전화는 다음달 3일부터 3년과정의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자비의전화 교육실에서 진행될 이번 강좌는 불교의 정의,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설, 육바라밀, 한국불교사 등 불교기초교리를 배우게 된다.(064)756-7374

▲무료 서예교실=제주 우석서예연구원은 불자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서예교실을 운영한다. 신청은 15일까지이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064)757-7668

모집

▲청소년 봉사캠프 및 방학특강 수강생=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18~23일까지 청소년 봉사캠프와 방학 특강프로그램인 현장 체험학습, 율동교실, 케리커쳐, 한자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031)716-4215

▲한글교실 자원봉사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에서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43)652-0900

▲차량운전 자원봉사자=송파재가복지센터는 관내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2)2203-3677

▲경희의료원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 불자회는 병원 안내 및 치과병원 차트정리 등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2)958-8113

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기 운명(運命)을 본(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 중국은왕조의 갑골문의 기록으로부터 3천년이란 장구한 세월동안 수많은 선현석학들에 의해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 완성된 이 명리학이 왜 현대에 이르러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마침내 벽에 부딪치고 그 한계를 드러낸 서양사상이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떠한 과학보다 더욱 과학적이며 어떠한 철학보다 더욱 오묘한 음양오행을 기초로 하여 선천을 파악하고 후천을 예지하는 청산 김성진 선생의「命理玉精」을 읽지않고 어찌 감히 운명을 감정한다 할 수 있겠는가!

화제의 신간



전국 서점 판매중!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30,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집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필처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幷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목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괴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독거노인 돌보며 가족처럼 살아요"

신행현장 대구 효행의 집서 봉사 6명의 보살

내 집일을 하듯 생활하는 틈틈히 봉사활동을 펼치는 6명의 주부 불자들이 있다. 이들의 자원봉사는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 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5일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효행의 집', 6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원봉사자 전유덕·김승자(대구시 북현동)보살들과 큰 방에 마주앉아 차를 마시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다. 잠시 후 싱싱한 과일과 반찬거리를 잔뜩 든 박춘희 보살(수성구 화성아파트)이 들어온다. 이어 신은주 보살(경산시 와촌면)이 할아버지에게 줄 감기약을 사가지고 들어온다.

'효행의 집'에 기거하며 큰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전유덕 보살이 층마다 인원수에 맞춰 3일치 반찬거리를 고루 분배하여 나눠주면 자원봉사 보살들이 할머니들과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할아버지들은 또 빗자루를 들고 각 방을 청소하는 모습이 여느 가정집과 똑같다.

지난해 10월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사재를 내놓아 설립된 대구 '효행의 집'은 일반 노인시설과 다른, 선진국형 그룹홈 형태다. 3층 빌라로 이뤄진 효행의 집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13명은 각 층마다 살림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가족처럼 생활한다.

할아버지들은 주로 집안청소와 잡일을 하고, 할머니들은 식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효행의 집운영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주는 현영주 정소영 보살 등 6명의 보살들이다.

효행의 집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6명의 보살들은 대구와 경산 등에 거주하는 보살들로 효행의 집 취지가 좋아 지난해 10월부터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다. 그런 만큼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노인들의 말벗은 물론 집수리 등 대·소사 일들을 처리한다.

식사수발·집수리등 그룹홈 대소사 솔선

사찰순례도 계획



◇자원봉사자 보살들과 '효행의 집'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봉사대장인 전유덕 보살은 "자원봉사자 보살들은 효행의 집 일이라면 언제나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온다"며 "효행의 집은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실현하는 장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대림동 일대 경로당을 돌며 2년간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치매노인 간병봉사를 해온 전보살은 김현준 원장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 대구로 내려와 아예 효행의 집에 기거하며 봉사하고 있다.

신은주 보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만난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된다"며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 많은 삶의 진리를 배운다"고 귀띔한다.

또 김승자 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효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내 부모만이 아닌 어렵게 사는 독거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6명의 자원봉사 보살들은 효행의 집 노인분들이 불교신행도 할 수 있도록 간이법당을 마련하고 사찰순례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효행의 집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다. (053)783-2340.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베풀지 않는 것도 도둑질

홀로 살아 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 흔히들 '로빈슨 크루소'를 입에 올린다. 틀린 말도 아니다. —비록 소설이긴 해도— 그는 분명 무인도에서 홀로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가 진정 '홀로' 였을까?

로빈슨 크루소가 스스로 생산해서 먹었던 것들도 100% 그의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햇빛과 비 그리고 바람 같은 것들이 돕지 않았다면 하루 끼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도운 결과다.

지구도 태양계의 인력에 의해 제 궤도를 돈다. 또 달의 밀고 당기는 힘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물고기와 인간은 그 덕을 본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얽히고 설킨 사회구조의 상보성(相補性)은 더 이를 나위가 없다.

현대 사회의 모든 인간은 한시라도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생존 능력으로만 말한다면 원시인보다도 열등한 수준이다. 자동차 한 대만 보더라도 그렇다.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으니 적어도 수만 명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남을 도와 준다는 행위라는 게 결코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선행은 아니다. 내 하루하루가 남의 은덕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입은 바를 되돌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말이다.

나도 남을 도울 만큼 도왔으니 계산은 끝났다는 논리도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태양의 몫, 바람의 몫, 물의 몫, 흙의 몫…은 어떤 셈법으로 돌려 줄 것인가. 그런 몫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니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이다.

나눔은 결코 내 몫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몫을 그에게 되돌려 줌이다. 잠시 내가 맡았던, 본래 그의 것을 되돌려 줌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다.

때로 사회는 되돌려주어야 마땅한 것을 되돌려 주는데도 박수를 보낸다. 칭찬한다. 좋은 일 했다고 표창하고, 이름 새겨주고 널리 알린다. 내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는 것 뿐인데도 내것을 준 것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다. 또 빚을 진 것인가, 금상첨화인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기를 간곡히 권하는 불교의 계율 가운데 살생 다음의 금계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헌혈과 장기기증 생명 나누는 실천행



범장스님 수덕사 주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생명을 나누자'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나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상(相)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지 못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며 해탈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눈, 코, 입, 몸을 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주지 않는다면 보살 마하살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몸이 인연이 모이면 생(生)하고 인연이 다하면 멸(滅)하는 것인데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살아가는

"내 몸뚱이 집착하면 행복 느낄수 없어요"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육신이란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가 뭉쳤다가 흩어지는 것이니 생(生)이란 맑은 허공에 흰 구름 한 조각 떠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어찌 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목적은 이상세계(理想世界) 구현에 있습니다. 즉, 자유와 해탈,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나 영원하리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얻을 수 있으며,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깨달음도 중생구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이와 같이 말이나 생각이 아닌 자기를 버리는 실천행입니다.

중국의 한 스님은 '교류수불류(橋流水不流)'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리가 흘러가고 물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엉터리 같은 말이요, 당치 않은 말장난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기 힘들다는 역설적인 의미도 함축돼 있습니다. 마음과 중생, 그리고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칼날 같은 무서운 경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혈이나 장기기증도 내 몸뚱이에 집착하는 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부처가 되는 길은 고사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 생사해탈에 이르는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만큼 법열을 느낄 수 있는 자비행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無上最高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손실감이나 공허함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요, 불법의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나누는 행위를 우리는 보살행, 자비행, 동사섭(同事攝·중생의 근기에 따라 교화하는 것), 동체대비라고도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 8만대장경의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인 장기를 나누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길이요, 자기 자신을 구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행캘린더

12월 13일 (수)

■ 조계종 원우회 정기총회=조계종 원우회는 오후 5시 30분 불교회관 1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735-5863

■ 불교창작무 '무애' 발표회=정혜진 무용단은 14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불교창작무 '무애' 발표회를 개최한다.(02)752-7739

12월 14일 (목)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오후 7시 소비텔 엠버서드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00 동국인의 밤'을 개최한다.(02)733-3993

12월 15일 (금)

■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조계종 복지재단은 오후 2시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02)723-5102

12월 16일 (토)

■ 제12회 포교대상 시상식=조계종 포교원은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2회 포교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02)720-7060

■ 과천정부청사 연합불자회 송년법회=과천정부청사 연합불자회는 오후 6시 보광사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02)500-2654

■ 조계사 불교기본교육 수강생 수련회=조계사 불교기본교육 강좌 수강생들은 17일까지 해인사로 수련회를 떠난다.(02)720-1390

12월 17일 (일)

■ 은하사 백고좌 법회=김해 은하사는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벌어사 미륵암 백운스님을 법사로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055)337-0101

■ 군불교진흥회 순직 장병 추모재=군불교진흥회는 광복 통일사를 위문하고 98년 경기북부지역 수해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해 추모재를 봉행한다.(02)749-5135

■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 송년법회=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는 오전 10시 공주 갑사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042)481-4675

12월 19일 (화)

■ 지하철법우회 부처님 봉안법회=서울지하철법우회는 오후 6시 종합운동장역 법당에서 법당확장 및 부처님 봉안법회를 봉행한다.(02)520-5185

■ 총금강회 서울교구 송년음악회=진각종 총금강회 서울교구는 오후 7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즐거운 합창, 하나되는 신교도'라는 주제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02)913-0753

■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송년법회=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오후 2시 기원사에서 지도법사 상현스님을 모시고 송년법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16)272-2386

"애들아, 마음 발을 잘 갈아라"
새로운 나를 찾아 - 다보 청소년 심성수련 체험 캠프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몸에 익히며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불기 2544년 '청소년 심성수련 체험 캠프'를 펼칩니다.

기 간 불기 2544년 12월 23일 (토) - 12월 27일 (수) ▶ 4박 5일간
장 소 다보사 다보수련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소재)
대 상 중고등학생 80명
신청방법 전화, 우편, FAX 또는 직접접수
동 참 비 50,000원 [교재 및 기념품 지급]
동 참 비 농협 413060-51-005281
송금구좌 예금주 : 대 한불교진흥원
참가준비물 세면도구, 필기구, 옷
수련 내용 심성훈련, 예불, 명상 호흡 수련 [좌선], 강의, 무리별 토론과 주제 발표, 촛불 기원, 달빛 밟기 명상 수련, 별자리 보기, 담력 훈련, 사경, 발우공양, 전래 놀이, 묵언 수행 12시간, 산행, 불꽃 축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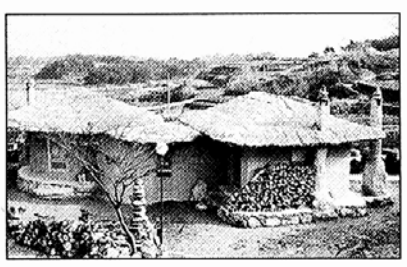
문의 : (다보수련원) (043) 833-7789 · 833-2542 FAX (043) 833-2550
☎ (대한불교진흥원) (02) 719-2606 FAX (02) 719-5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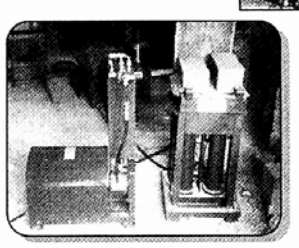
[재]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사 다보수련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모집
(2001년 전기 불교종무행정전공 학생 모집)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관리자 과정
2. 모집학과

학 과	전 공
종무행정학	불교종무행정

3. 모집인원 00명
4. 지원자격 가. 4년제 정규대학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최고관리자과정은 학력제한 없음
5. 전형방법

전공구분	전형방법
불교종무행정	서류전형/면접(공통)

6.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0. 12. 4(월) ~ 12. 14(목) 10:00 ~ 18:00 (토, 일요일은제외)
나. 장소 : 대학원 교학과
7.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0. 12. 16 (토) 10:00 ~
나. 장 소 : 고사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8. 합격자 발표 2000. 12. 20 (수) 15:00 이후
9.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탈모 상반신 사진 [3×4] 4매 부착) 1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점수 기재) 1통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여학생은 제외) 각 1통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10. 기 타 가.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람

· 전화 : 02)760-4271 · 팩스 : 02)760-4273 · 인터넷홈페이지 : www.hansung.ac.kr

특전 가. 공무원·교직원·군경으로 근무하는 자는 수업료 일부를 감면함.
가.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성적우수학금을 지급함
나. 종무행정수료자에게는 한성대 총장, 행정대학원장 명의의 종무행정관리사 자격증을 수여함.



박태원 교수의 16

불교로 보는 인생

스승과 제자 그리고 눈뜸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스승의 선택' 관심없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 살인마에서 아라한으로 변모한 앙굴리말라. 탁발 나간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출가 전의 살인마 앙굴리말라임을 알아본다. 놀란 그가 "앙굴리말라가 나타났다!"고 외치자, 그 소리를 듣고 한 임산부가 놀란 나머지 유산을 한다. 격분한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돌팔매로 아라한 앙굴리말라에게 뭇매를 가한다(패싸움하는 곳을 지나다가 다쳤다는 설도 있다). 아라한 앙굴리말라는 치명상을 입도록 맞는 동안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마음 한 점 일으키지 않았다. 몸이 무너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열반에 들기 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스승 부처님을 뵙고 싶었다. 스승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끈다. 꺼져 가는 생명, 운신조차 어려운 몸을 움직여, 그는 그렇게 스승 앞으로 나간다. "몸 버리기 전에 스승님 한번 더 뵙고 갈려고 왔습니다." "인욕하고 용서하였구나, 그대여, 과거 악행의 과보를 잘 대처하였구나. 모든 악을 버린 마른 옷을 다시 입힌다. 따스한 볕이 드는 곳, 침상 위에 몸을 눕히니 심신이 정갈해져 정신이 맑아진 환자. 그 옆에 앉아 부처님 그 분은 조용히 법을 설한다. 그 설법을 들으며 깨달음의 눈이 열려 잔잔히 미소지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부처님 제자들은 합장한 채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스승복 없이 이루어지는 공부와 성취가 있을 수 있을까? 독학(獨學)과 독각(獨覺)이 원만하기란 정말 어렵다. 아니, 엄밀히 말해 독각이란 없다. 눈부신 성취와 업적들은 선우(善友)를 잘 만난 덕에 가능한 법. 허준의 일생에 유의태의 설화가 동반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름 얻은 후엔 모든 것을 제 잘난 탓으로 돌리려는 아만이 흔히 선우와 스승의 역할을 슬쩍 묻어버리곤 하지만.

또 다시 입시철이다. '큰 배움'의 문을 두드리는 학인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문패를 고를까? "어째서 철학과를 지원했나?" "수능 점수에 맞추었습니다." "솔직한 점은 좋다. 그러나 아쉽구나.

너 여래의 아들아!" 스승의 격려와 따뜻한 눈빛을 미소로 받으며, 고요히 그는 눈을 감는다.

앙굴리말라의 살인 행각이 마음에 걸린 사람들이 묻는다. "부처님, 그는 죽은 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열반에 들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힌 살인자가 어떻게 열반에 들 수 있었습니까?" "선우(善友)가 없었기에 그는 악행에 빠졌었다. 그러나 선우를 만나면서 진리에 눈떴으니, 그의 수행력은 과거 모든 악행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노라."

한 젊은이가 부처님 가르침에 감동되어 출가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수행 중에 생긴 종기가 악화되어 마침내 온 몸에 퍼져 옷이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름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며 뒹굴고 대소변조차 스스로 가리지 못하는 정도가 되자, 마침내 그를 간호하던 도반들도 손들고 말았다. 아무도 돌보아 주는 사람 없이 혼자 헛간에서 뒹구는 그에게 스승 부처님이 다가온다. 몸소 물을 데워 환자 몸에 뿌린 후 조심조심 피고름과 옷을 분리시키는 스승. 옷을 빨아 햇볕에 말려 놓고 피고름 투성이 환자 몸을 정성껏 씻기고, 그 동안

옛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 평생 동안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네 학인들 입에서 스승을 찾아 여기 저기 고르고 다녔다는 말은 사라졌구나. 누구에게서 배우는가는 아예 관심 밖의 일이 되었지…"

작년 입시 면접 때 학생과 나누었던 말이다.

근대 이후 우리네 배움의 길에서는 스승 선택에 대한 관심과 기회가 증발해 버렸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과연 스승을 골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던가. 아니, 스승의 선택에 관심을 두기나 하는가. 기껏 신경 쓰는 것은 능숙한 문제 풀이 길잡이요, 선택 기준은 점수나 소위 자기 적성이 아니던가. 스승을 찾아 왔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부처님 그 빛나는 선우와 제자들이 피워낸 향기가 꿈처럼 아련하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믿음 깊게하고 불보살 위신력 접근

참불자의 길 주력①- 주력수행이란?

"불교의 수행 가운데 주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력도 수행이 되나요?"

얼마 전 방송된 KBS-TV 드라마 '왕건'에서 육자진언이 잘못 표현된 것처럼 '주력'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입으로 지은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마술을 할 때 쓰는 주문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그렇다. 주력의 본래 의미는 진언과 다라니의 효과로 불·보살의 본래서원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주력(呪力)은 한역 경전에서 주(呪)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주력을 문자그대로 표현하면 '주문(呪文)의 힘'이란 뜻이다. 산스크리트 경전에서는 크게 만트라(mantra, 진언)·다라니(dharaani, 총지·능지)·비드야(vidya, 명주) 세 종류로 나뉜다. 보통 긴 주문을 다라니(陀羅尼 Dharani)라 하고, 짧은 것을 진언(眞言, Mantra)이라고도 한다.

도업스님(동국대 불교학)은 "진언은 참된 부처님의 말로 비밀스런 깊은 뜻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쓰는 주문과는 전혀 다르다. 경문에 나오는 진언은 대개 뜻을 단 몇 마디에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므로 원어 그대로 독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님은 "주력 수행을 할 때는 전체의 뜻을 생각하면서 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언 가르침 함축 원어 그대로 독송"

일반적으로 주력 수행하면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는 〈반야심경〉 2백50자의 핵심을 함축한 것이며, 〈천수경〉에도 진언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진언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다. 이것은 긴 다라니로 신앙심을 심화하는데 다리 역할을 한다. 불·보살의 위신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력(진언)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스님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주력을 이렇게 설한다. "보살이 삼매자재(三昧自在)를 깨달아서 이 자재에 의해 중생의 재환을 없애는 주문에 가피를 입히면, 그러한 주문이 최고의 영험으로 모든 재난을 없앤다. 이것을 보살의 주다라니라 한다." 이렇게 어떤 재해로부터 몸을 지킨다는 진언(다라니)을 마치 참선을 할 때 화두를 참구 하듯이 항상 외우고, 수행의 요체로 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력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만 통용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진언을 외우는 수행법을 주력이라 말하지 않는다. 본래 진언을 외우는 것은 밀교의 수행법이다.

밀교에서는 부처님의 삼업(三業), 즉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행위, 뜻으로 짓는 행위는 중생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것이라 하여 삼밀(三密)이라 한다.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삼업이 부처님의 삼업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밀교에서는 즉신성불(卽身成佛), 즉 현세의 몸 그대로 성불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처님과 중생이 서로 융합하는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생은 손으로 인(印)을 맺고(身密),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口密), 생각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임을 관(意密)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언의 연원은 멀리 인도의 고대 경전 리그베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에 진언이 전래된 것은 11세기 무렵 몽골을 통해서란 것이 정설이다. 그 진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이다.

진각종 포교부장 무외정사는 "육자진언은 온 우주에 충만하여 이는 지혜와 자비가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 진언은 수많은 세월동안 많은 수행자들이 지속적으로 체험하여 축적된 깨달음의 경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소리이며, 이로 인해 육자진언 염송의 공덕이 수승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을 염송하고 있는 진각종도들.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언어 주인처럼 부리면 심성작용 드러나

38 선과 언어 (2)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나가르쥬나의 중관사상은 '삿됨을 깨뜨리는 것이 곧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破邪卽顯正)'이라 하여 삿됨을 깨뜨리는 희론적멸(戱論寂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바로 마음을 가리킴(直指人心)'과 '성을 보아 깨달음을 성취함(見性成佛)'이라는 특성을 가진 선은, '삿됨을 깨뜨리는 것(破邪)'보다는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顯正)'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은 규봉종밀이 〈도서〉에서 마조(馬祖)의 선을 가리켜 직현심성종(直顯心性宗)이라 부르고 있는 것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중관사상이 희론적멸이라는 파사를 통하여 현정을 성취하는 구조라면, 선은 현정을 바로 성취함으로써 파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에서는 궁극의 목적인 견성을 중간과정 없이 바로 성취하려 한다. 선(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선이라 하면 곧 조사선을 말한다)을 돈교(頓敎) 혹은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중관사상에서 파사를 희론적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언어의 구속으로부터 해탈함을 말한다. 언어로부터의 해탈은 달리 말하면 분별의식 혹은 관념으로부터의 해탈이며, 이것은 불교의 본질이다. 선에서의 견성 역시 언어의 자성(自性)을 바로 봄으로써 언어(곧 분별의식)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다.

선사들이 언어관념의 구속을 풀어주는 구체적 방편은 △논리적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하거나 △현재의 경험 사실을 그대로 기리키거나 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이렇다고 말해도 안되고 이렇지 않다고 말해도 안된다'거나, '들어가도 안되고 나가도 안된다' 하는 등 이른바 사구(四句)를 여의고 백비(百非)를 끊고서 한 마디 말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생각과 언어를 배제시킴으로써 언어관념의 길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쥐가 소의 뿔 속으로 기어들어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경우에 봉착하여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언어관념을 통한 사려분별로서는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연출하여 언어관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 경우는 희론의 적멸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의 경우는 불교의 진리를 묻는데 답하여 '뜰 앞의 잣나무'처럼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지시하거나, '절 한번 하라'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할'과 '방'처럼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 역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심성(心性)의 직지(直指)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직지인심의 경우는 희론의 적멸과 심성의 직지를 동시에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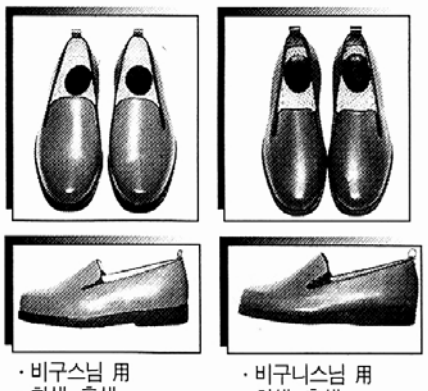
선을 공부하는 학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언어를 포기하지 못하면 안타까움과 답답함만 있을 뿐이지만, 만약 모든 언어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이제 그곳에는 다만 심성의 작용만이 여여(如如)하게 드러날 뿐이다. 바로 이 순간 이 여여함이 자각(自覺)된다면, 이것이 바로 견성(見性)이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마치 지금까지 발딛고 있던 언어라는 발판을 버리고 허공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 언어는 분명하고 친숙하지만 밖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는 좁고 불안한 발판이었는데, 이제 허공이라는 발판은 비록 분명하지는 않으나 안팎이 없으므로 불안과 갈등의 요소가 조금도 없는 가장 안전한 거주처가 된다. 언어는 분명한 상(相)이므로 집착하고 매이기는 쉽지만 놓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번 놓아서 허공의 안전함을 맛보고나면 이제 더이상 불안하고 답답한 언어에 매이지 않는다. 즉 언어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언어에게 휘둘리는 하인이 되지 않고 언어를 부리는 주인이 된다. 이처럼 선의 목적은 언어에서 출발하여 그 언어를 극복함으로써 성취된다. 즉 선이란 언어를 극복하고 견성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 핵심이지, 언어와의 특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대 불 교

본 사 02)737-8881
강릉지사 033)643-5577
고성지국 055)672-0078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983-9222
목포지국 061)279-3788
밀양지국 055)353-1196
부산지사 051)463-5331
안산지국 031)494-8859
영주지국 054)674-1199
울산지사 052)257-7737
진주지사 016)585-2120
제주지사 016)695-6885
충청지사 042)527-0559
일본지사 031)713-5111

아바타 합동코스
<뜻대로 사는 길>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 화엄경 4구게 -
당신이 성취하길 원하는 목표와 당신의 신념들을 일치시키고 싶으십니까?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투쟁들에서 벗어나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깨달음이라고 불리우는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아바타는 그러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일 시 : 2000년 12월 23일(토) - 31일(일) 8박 9일
▶장 소 : 봉인사 한길 정진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304)
▶참 가 비 : 18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00만원(숙식포함)
▶신청문의 : · 서울 혜원 아바타 센터 : 011-733-9379 · 02-579-9379
· 광주 혜산 아바타 센터 : 011-606-1976
· 봉 인 사 한길정진원 : 031- 574- 5585 · 031-528-5585
※ 아바타 마스터들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行"
권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조 :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권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1)742-0296. 742-0297
권行대표 박동진 합장

한국전력 노·사가 정부의 민영화 및 분할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 할 공기업의 노사가 순간의 위기 모면을 위해 이면 계약을 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정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결국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나라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왜 정직해야 하는지 경전에서 듣는다.



정직

빈천 속에서 죽을망정…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정직과 의를 취해 청백하며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차라리 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육도집경〉

▨늘 지성으로 행동하며 꾸밈이 없으면 그 원이 채워져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 온갖 바른 덕을 늘려 그릇된 행위가 없고 불법을 사랑해 구하는 사람은 빨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반야삼매경〉

▨말(斗)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든가,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

▨수행자는 심견(心見, 마음의 작용)을 정직히 하여 속이지 말고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화엄경〉

▨아첨하는 마음은 도(道)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첨은 자타를 속일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교경〉

▨만약 사람의 마음이 곧고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제법집요경〉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등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가지 선업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몸을 단속하여 진실을 좇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법구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유정법경〉

▨'곧은 마음(直心)'은 곧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 〈유마경〉

▨'그릇된 생각'(邪見)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설사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두 가지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바, 첫째는 항상 사견을 지닌 집안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그 마음이 사악함이다. 〈십주경〉

▨그릇된 생각은 도둑을 만든다. 〈천청문경〉

▨만약 사악하여 청정치 못한 마음을 지녔을 때는 억겁(億劫)을 찾아다닌다고 해도 여래를 만나뵙기 어려울 것이다. 〈화엄경〉

어떤 죽음도 결코 '안락'할 수 없다

물자 세상보기

네덜란드 세계 첫 안락사 법적 인정

'불살생' 계율 위반 생명존중 어긋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철학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전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락사에 관한 의료적, 윤리적 논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에 따르면 숨을 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망 판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기술은 산소호흡기 등의 장치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실제로 뇌사에 들어갔지만 이런 장치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의 호흡을 돕는 인위적 기구를 제거하면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논쟁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적극적인 안락사'로서, 불치의 말기암 환자와 같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죽기를 원할 때 편한 죽음에 이르도록 '사망'을 시키는 문제이다.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 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에 따라 기르기가 힘들 때 안락사를 시행한다.

현행법상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된다. 특히 서구의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신의 뜻을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로 금기시 되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 네델란드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통과되어 제한적으로나마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 추세임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안락사에 대해 등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환자와 그 가족이 원하는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논의나 입법으로는 가지 않는 실정이다.

불교에서는 안락사의 반대이유를 절대자의 영역에 대한 침해로는 보지 않는다. 인간의 탄생은 오히려 근본무명(根本無明)에서 비롯되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무명을 제거하면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이라는 자주적인 태도를 존중한다. 불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열반의 의미가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라는 점은 깨달은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기는커녕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는 긍정의 뜻도 담겨 있다.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이야말로 온당하지 않은 태도일 수도 있다. 인간의 인위적인 생명연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현상세계가 '마치 꿈같고, 환상같고, 물거품같고, 그림자같고 그리고 이슬같고 번개같이' 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금강경〉. 이것은 불교가 인간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곤충과 미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비폭력' '불살생'의 가치가 불교정신의 진수라는 점에서 자살이나 안락사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의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살생'의 계율에 위반되는 살인행위이며, 동물에 대한 안락사도 방법이 자비롭다고 하더라도 살생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가 보는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살생에 해당되는 것이다.

안락사 논쟁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생을 '단 한 번뿐'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진 한, 세속적인 명리만을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 어떤 죽음도 결코 안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열 린 마 당

21세기 환경문화와 종교

인류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등 종교계의 대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강대 부설 생명문화연구원은 6일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환경 문화와 종교'를 주제로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각 종교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발표자들은 "환경 문제는 사회나 문화 운동 차원에서 다루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이제는 종교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발제문 요지다.

"환경보살운동 펴자"

최종석박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1세기 환경의식의 혁명은 결국 인간중심의 문화적 차원을 넘어선 종교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환경 친화적 이상(理想)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菩薩)을 접목시킨 '환경보살' 상을 새롭게 정립시켜야 한다. 대승보살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환경보살로 새롭게 해석된다면, 이 시대의 종교문화가 환경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살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완성하게 하는 길이 여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 양식의 보살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보살이 완성해야 할 삶의 양식으로서 보시(布施)는 '준다'는 말이다.

이와같은 여섯 가지 환경보살의 삶의 양식은 모두, 모든 존재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혜(智慧)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성중심 환경운동"

최민석신부 〈가톨릭 농민회〉



대부분 근본주의적인 신앙형태를 지니고 있는 한국 가톨릭교인에게 환경운동은 세속적인 운동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그리스도교 환경운동을 창조신앙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한다.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가 오래 전부터 표방해 왔던 '생활실천운동'에서 그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의 특징은, 환경문제가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으로서 여성성에 주목하는 데 있다. 여성운동과 생명운동은 서로 비슷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환경운동을 여성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교회의 환경운동이 가야할 방향을 재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운동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고백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인간중심주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사목임을 자각해야 한다.

"생태학적 禮敎 모색"

곽신환교수 〈숭실대〉



유교도 이제 기존의 관념들에 대하여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시도하고 유용한 가치들을 재발굴해야 한다. 송대의 유학자들은 인(仁)을 만물을 살리는 것으로, 의(義)를 만물을 기르는 것으로, 효(孝)를 천지의 뜻과 활동을 계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선악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태계와의 만남에서의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 인의나 효와 같은 개념이 생태학적으로 해석되고 의미부여가 된다면,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는 구체적 예교(禮敎) 즉 생태학적 예교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국지적 영역을 넘어서 전체 구성원 또는 인류에게 그 영향을 심대하게 미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아울러 이에 맞는 행위지침으로서의 예절의 제정과 그 교육은 시각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연의 존엄성 성찰"

이정배교수 〈감리교신학대〉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래로 타락과 구원의 드라마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놓쳐 버렸다. 하느님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베푸신 구원 이외에도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총도 있다. 자연과 환경이란 인간 삶의 근거이자 생명력을 지닌 공간이다. 그러나 개발 이데올로기, 곧 성장과 발전에 눈이 어두워 자연을 물질획득의 대상으로만 보아온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 자연 내에서 하느님의 숨결과 현존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21세기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가 국가부도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자연부도 등도 염려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게 될 때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성스럽게 깨닫는, 우리의 삶의 근거를 파악하고 그 근거와 친밀해지는 일이 가능해야만 한다. 또한 공간 속에 내재된 생명과 그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지니며 일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와 공존"

하상의교수 〈영산원불교대〉



인간과 자연과 우주 속의 모든 존재는 고립되어 있을 수 없다. 즉 진정한 자아는 이 지상에서 모든 생명체들과 우리는 공존하는 '생태적 자아'인 것이다. 화엄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인드라망은 유리보석으로 짜여진 그물과 같다. 각각의 유리보석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보석 속에 다른 보석들이 서로 투영되어 있다는 말 그대로 중중무진의 존재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너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모습 속에서 너를 볼 뿐만 아니라, 우주가 한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자각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생태문제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어떤 조치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은 개개의 존재들이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므로 다원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연말 연시,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트이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잘·익·은·생·각·의·집

이양희시집



B6변형 / 값 7,000원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겉멋 내지 않고
늘 진실 편에 서려고 애쓰며
힘들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시에게 말을 걸다보면
시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넬까
시가 건네오는 첫마디에
부끄럽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일 없으리라.

- 저자의 후기 -

불교·사찰·지연을 소재로 한 주옥같은 시, 봉사활동을 하며 지은 시 등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밝히는 좋은 시들로 가득합니다.

◈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권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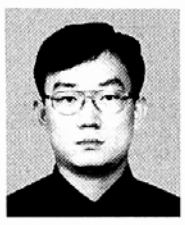
효림의 자회사 도서출판 여음에서 발간한 시집입니다. 주문은 효림으로 하세요.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사·부·대·중

불교문화 제대로 관리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산청에 성철큰스님 기념관 개관준비를 하면서 문화재 보존 작업을 하는 분을 만난 일이 있었다. 그 분이 회화 작품의 보존 처리 작업을 하다 보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불화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불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도 아쉬운 그 시간에 그 분은 사찰에서 불화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주로 거론했다.

후불탱화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식빵을 사용하는 이야기, 불화를 도난당하고도 어떤 그림이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스님들, 아예 소장한 문화재의 목록도 존재하지 않는 사찰, 그리고 그렇게 도난당한 불화도 10년만 지나면 되찾아올 수 없는 법률적인 현실 등등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목소리는 어느새 높아져 있었다. 그분이 비난섞인 말투로 내린 결론은 스님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사찰에 가서 주련의 내용을 알아 보려다가 무안함을 당했던 기억을 몇 번 가진 나로서는 스님들에 대한 그분의 인상을 바꾸어 주어야 할텐데 하면서도 내심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은 씁쓸했다.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가 불교문화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미신이냐며 목청을 돋운 것이 우리 불교계가 아니었던가? 정작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며 보존하고 있는지, 문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그리고는 선원, 강원, 율원 외에 보존원이라도 만들어져 이런 분야의 불교계 전문가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런 씁쓸함을 씻어줄 만한 기사를 최근 보게 되었다. 내년에 송광사에 '성보보수교습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은 일전에 방송에도 소개된 재일교포 문화재 복원 전문가가 맡는다고 한다.

종단적 차원이 아닌 개 사찰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반가운 일이다. 기사를 보면 재가자를 위한 기관으로 보이는데 이왕이면 스님들도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지 한 달이 되어간다. 방부 들이고 용맹정진하는 선방 스님들 못지않게, 전국을 선방삼아 우리 문화를 화두로 붙잡고 있는 그런 스님을 만나고 싶다.

목탁소리

태고종의 '위상'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지난 5일 오후 태고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린 '태고종 전국 시도 교구 종무원장 및 각급 기관장 회의'는 취재간 기자들을 매우 실망시켰다. 종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고 처음으로 열린, 태고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스님들의 월례회의임에도 12명(2명은 새로 임명된 부장)만이 나왔기 때문이다. 새 총무원장과 시급한 여러 종무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총 26명중 절반도 안되는 인원만 참석한 것을 보니 태고종이 왜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있었는가 그 원인을 알 것 같았다. 회의 때마다 이 정도 수의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한다. 이렇게 협조가 안되고 관심이 없는데 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새 총무원장이 선출됐다. 태고종이 새로 선출된 총무원장을 앞장세우고 정말로 변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한 무관심과 방임으로 그대로 답보에 머물고 말지는 전적으로 태고종도들의 손에 달렸다.

그런데 미처 취임식도 하기 전에 태고종의 수(首)사찰 3사중 하나인 봉원사 주지 이름으로 '이번에 선출된 총무원장이 자격이 없다'는 청원서가 나왔다. '총무원장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태고종이 '개혁'은 커녕 도리어 '내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자격이나 절차상의 이의는 선거를 하기 전 종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종연스님의 공약의 실현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지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비판해도 충분할 것이다. 만에 하나 세속법으로 간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태고종의 정통종단으로서의 자부심과 위상은 곤두박질치고 제2종단으로서의 위상회복은 어쩌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안정과 화합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능력이나 구상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법이다. 교계는 지금 태고종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승풍진작, 교육불사, 복지, 포교 등 대승불교 교화종단임을 자부하는 태고종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힘을 합치고 축적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소모적인 분쟁으로 그나마 있는 힘마저 낭비한다는 것이 될 말인가.

불교단체, 기금·기부금제 도입

"10년후 불교 준비한다"

재정난 해결-목적사업 진행 '일석이조'

"시민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매일매일 절망밖에 없다는 걸 느낍니다. 사무국 직원들 월급을 못줄 때가 있어요. 돈을 빌리기 위해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이 지난 8월 우리는선우 초청 강연에서 시민운동단체의 재정난을 토로하면서 한 말이다.

21세기를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한다. 4.13총선 시민연대, 소액주주운동 등의 모습을 경험했기에 앞의 규정을 허언으로 평가절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UN의 각종 회의나 국제회의에서는 민간단체포럼을 하나의 공식 행사로 자리잡았다. 시민운동을 '제3섹터'라고 표현하듯,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척도로서 시민운동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겉으로 드러난 시민단체의 활동 이면에는 단체를 유지하고 주어진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속앓이를 견뎌내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재정 확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1만여개의 시민단체의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50% 정도이다. 나머지는 부정기적인 후원금, 정부의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불교계의 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불교단체는 시민운동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그나마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는 일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단체가 월 500~1000만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돈으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회보 발행 등 경상비에 쓰고 나면 기존 사업 외에 새롭게 돌출되는 사업을 하려 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일하는 사람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그렇다면, 10년 전 있었던 불교운동 단체 가운데 지금도 초발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몇 곳이나 될까. 10년이 지난 후 그러한 단체는 또 몇이나 될까.

하나의 대안으로, 대안이라기보다 또 한번의 새로운 시도로써 기금, 기부금 제도의 도입, 운영이 논의되고 있다. 몇 단체에서는 이미 기금을 쌓아가고 있다.

99년부터 회비전액 기금화

우리는 선우

99년 1월부터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모두 적립해 기금화하고 있다. '21세기 발전기금'이다. "회비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면 안 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립하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였다. 회비는 기금화하고 운영비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우리는선우 회원은 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네 가지 목적사업(국제승보공경, 화랑선우, 시민선우, 백련선우) 가운데 하나 이상을 지정해 후원금을 낸다.

지방에 있는 지회의 경우 회비의 절반은 지회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기금으로 중앙에 보낸다.



◇평불협이 후원금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금강국수공장 후원금은 전액 북한 동포돕기에 쓰인다. 사진은 평불협 공동회장 법타스님과 김도현씨(법타스님 한사람 건너)가 금강국수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지난 7, 8월 두 달 동안 들어온 기금 및 후원금이 1854만원이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은 5000여만원. 기금을 쓸 시기와 용도는 정하지 않았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 5억원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총회에서 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쓸 곳은 많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마련하는데 쓸 수도 있다. 여러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선우의 조정숙 재무과장은 기금 마련이 여러 단체에서 진행되길 바란다. "몇 단체에서 함께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1% 목적사업 기부안 구상

재가연대

재가연대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짜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회비 의존도가 50%를 넘어서며, 미래에 대한 준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 목적사업 기부'를 구상하고 있다. 수입의 1%를 기부하되, 청정교단운동, 참여불교아카데미 등 재가연대의 특정 활동을 지정해 그곳에 써달라고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을 모두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니다. 50%는 적립해 회원이 지정한 사업의 확대에 쓰인다. 현재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회원이 사업을 제안하며 기부금을 낼 수도 있다. 일종의 지정기부제도이다.

"재정을 두텁게 할 수 있음은 물론 회원들의 뜻이 사업에 곧장 반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영철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수공장 후원금 별도운영

평불협

평불협은 북한의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후원금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매월 700여만원이 들어오며, 전액 금강국수공장에 보낸다.

생명나눔실천회에서도 후원금 외에 목적사업지원금을 만들어 매월 1명의 장기이식 환자를 돕는 데 쓰고 있다.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지난 11월의 경우 60여명이 동참해 적게는 5000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성금을 쾌척했다.

회원들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지정한 회비 납부제도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참여연대의 경우가 좋은 보기인데, 이 곳의 기금의 수는 20여개에 가깝다. 의자기금, 간사재충전기금, 라디오광고후원기금, 상근활동가 도시락기금 등 별난 이름이 붙어 있다.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하루 중 10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보며 보냅니다. 활동가들이 편안한 의자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참여이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말이다. "한 절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옵니까? 불교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 십억 정도만 들여서 참여연대 같은 조직을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하죠."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나도 한마디 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

"참여없이 권리찾을 수 없지요"



시민사회단체(NGO)는 분명한 공익적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인 참여자와 후원자를 생명으로 한다. 'NGO의 시대'는 곧 '참여의 시대'를 의미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 없이 발언(권리)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의 개발과 함께 기금 모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영리 단체의 마케팅 방법이 전문화되어야 하고,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이것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보다 NGO활동이 앞선 외국NGO의 경우 후원기금의 절반 정도를 다시 기금 확보를 위한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경우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고, 15개나 되는 다양한 기금을 만들어 후원자들의 바람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시금'이나 '화주'라고 하는 고전적 방식에 익숙해 있는 불교단체들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더불어 불교NGO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교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지원법'이 조속히 종법으로 제정되고, 이 종법 속에 자원(봉사)활동 정도가 종단의 대소 공직 취임이나 포교사 고시, 종무원 채용 등에 반영되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냉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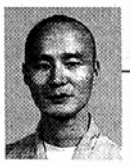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12권 선암사 편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 ~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유마경 ③

'사회와 함께' 생활불교 전개

차별없는 깨달음의 세계 체득 강조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는 보수적인 색채가 농후하던 교단(敎壇)에 진보적인 새바람을 일으킨 주역이었다. 당시 교단은 '자미득도선도타'(自未得度先度他 · 자신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먼저 타인을 교화한다)의 이념을 망각했으며, 이러한 교단에 대해 민중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 새바람의 내용은 불국토설(佛國土設)을 발현(發現)하면서 보살행과 재가불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부파불교가 자아중심적 교리에 치중해 있음을 비판하였음은 물론 대사회적 · 인간적인 측면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상을 전개한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폭탄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이 경(經)의 '촉루품(囑累品)'에서 〈유마경〉이 '불가사의 해탈법문(不可思議 解脫法門)'을 설하는 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마경〉은 단순히 교리를 전개하는 경전이라기보다는 불가사의한 종교적 체험에서 얻어진 마음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경전임을 알 수 있다.

옛날부터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경의 핵심은 바로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 있다고 했는데, 불이(不二)의 사상은 이 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근본 바탕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중국 불교사상의 개척자로 불리는 승조 스님은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청정(一道淸淨)을 말하는 것이요, 법은 진극가궤(眞極可軌)이며, 문(門)은 지묘허통(至妙虛通)이니 불이법문에 입(入)한다는 것은 요오사리(了悟斯理)하는 것이다." '입불이법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참으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궤(軌 · 길)가 되는 청정한 하나의 도(道), 그것은 허(虛 · 빈 것)한 것 같으면서도 통하는 지묘(至妙 · 지극히 오묘한 것)한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을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화의 본질을 뿌리 속 깊이까지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파악이 없이 지말적 존재의 현상만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생의 참모습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유마거사는 보살도를 수행하는 이로써 대자와 대비의 마음으로 일체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다.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등 고통받는 모든 부류의 인간에게 근원적인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보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유마거사는 세간이나 출세간의 구별이 없이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구도자의 모습이었으며, 출세간의 수행자들에게는 불이의 세계 위에서 모두가 하나의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강조한 설교자였다.

유마거사는 차별상과 개념의 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대한 침묵으로 불이(不二)의 뜻을 대변하였다. 잘못된 개념들 속에서 눈을 뜨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수행자의 잘못을 타파하는데 일침을 가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법(法)의 실상(實相)에는 부처와 중생 · 삶과 죽음 · 옳고 그름이라는 등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실상을 온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 〈유마경〉의 가르침인 것이며, 언설을 떠나 실제의 수행만이 부처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유마거사는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실천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불이법문(不二法門)이 곧 사물을 대하는 마음의 경지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할 때 유마거사의 정신이 길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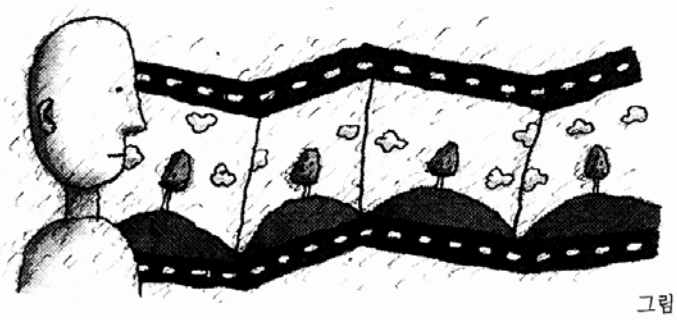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감각은 가상의 현실

불교와 과학 〈10〉

과 학 잔상효과로 영화 움직이듯 보여

불 교 空으로 보면 세계는 깨달음 천지

우리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 영화 필름을 빨리 돌려서 환상의 두 시간을 마치 실제적인 현실인양 영화를 본다. 그런데 영화 필름은 불연속적인 컷들의 조합일 뿐 연속적인 현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속적인 영상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의 시신경은 잔상효과라는 특별한 신경구조로 되어 있어서 불연속적인 컷들을 마치 연속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신경의 잔상효과란 방금 전에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어느 일정 시간 동안만큼 지난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신경구조를 말한다. 그 잔상시간은 1/16 초이다. 그러니 영화필름을 그 잔상시간 보다 더 빨리 돌리면 불연속의 컷들을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현재 필름을 돌리는 속도는 1/16 초보다 빠른 1/24 초로 돌린다. 다시 말해서 1초 동안 24 컷을 돌린다는 말이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상적임을 알 수 있는 단편의 사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상을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감각의 가상성 속에서 삶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의 가상성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인식구조를 밝힌 것이 바로 유식론(唯識論)이다. 유식론에서 말하는 감각 혹은 감각을 느끼는 사람의 구조는 단순히 외부의 감각대상과 그것을 감각하는 사람의 감각신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감각을 얻어내기 위하여 사람은 그 대상만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전체 세계를 같이 감각한다. 내가 저 소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소나무만을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놓여진 언덕과 그 위의 하늘 그리고 소나무에 걸쳐 있는 구름 등 소나무와 소나무 아닌 것 사이에 비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을 같이 보고 있다. 그런 소나무를 보는 나 역시 눈의 망막과 시신경에서부터 지각을 확인하는 뇌와 가슴이 같이 움직여 대상을 대상으로 알게 된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터 보아 왔던 소나무에 대한 감각과 비교하여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소나무임을 확인한다. 이를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하고 아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에 본 것과 비교하여 정말 맞는 소나무인지 아닌지를 순간에 판단한다. 그래서 감각은 순간적이지만 대상의 세계 모두와 나의 인식의 전체 역사를 동원하여 비로소 소나무임을 알게 된다. 결국 소나무에 대한 인식은 나의 전체 역사와 연관하며, 나의 전체 역사란 바로 나 아닌 타인 모두의 역사와 연관할 때 비로소 인식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소나무 하나를 보고 인식하는 일조차도 우주를 관통하는 모든 인식의 눈이 동원되는 것이다.

그런 총체적 우주의 눈이 있을 때만이 나와 대상의 만남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그런 만남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식의 세계는 많은 인식의 세계 중에서 하나 일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인식의 세계는 우주적 잔상효과에 의한 1/16 초라는 가상의 세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가상의 공간이 존재하므로 실제 조각 필름으로 구성된 영화의 공간이 연속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실 같은 가상이 부질없는 것이어서 실재의 세계는 더욱이 실재일 수 있다.

1/16초의 세상살이

이런 이야기를 일러 어떤 이들은 불교가 관념적이라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부질없는 가상이 없다면 실재 진여 세계의 참다움을 알지 못한다. 깨달음을 각(覺)이라고 한다. 깨달음은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도 그 아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어야만 진짜 아는 것이라고 자주 듣고 있다. 그것처럼 감각도 일종의 각(覺)이다. 부질없는 세계 · 속에서 감각을 잘 하는 일은 진짜 진여 세계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시작하는 일과 엇물려 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이 세계가 부질없고 가상 투성이의 세계라 할지라도 그 부질없음과 가상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의 몸으로 느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이 세계가 허망하다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비관적이라고 혹은 관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구적인 유(有)의 물질 세계에서 볼 때만 그러하다. 물질이 아닌 공(空)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계는 깨달음 천지의 세계이다. 부질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질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참 좋은 세계이다.

만약 사람에게 시각의 잔상효과가 없었다면 연속적인 영화필름을 만드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1/16 초의 세상살이라도 다음의 세계가 있기에 더욱 이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승려는 반정부인사" 투옥 등 종교활동 막아

지구촌 불교 / 베트남 불교 탄압

11월 5일, 베트남 방문을 열흘 앞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베트남불교사원연합회의 지도급 승려인 틱 쿠앙 도(Thich Quang Do, 73) 스님이 보낸 이 편지에는 "베트남의 종교 자유와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로이터통신(11월 9일)의 보도에 따르면, 틱 쿠앙 도 스님이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베트남사원연합회나 베트남 인권위원회 등의 단체에서 사전 입수한 베트남 방문 일정에 적잖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정에는 클린턴 대통령은 호치민 시(市)의 천주교 대주교를 비롯해 기독교계 지도자만을 만날 뿐, 반정부 인사로 분류돼 가택연금 또는 구금되어 있는 베트남 불교계 지도자들은 일체 만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틱 쿠앙 도 스님은 편지의 말미에서 "베트남 불교는 이곳 사람들의 정신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 자체"라며 "부디 이들의 말에 귀기울이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베트남 불교 인구는 전체 인구(7천3백 만 명)의 55%인 4천여 만 명.

이 편지는 두 가지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베트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군의 사열을 받고 있다.

호치민 감옥 사상범 100여명 대부분 스님

남의 현행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불교 탄압은 베트남 종전 전후(70년대)와 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탄압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사상범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 감시단(Human Right Watch)이 9월 조사한 바로는, 호치민 감옥에는 100여 명의 사상범이 있으며, 대부분 스님이라는 것이다. 틱 쿠앙 도 스님 역시 20여 년 간 옥살이와 가택연금을 당한 전력이 있다.

현행 베트남 헌법은 1980년에 개정됐다. 베트남 전쟁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베트남 불교는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당하는 등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과거 많은 베트남 스님들이 '보트 피플'이 되어 외국으로 탈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인민은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며 종교를 가질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베트남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대신 17일 하노이에서 학생들에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다만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뿐"이라며 신자유주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코카콜라나 나이키와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

틱 쿠앙 도 스님의 편지는 베트남 종전 33년이 흐른 뒤 미국 대통령의 첫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보내졌다는 점에서 로이터통신 등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신자유주의에 밀려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어버린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과거 반전 운동가였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10여 일간 백악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베트남 스님과 세계 인권단체의 노력도 아무런 울림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으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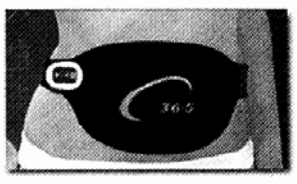
mahamall mahamall mahamall.co.kr www.mahamall.co.kr

108 나한단주



●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에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玉옥열 건강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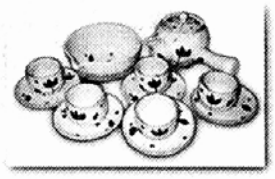
● 내몽골-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밧데리(휴대용 구입시)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삼보죽염 세트



●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600g / 가격 : 105,000원

투명꽃 5인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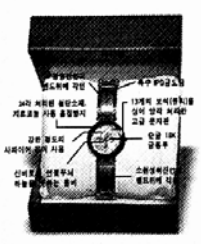
● 우아한 빛깔과 곡선이 느껴지는 전통다기 세트입니다. 차잎을 우려내는 다관, 탕수를 식히는 사발 숙우, 차를 따라 마시는 찻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 150,000원

수암 만다라 옥침



●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 · 중풍 · 침애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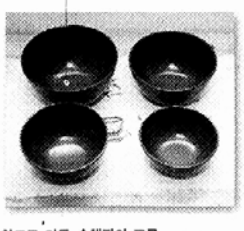
연꽃 불자시계



특별사은품 (탑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남성용,여성용 각각 : 119,000원

●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참선 명상방석



●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가격 : 4합 60,000원(무게 2.7Kg)
2합 30,000원(무게 1Kg)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꽃이
가격:50,000원

기도포/다포



● 기도포 84Cm × 39Cm / 가격:1,600원
다 포 50Cm × 32Cm / 가격: 800원
· 재질 : 면
※ 다량구매시 단체명 인쇄

참선 명상방석



● 일 반 30,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숯기반 35,000원 의장등록 제 14387 호
황토반 35,000원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만나실 수있습니다. Tel : 732-1522 · 732-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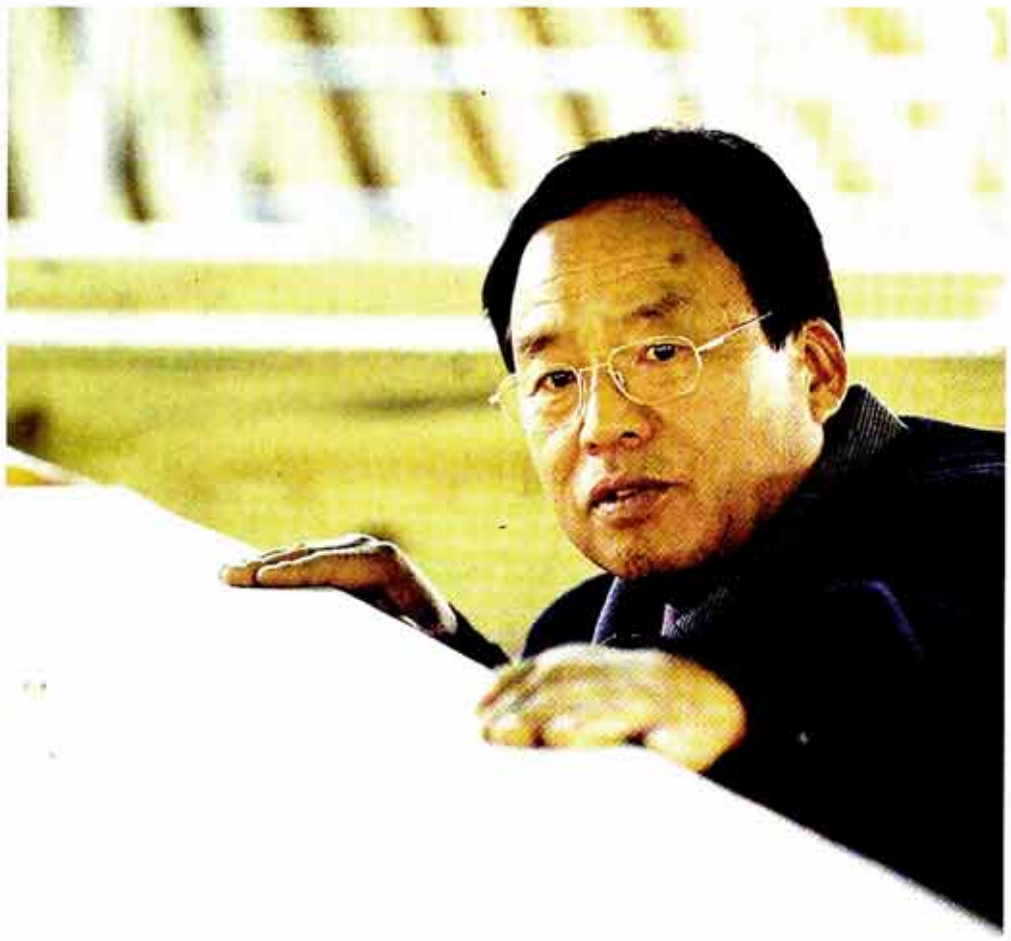
산문밖의 세계

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씨

"무량수전 같은 건물 지어야죠"

"구인사 대조사전 秀作불사된 까닭 단청은 단청대로 기와는 기와대로 장인만난 시절인연"

"집은 그시대 얼굴 '화려-크게' 보다 '자연과 조화' 중요 무너지는 건축물 속이 비었기때문"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멋과 아름다움은 지붕 추녀의 부드러운 곡선이나, 기둥과의 조화, 처마 등의 곡선미에서 볼 수 있듯 유려한 선(線)에서 나옵니다.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곡선은, 그러나 어떻게 만들겠다고만 해서 그러한 선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한옥은 몇십년 미리 앞아서 선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겠죠."

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씨(59)는 최근 자신있게 이러한 선을 표현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전통 목조건물 하나를 완성했다. 바로 지난달에 낙성식을 가진 단양 구인사의 대조사전이다. 대부분의 절이 시멘트로 지어진 것을 아쉽게 생각한 천태종이 '이 시대의 국보급 문화재'를 짓겠다는 원력으로 종단의 총력을 기울여 지원한 대조사전의 도편수를 전통건축의 1인자로 알려진 신응수씨가 맡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근래에 보기드문 수작(秀作)불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조사전은 국내 목조건물로는 최고 높이인 27m의 3층 다포집인데 근간을 이루는 목재부터 우리나라 것만을 사용했다. 최고의 목재로 알려진 태백산 300백년된 적송(赤松) 50만재가 들어갔다. 대나무처럼 죽곧은 16.5m의 아름드리 고주(중심기둥)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황금자기 기와나 섬세한 금단청, 웅장함과 화려한 닫집 등 하나 하나가 모두 정성과 빼어난 솜씨를 느끼게 하는 대조사전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전통건축의 선을 그대로 보여주며 조화와 균형미를 자랑한다. 겉으로는 3층이면서 안으로는 하나의 통층으로 된 이 건물을 위해 신응수씨는 금산사 미륵전을 여러번 가 보았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금사사 미륵전 등 시대를 대표하는 빼어난 건물에는 그 건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건물이란게 목재 같은 재료도 좋아야 하지만 역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먼지가 끼거나 일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나중에 건물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전통건물이 몇백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건재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생각한 옛날 장인들의 안목도 안목이지만 작은 일도 소홀 안한 세심한 정성 때문이라고 봐요."

구인사의 대조사전 같은 건물이 '참 잘 지었다'고 칭찬을 듣는 것은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종단과 욕수의 마음이 맞았고 또 불사를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와는 기와대로, 단청은 단청대로, 석재는 석재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장으로 알려진 장인들이 최고의 솜씨를 부릴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시절인연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목장 신응수씨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화재 건축을 해왔지만 구인사 대조사전이야말로 생애 최고의 대표작이 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토로한 천태종 구인사내 대조사전. 외 7포 내 11포의 3층 다포집으로 전체를 못 하나 쓰지않고 나무로 짜맞추었다.

대목장 인간문화재로 자타가 공인하는 도편수(목조건축의 책임자)지만 신응수씨가 목수일을 시작한 것은 나이 16살때. 춥고 배고프던 시절, 그는 무작정 상경해 삼촌 신강수씨를 따라다니며 나무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삼촌은 한옥공사를 주로 했는데 신씨는 그곳에서 물심부름 연장심부름을 거쳐 대패질, 톱질 등 목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 하나 배워갔다. 먹는 것조차 변변치 않은 시절이었지만 묵묵히 참고 한 단계 한단계 열심히 배웠다. 60년, 당시 몇 남지 않은 조선조 궁궐목수로서 우리나라 고건축의 최고의 권위자 이광규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이광규선생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신촌 봉원사 불사를 시작으로 이광규선생을 따라다니며 부편수로서 불국사 1차 복원, 서울 창룡사 대웅전, 자연농원내 호암장, 경주 미추왕릉 삼문을 시켜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주지스님들이 사찰불사를 꼭 임기내에 끝내려 조급해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무조건 크게만 하지 말고 그 건물이 위치한 자연과 조화를 이뤄 추진하기를 주문했다.

"무슨 일이든 쉽게 하려는 요즘 세태와 마음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이 짓는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인 것이라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한 상징이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빈 것이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어요?"

육심과 물질로만 채우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이 살고 일하는, 건물에 투영 안될 수 없다. 집이란 바로 그 시대 사회상의 반영이고 그 시대 인간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체적인 집합체가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집을 짓도록 해야합니다. 목수는 돈을 줄으면 좋은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지난 9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으로 지정받아 명실공히 고건축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지만 그는 자만을 경계하고자 늘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최고다 하는 자만심과 오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해도 어딘가는 허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야 발전이 있지요."

40여년을 목수로서 수많은 건물을 지어왔고 요즘도 경북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 창덕궁 구선원전과 강릉 객사문·제주도관아 등의 복원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신응수씨. 그는 늘 '부석사 무량수전'을 마음에 담고 산다.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고 상큼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추었고 동시에 자연과의 조화가 완벽한 무량수전 같은 건물을 짓고싶다는 원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글=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곶감야채꿀무침

만성적 설사·출혈성 질환 '효과'

"아이고, 저 스님 죽네, 저 스님 죽어!"

어느 마을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머물던 동산스님은 밤새 토하고 싸는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다.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무지개가 피어난 별천지로 들어가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바늘로 손발을 따서 피를 내고 주물러서 의식이 돌아왔다.

"스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소?" "오대산 상원사까지 가는 길인데 갑용사를 잠깐 참배 드리러 온 것인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제 낮에 선산에서 밥 한 그릇 시주 받아서 먹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스님은 회복되는 듯 싶었다. 남에게 신세지기를 몹시 꺼려하던 동산 스님은 밤에 마을을 빠져나왔으나 그만 기력이 없어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님의 품속에서 먹던 젖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감로수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 단잠을 자고 난 스님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다. 온몸에 열이 내리고 설사가 멈춘 스님은 자기가 무슨 약을 먹고 회복되었느냐고 물었다. 마을 노인은 머리 곁에 남아있는 곶감죽을 가리켰다. '그랬었구나!' 선산에서 고약한 보살한테 밥 한 덩이를 시주받아 국에 말아 공양할 때 심한 비린내가 났었다.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먹었으나 그것이 바로 상한 만물게였던 것이다.

게 식중독에는 감이 약이었으니 곶감죽은 동산 스님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마을에서 노인이 곶감을 한 자루 싸주며 죽을 끓여먹으라고 내놓는 게 아닌가. 상원사에 도착한 동산 스님은 한암 스님과 함께 곶감죽을 끓이며 겨울 찬바람을 녹였다. 단, 게와 곶감은 상극이니 주의해야 한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곶감, 당근, 양상추, 피망, 꿀, 감식초, 볶은 소금, 잣가루

요리법 ① 곶감, 당근, 피망을 적당한 크기와 굵기로 채친다.
② 양상추는 먹기 좋게 찢어놓는다.
③ 꿀과 감식초, 소금을 잘 섞어 양념소스를 만들어둔다.
④ 위의 재료를 소스에 버무려 잣가루를 고명으로 뿌린다.

효능 ① 노인의 토혈, 각혈, 만성적인 설사, 출혈성 질환의 치료와 지혈에 좋다.
② 과일의 왕으로 단백질, 지방, 당분, 전분, 요오드, 칼슘, 비타민 C, 인이 풍부하며 고혈압에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⑪

定慧名義雖殊 要在當人 信心不退
정혜명의수수 요재당인 신심불퇴
剋己成辦耳 智度論云 若求世間近事
극기성판이 지도론운 약구세간근사
不能專精 事業不成 況學無上普提
불능전정 사업불성 황학무상보리
不用禪定 偈云 禪定金剛鎧
불용선정 게운 선정금강개
能遮煩惱 禪爲守智藏 功德之福田
능차번뇌 선위수지장 공덕지복전
罥塵蔽天日 大雨能淹之 覺觀風散心
효진폐천일 대우능엄지 각관풍산지
禪定能滅之 大集經云 與禪相應者
선정능멸지 대집경운 여선상응자
是我眞子 偈云 閑靜無爲佛境界
시아진자 게운 한정무위불경계
於彼能得
어피능득
淨普提 若有毁謗住禪者
정보리 약유훼방주선자
是名毁謗諸如來 正法念經云
시명훼방제여래 정법염경운
救四天下人命 不如一食頃 端心正意
구사천하인명 불여일식경 단심정의

고 뜻을 바르게 가지는 것만 못하다.' 했고, 또 〈기신론〉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처의 종자를 이어가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반드시 성불하리라는 예언을 내릴 것이다.

假使有人
가사유인
能化三千大天世界滿中衆生
능화삼천대천세계만중중생
令行十善 不如有人 於一食頃
영행십선 불여유인 어일식경
正思此法 過前功德 不可爲喩
정사차법 과전공덕 불가위유
是知依此修行 諸善功德 不可勝言
시지의차수행 제선공덕 불가승언
若不安禪靜慮 業識茫茫 無本可據
약불안선정려 업식망망 무본가거
臨命終時 風化逼迫 四大離散
임명종시 풍화핍박 사대이산
心狂熱悶 顚倒亂見 上無衡天之計
심광열민 전도난견 상무충천지계

선정은 능히 번뇌의 화살 막으니
지혜 지키는 창고요 공덕의 복밭

起信論云 若人聞是法已 不生怯弱
기신론운 약인문시법이 불생겁약
當知是人 定紹佛種
당지시인 정소불종
必爲諸佛之所授記
필위제불지소수기

下無入地之謀 惶惶恐怖 失所依憑
하무입지지모 장황공포 실소의빙
形骸蘸索 猶如蟬蛻
형해소색 유여선세
迷途綿邈 孤魂獨逝
미도면막 고혼독거

선정과 지혜의 이름은 다르나 요는 본인의 신심이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데 있다. 〈지도론〉에 '세상의 하찮은 일도 전념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룰 수 없는데 하물며 위없는 도를 배우면서 선정과 지혜에 힘쓰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고 그 게송에 「선정은 금강의 갑옷이라 능히 번뇌의 화살을 막고, 선정은 지혜를 지키는 창고라서 온갖 공덕의 복밭이로다. 분주한 티끌이 하늘 해를 덮으면 큰비가 그것을 씻어주고, 망상의 바람이 마음을 흔뜨리면 선정이 그것을 없애준다」하였고, 〈대집경〉에는 '선정에 든 사람이 나의 참된 아들이다' 하고 그 게송에 「한적하고 고요한 무위(無爲)의 부처 경계여, 거기에서 깨끗한 지혜를 얻는다. 만일 선정에 머무는 이를 비방하면 여래를 비방함이다」했고, 〈정법염경〉에는 '온 세계의 인명을 구제해도 잠시 마음을 단정히 하

가령 어떤 이가 온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여 열 가지 선행을 하게 해도 잠깐 이 법을 올바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못하며, 이는 앞에 말한 사람의 공덕보다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였으니 이로써 선정에 의해 수행하면 선(善)의 공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선수행을 잘하지 못하면 업식이 아득하여 의지할 근본이 없다. 임종시에는 병고에 시달리고 육신이 무너질 때는 마음은 미친 듯이 극도의 괴로움에 휩싸이고 소견은 뒤바뀌고 어지러워 하늘에 오를 꾀도 없고 땅에 들어갈 방도도 없다. 그리하여 당황하고 두려움에 질려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 형색은 매미 껍질처럼 쓸쓸해지고, 아득하고 망망한 길을 외로운 혼이 홀로 갈 수밖에 없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철웅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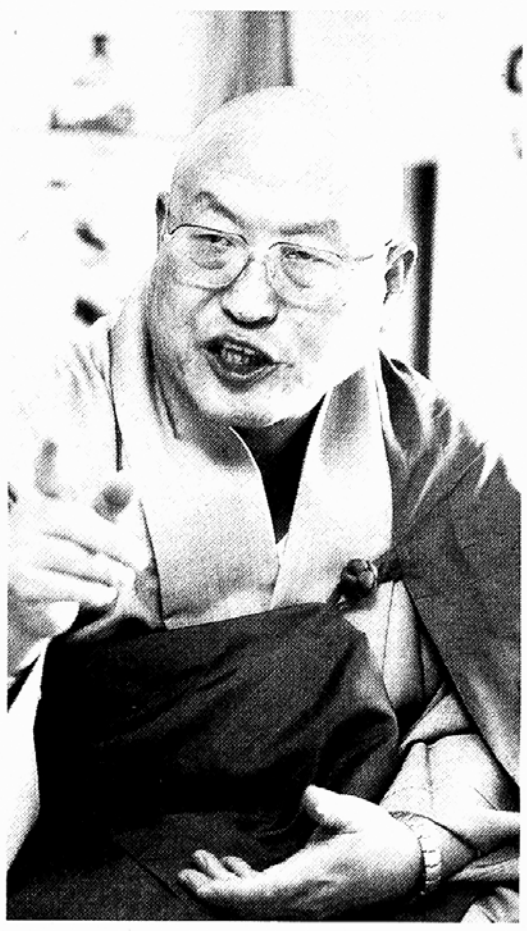
성전암 주석

앎과 함의 일체화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마저도 철학적 이해에 머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理)와 사(事), 선(禪)과 교(敎),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사(事)는 이(理)를 전제하지 않고 '이' 또한 '사'를 먼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부처는 점점 더 저 높은 곳으로 올라만 가고.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핵심 교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긴다. 특히 불교는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는 번뜩이는 직관으로 우주와 삶의 본질을 통찰했다. 도(道)가 일상을 떠나 있지 않음을 일깨움으로써 인간의 삶을 한껏 고양시킨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행이자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일까? 철웅 스님께 여쭈어 보았다.

'내가 부처' 스스로 깨달아야죠



· 1933년 경남 양산 生
· 58년 동화사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69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69~72년 통도사 극락암 · 동화사 금당에서 수선
· 72년부터 현재까지 28년 동안 팔공산 성전암에 주석

—먼저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하는 해묵은 질문을 말머리로 삼아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불교라는 종교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한 철학적 입장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불교를 철학화· 등치시키는 것은 종교의 생명이라 할 실천력을 거세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할 때, '종(宗)' 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종'은 뿌립니다. 뿌리를 안다는 것은 우주와 사물의 실상, 즉 본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것에서 철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철리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예요. 그러나 이성과 오관으로 따지는 철학은 인간의 이율배반 의식 위에 서 있어요. 하지만 뿌리를 찾는 일, 다시 말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로서의 종교는 다른 차원이예요.

본질 자체를 이치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철학이라면, 불교는 그것을 체득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 자체를 의인화하면 곧 부처인 것이지요. 따라서 불교란 부처를 찾는 종교이고, 부처를 찾는 일이란 자신의 마음을 아는 일인데, 문제는 이 마음 속에 든 이율배반 의식, 이게 병이예요.

그런데 이 이율배반 의식을 싹 비워버리면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실상을 딱 깨치는 거지요. 그럼 깨쳤다는 것은 뭐냐? '도(道)'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실상 즉 존재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우주와 사물의 본질은 바로 '불성'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마음 즉 '내 마음의 부처' 혹은 도(道)가 그것이지요.

—결국 불성의 현현이란,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마음씀이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성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일체가 유심조(一切有心造)라 했어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 내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

우주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부처'라는 자각이지요. 그럼 인생관도 바뀝니다. 마음의 그림자가 하늘의 기운으로 바뀌는 거지요. 자연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게 도예요.

그 다음, 부정적인 사고란 뭐냐.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는 등의 분별심이예요. 이걸 서양 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마음 속에는 선 · 악이라는 두 가지의 이율배반 의식이 딱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고 눈만 뜨면 밉다 곱다, 옳다 그르다를 시비하게 되는 겁니다.

시비 가운데 일으키는 감정이 뭐예요. 칠정입니다. 모양도 냄새도 없는 이 마음이, 격하게 노하고 분별없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장이 상하게 되지요.

본으로 삼아야 할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 덕 · 체가 그것입니다. 지혜와 몸과 용기를 단련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건 서양식 도덕률이나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주의니 뭐니 하면서 까불 일이 아니지요. 유물론적 사고라는 것도 인간의 의식에 기초한 이원론적 철학의 결과 아니예요?

거듭 강조하건대, 긍정적인 사고란 '내가 바로 부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하대지 초목총림이 부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부처가 부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두물물 화화초초가 다 부처인 것이지요. 전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걸 자각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리 되면 지혜가 용틀임하면서, 된다 안된다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대긍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또 분별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율배반 의식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없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사고에서부터 나와 남을 갈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독이 생겨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데, 이것도 옳은 말은 아니예요. 원수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란 없다!' 이거예요. 이 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원수와 은인이 있었는데, 오늘 턱 본래 마음을 보고 나니까 전부가 내몸이예요. 선 · 악이라는 이율배반 의식이 싹 사라진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처의 마음과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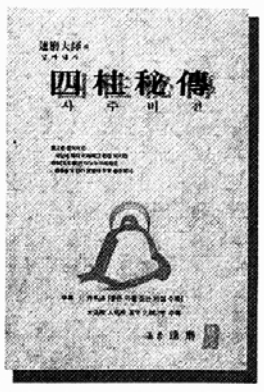
사람 인(人) 자에 벌써 선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원론이예요. 하지만 불교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예요. 섣부르게 불교가 휴머니즘이다 하면서 어쩌구저쩌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친 소립니다. 지금 지구의 몰골을 보세요. 인간주의 합리주의 운운 하면서 다 뒤집어 놨잖아요.

본교에서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신이고 부처예요.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그러한 일원론적 세계관에 투철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처세론 혹은 구제원리로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금강경〉의 '무득무설분(無得無說

達磨大師의 四柱秘傳 사주비전



정가 : 35,000 원
著者 : 達磨

종교든 문학이든
사상에 따라 이해되고 편중 되지만
역학(天文學)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됨이 없어 만물에 두루 평등하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天地의 공간 속에 피어난 生命의 불꽃이리라
불꽃은 나무를 만나면 활활 잘 탈수도 있고
火氣(불기운)가 강하면
金(쇠)도 녹이고 반면 물을 만나면 꺼질 것이리라.
이러한 生必연법을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만나 시대의 영웅이 되고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만나 권좌에 오르고 朴正熙가 金鍾泌, 朴種圭를 만나 대통령이 되어 지는 生必연법은 사주비전에서 명쾌하게 찾을 수 있다.
인연과 사주, 인생에 있어서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인연은 이름에 있고 세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고 한다. 불교의 인연법은 워낙 현묘한 것이라서 인간의 흥망은 물론 한 국가의 성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역(易)이란 바로 그러한 인연법을 다스리는 미래학(天文學)이다. 사주비전은 시간과 운명, 음양오행을 포함한 우주의 기운, 인간의 인연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작명법에 이르기 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펴놓은 책이다.

목차소개
1. 천지창조 2. 역의시원 3. 시간과 운명
4. 우주의 기운 5. 사주 분석과 해석 6. 인연법 7. 작명비법

◈ 부 록 : 作名法 [좋은 이름 짓는 비법 수록]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 본 책의 판매대금은 달마사 절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 주문처 : 부산, 영호남 (051-328-5551 · 312-4804 · 506-4804)
송금처 : 부산 097-034764-01-014 예금주 달마사 중소기업은행
▶ 주문처 : 서울 경기 중부 지방은 (02-999-5551 999-4804)
송금처 : 서울 012-027395-01-017 예금주 달마사 중소기업은행
대표전화 051-301-4949
011-301-4949
F A X 051-315-4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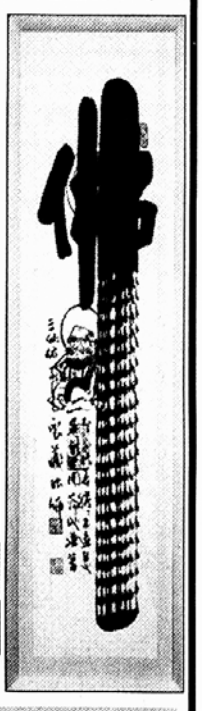
침술 무료 치료 안내
▮50견(견비통, 어깨통증)
▮경추 디스크(목 관절염)
▮요통 허리디스크
▮좌골 신경통
▮무릅 관절염
▮만성 두통
▮위장병(위염, 위산과다, 위궤양)
▮두통
▮아토피성 피부병
▮불임증
▮협심증
영재 한의원 02-766-5510
종로6가 백제약국에서 동대문쪽으로 가다가 첫번째 골목으로 들어옴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원주 덕화산 운장사 달마선원



◇팔공산의 품에 안긴 성전암에서 28년째 수선과 함께 대중을 일깨우시는 철웅스님.

"기도는 내안의 부처 드러내는 일"

"긍정적 생각에서 성취 나오는 법"

分)'에 이르기를, "일체현성 개이무위법 이유차별(一切賢聖 皆以無爲法而有差別)"이라 했어요. 뜻으로 풀면, "모든 현인과 성인은 무위법으로써 여러 근기의 중생에 응한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성현의 처세입니다. 무위법으로 처세(處世)하는 겁니다. 무심으로 하는 거지요. 무심이란 뭐냐,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묘용(妙用)'인 것이지요.

이 도리를 생활에서 응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이 아버지라고 칩시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저질렀어요.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하게 벌을 주면 뛰쳐나갈 것 같고, 그냥두자니 사람 노릇을 못할 것 같고….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죽마고우가 찾아왔습니다. 대뜸 와서는 돈 10억을 빌려 달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백만장자예요. 하지만 선뜻 응할 수가 없어요. 작은 돈도 아닌데 주면 떼일 것 같고 안 주자니 원수가 될 것 같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야 말로 진퇴양난이예요.

이게 세상살이예요. 해야 옳으냐 말아야 옳으냐, 죽어야 옳으냐 살아야 옳으냐, 죽을 때까지 이런 갈등 속에서 사는 겁니다. 왜냐, 이율배반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중생의 분별심이 만든 것이 중생계인데,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는 아무리 정치를 잘 하고 좋은 약을 만들어도 분란과 병은 끊이질 않아요.

그럼 성현의 마음 씀, 즉 무심의 묘용이란 어떤 것이냐? 생각을 비워 나가는 겁니다. 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맹렬히 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단계에 가면 선악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부처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때,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빌려 주라면 빌려 주고, 꾸짖으라면 꾸짖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불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묘용이지요. 부처의 성품에서는 칠정도 구경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무위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은 마를 날이 없어요. 병이 있다고 믿는데 병이 없어질 턱이 있습니까. 일체가 유심조인데, 병도 죄도 본래 없어요. 이 도리를 생활에 응용하라 이겁니다. 딴 거 아니예요, 마음 바꾸기가 묘용이예요.

도를 모르고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한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 '기도'도 그러한 마음씀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까?

▲갈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참다운 기도란,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생명은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늘상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단 말이예요. 이 얼마나 딱한 노릇이예요. 그렇잖아도 모자란 몸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는데 이루어질 리가 있나요.

필요라는 것도 성취라는 것도 다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내 마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위대한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죽은 말이 많이 나오면 마음도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는데 잘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나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면 이 마음에 자석 같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 있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선언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것을 모르고 붙들고 매달리는 것은 그림자를 실체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포함하여 흔히 사람들은 깨달음의 세계를 신비화 내지 절대화시켜 놓고는,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차원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물의 실상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면 그런 소리 못해요. 바로 못보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 속에 막대기를 꽂고 보세요. 밖에서 볼 때는 굽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막대기가 굽었나요? 실제로는 안 굽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이 부처데 그걸 모르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본다는 것은 모든 편견을 놓고 본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가 부처예요.

어떻게 그런가? 다음 소동파의 오도송이 그걸 말합니다. 섣부른 알음알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원숭이 재주와 다름없음을 환히 보여 주는 그런 게송이지요.

> 나와 남 가르면
>
> 마음에 독이 생겨요
>
> 편견 놓고 대하면
>
> 둘 아닌 하나지요

저 흐르는 물 소리는 부처님의 다함없는 법문이요
산빛은 그대로 부처의 몸이로다.
어젯밤 들은 (여래의) 팔만사천 법문을
다른 날 그대에게 어찌 전할까.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淸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擧似人

소동파(蘇東坡, 1036~1101)가 누굽니까,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문장으로 풍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66세에 불둔에 귀의하여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게기가 이렇습니다.

천하의 소동파가 상총(東林常總, 1025~1091) 스님을 찾아가 법을 청합니다. 그러자 상총 스님은, "왜 무정 설법은 듣지 않고 유정 설법만 들으려 하느냐, 저 나무와 돌도 설법을 하거늘" 하고 말했단 말이예요. 여기에 소동파가 탁 걸렸어요. 어떻게 나무와 돌이 설법을 하는가? 이걸 화두 삼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선가에서는 닭이 알을 품을 때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여하간 그 절절한 심정은, 과부가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대롭니다. 알고 모르고도 다 떨어진 상태가 된 거지요. 오직 돌과 나무가 어떻게 설법을 하는가 하는 한 생각 뿐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곡을 지나다 폭포소리를 듣는 순간, 탁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읊은 깨달음의 노래가 바로 조금 전에 일러 준 오도송입니다.

소동파의 노래에서도 봤듯이, 사물을 바로 보면 부처를 보는 겁니다. 실상을 보는 순간부터는 부처가 부처를 보는 것이지요.

—귀한 말씀 소중히 새겨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될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의식이 건전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예요. 오직 마음뿐이잖아요.

공부하세요. 절에만 다닌다고 불자 아닙니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예요. 글자의 노예가 되는 게 문제지.

이 몸 그대로 법당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노래하세요.

물러나와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스치는 나무와 바위들이, 올라올 때 그대로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대담=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인스님

겨울 산에는 어둠이 일찍 온다. 짙은 산그늘 속에서 어둠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면 저만치 마지막 남은 햇살이 산등성이 한 모퉁이에서 끈질기게 버텨 보지만 이내 힘없이 스러지고 만다.

그렇게 모든 삼라만상이 어둠 속에 묻히고 나면 겨울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밤이 길면 그만큼 꿈도 많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날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듣고 싶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지만 대중생활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삼경 종소리가 울린 얼마 후 대중스님들이 곤히 잠들어 숨소리가 잦아들 즈음, 소리 없이 궁현당문을 열고 나섰다. 그저 생각 많은 날 밤에 어쩌다 한번씩 찾는 곳이지만 잔설이 옅게 깔린 장경각 뒤편 수미탑에서 해인사의 야경을 내려다보면 이상하게도 잡념이 씻은 듯이 사라지곤 했었다.

그날 밤, 법인스님을 그곳에서 만났다. 아마 법인스님도 나처럼 생각 많은 날 이곳을 찾아왔던가 보다. 그때까지 엄격한 강원 대중생활에 익숙치 못했던 나와, 상반이었던 법인스님 간에 개인적인 만남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강원생활이란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마음의

염불 잘하고 수행 잘하고

힘든일 마다않고 묵묵히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처음 해 보는 승가생활의 서투름, 도반스님들과의 갈등, 수행생활에서 오는 번민 등을 놓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격의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기실 그때 나는 강원생활의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강원을 잠시 쉴까도 깊이 생각해 보던 때였다. 그날 법인스님은 상반스님답게 모든 것을 이해하여 주었고 자신도 그런 문제로 많이 갈등해온 적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조언하여 주었다. 그날의 조언이 강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결국은 졸업까지 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없어도 가끔씩 달 밝은 밤이면 수미탑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설익은 생각이었지만 인생과 철학을 논했고 종교와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겨울바람의 매서움을 녹여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전승련 학인 대회가 해인사에서 열렸다. 많은 대중스님들이 준비관계로 고생을 했지만 특히 법인스님이 유독 고생이 많은 소임을 맡았었지만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씨익 웃음을 지으며 대중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었다.

어른스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전야제는 전국의 승가학인들이 모두 모였다는 반가움에 약간은 들떠 있었다. 웃음과 해학,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기자랑에 느닷없이 법인스님이 나섰다. 그리고는 대중가요인 '수덕사의 여승'을 멋드러지게 불러 제꼈다. "아니 웬 스님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

모두의 시선이 모아졌고 노래를 마친 법인스님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지없이 대중스님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단연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다. 평소에 염불솜씨가 좋아 노래도 잘 하겠거니 생각은 했었지만 명가수 뺨치는 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에 강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강주스님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며 해인사를 떠난 몇 년 후 지리산 서암으로 법인스님을 찾아갔었다.

도량에서 법인스님을 찾을 수 없어 한참을 헤맨 후에 간신히 허름한 작업복과 온몸에 돌가루를 허옇게 뒤집어쓴 채 눈과 입술만 보이는 법인스님을 찾을 수 있었다.

인부들과 같이 섞여있어 빡빡 깎은 머리가



아니면 쉽게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리산 서암은 그의 은사스님께서 큰 원력을 세워 십년 불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틈틈이 화엄경 금니사경을 하며 수행하고 계시는 도량이다. 이곳에서 법인스님은 강원졸업 후 여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뚝심과 근력이 대단한 스님이다. 종단이나 다른 곳에서 소임자리를 권해도 자신은 산승일 뿐이며 산승은 산을 떠나는 게 아니라며 굳이 은사스님과 함께 그 힘든 도량불사를 고집하며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느껴졌었다.

노래 잘 부르고 염불 잘 하는 스님, 인물 좋고 성격 당차며, 의리 있고 수행 잘하고 돌쇠처럼 꿋꿋이 자리지킴이 잘하니 만약에 승가에 팔방미인이 있다면 이런 스님이 아니겠는가 싶다.

겨울철에는 불사가 조금은 한가할 테니 올해가 가기 전 내복이나 한벌 사서 작설차 한 잔 얻어 마시러 가야겠다. 그리고 수미탑 아래서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워 듣고 둥근 보름달 같이 꽉 찬 성품을 배워와야 겠다.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현대결혼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열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5일 강남 오피스텔에서 시흥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멀고 활동범위 시간 관계로 옮기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입 방 안 내

금강선원 선문장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출소가 자유롭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혜거스님의 법문과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수련원 禪門莊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전화 033) 433-5845~6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튠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 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삼각산 조계종 보림사 보림선원에서는 七日간 철야 용맹정진을 아래와 같이 하옵는바 보림三關(不去不來處 生者何物 滅者何物 泰山刮目來 綠水掩耳去, 心外無法處 迷者何勿 悟者何物 古路草自靑 正邪俱不用, 人我皆空處 說者何物 廳者何物 若論今日事 忽忘舊時人)을 主題로 法門을 하며 二十一世紀 앞소식인 人天의 眼目을 열어가는 活句 大乘禪을 薦揚 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禪友는 來參하여 서로 탁마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00년 12월 31일(일) 오후 8시부터 2001년 1월 6일(토) 오전 7시까지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회 비 : 일반 7만원 (1일1만원 기준)
▲연락처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교 재 : 보림삼관, 금강경, 82-85년도 철야정진 테이프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 1, 3, 5, 5-1, 16, 710번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앞 하차 (돈암역에서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보림회 회장 이수열 합장

음악으로 그림으로 이웃돕기

법현 스님 '더불어 사는…' 성각 스님 선서화전 등 자비행사 잇달아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또 다시 닥쳐온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대한 불안감은 마음마저 움츠러들게 한다. 하지만 거리엔 벌써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고 전국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아픔을 함께 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보살행'임을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돼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불심은, 선율과 화폭에 온정을 담아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녹이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음악만큼 좋은 수단도 드물 것이다. 설명 없이도,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합의 다리를 놓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부암아트홀에서는 법현스님의 '더불어 사는 음악회'가 열린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법현 스님의 음악회는 첼로 독주, 바이올린, 성악, 피아노 삼중주 등 클래식 선율이 주를 이루고 대중적 노래가 곁들여진다. 음악회와 함께 6층 전시실에서는 16일까지 수석 및 서예·그림 전시도 연다.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은 장애인이나 교도소, 양로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의료기구나 겨울옷을 전하는 데 쓸 예정이다.

15일 진주 문예회관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연다. 〈풍경〉의 저자 원성 스님과 함께 준비중인 이번 음악회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공연됐던 '그림으로 못다 한 동승의 노래-풍경' 공연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진주시립교향악단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장뿐 아니다. 선서화(禪書畵)로 유명한 성각(경남 남해 망운암 주지) 스님은 울산지역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선서화 특별 초대전을 16일까지 현대백화점 울산점 갤러리에서 연다. 성각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서울·부산·경남과 중국 등 국내·외에서 20여 차례 전시회를 열었고, 1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써왔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 역시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울산대학병원 어린이병동에 맡길 생각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달마, 관음도, 산, 늘 좋은 날 등 독특한 화법과 운필의 선서화 50여 점을 내놨다.

출가 전 만화가로 활동한 적이 있는 성각 스님은 "내 그림이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중생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음악회가 열려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녹이고 있다. 사진은 올해로 4회째 '더불어 사는 음악회'를 여는 법현 스님.

사이버 문화

설송스님 그림모음

달마도 보며 느끼는 생각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설송 스님의 홈페이지(http://www.seolsong.net)에서는 달마대사의 생애를 표현한 달마도가 네티즌들을 맞이한다.

달마도란 달마의 전기 중에서 특정한 사건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이에 대해 설송 스님은, 달마도에는 달마절노도강도(達磨折蘆渡江圖), 면벽달마도(面壁達磨圖), 반신(半身)의 달마도(達磨圖), 송하달마도(松下達磨圖), 척리달마도(隻履達磨圖)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달마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커다란 눈과 부리부리한 눈빛이다. 그림 상의 이런 표현은 경전이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자극하고 환기시키는 수행법의 일종으로 이해되어 왔다. 벽관(壁觀)을 가르친 달마대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또 깨달은 자로서의 달마의 성격과 소림사 무술을 창시했다는 달마대사의 면모를 동시에 표현한 특징적인 도상이기도 하다.

설송 스님은 달마도를 통해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을 본으로 삼는 선(禪)을 해설한다. 스님은 달마도를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초탈한 그 무엇을 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경주 남산 문화재 '도록 정리'

도판편 발간…본문편 곧 나와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됨으로써 인류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 된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알뜰히 추스린 〈경주남산〉 종합도록이 발간됐다. 도판편과 본문편으로 나올 종합도록 가운데 도판편이 먼저 나왔다. 모두 816장에 달하는 컬러사진과 탁본실측자료를 수록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가 450쪽짜리 특대판으로 펴낸 도록은 연구소 직원들이 2년여 동안 남산을 수백 차례 오르내리면서 유적들을 직접 조사하고 촬영해 펴낸 것이다.

이번 도록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재 외에도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보리사 석불좌상의 비천상과 남산신성비 제10비, 삼릉계곡에서 발견한 석조불상과 석탑부재까지 포함돼 있다. 남산에서 옮겨져 박물관 등에 전시돼 있는 중요 문화재까지 빠짐없이 실었다.

특히 불상의 경우 정면과 측면, 뒷면 등 다양한 세부사진을 넣었고 올해 연구소에서 실시한 7기의 석탑 발굴조사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복원도를 함께 실어 전문가들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발간될 본문편에는 남산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서로 조선총독부가 펴낸 〈경주남산의 불적〉이 번역돼 실리고 남산과 관련된 각종 문헌과 금석문 자료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렌즈에 비친 만다라 세상

영남불교대 사진연구회 '불교 건축과 이미지' 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사찰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주말마다 사찰을 순례하며 그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온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첫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영남불교대학 토비전시실에서 22일까지 열리는 만다라사진연구회(회장 강진석) 창립 전시회 '불교의 건축과 이미지' 전이다.

이번에 내놓은 작품들은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찍은 사진이 아니다. 1년여 동안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자녀노을이 지는 산사의 풍경이나 툇마루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는 스님의 모습 등 사찰에서 느낀 단상을 사진에 담아냈다.

회원 10명이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5점까지 출품했다.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사진작가 임석교(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출강)씨와 주지 우학 스님, 사진작가협회 구본활씩도 작품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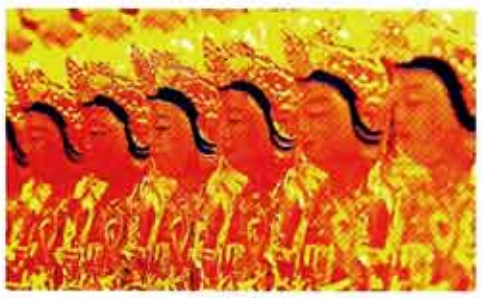
강진석 회장은 "각자 직장생활에 쫓기면서도 주말이면 전국의 절을 찾아 법회를 보고 기도를 올렸다"며 "비록 기술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은 아니지만, 절을 찾고 조금씩 배워가며 사진 찍는 일 자체가 신행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사진동아리가 아니라 신행단체로 봐 달라는 사진연구회는 올 1월 결성됐다. 개인적 취미나 관심으로 불교대학내 문화센터에서 사진반 강의를 수강한 불자들이 개인차원을 넘어 사진을 통해 봉사활동을 펼치자고 뜻을 모았다.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는다. 불교대학내 각종 행사나 법회시 사진 촬영은 연구회의 몫이다. 지난 9월에는 무의탁노인 100명에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기도 했다. (053)474-8228

권형진 기자



◇임석교 作



◇이영희 作

문화소식

광주 북구청 공예학교 연다

광주 북구청에 전통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공예문화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건국동 우치현장민원실에 들어설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탱화실, 도자기실, 가마실 등이 들어선다. 모집분야는 탱화, 도자기, 소목, 채상 등 4개 부문이고 내년 2월 5일까지 북구청 문화정보실에서 접수한다. 강의는 해당 분야의 지방무형문화재 기능 전수자들이 직접 맡고 초급반과 연구과정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062)510-1221

충북불교회관 개관 1돌 공연

충북불교문화회관은 6일 불교문화회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 '명인 초대 공연'을 가졌다.

달마도의 대가 범주 스님, 피아노계의 기인 임동창, 기춤의 명인 강만홍 교수, 대금의 명인 자연 스님, 한국 무용 이영희, 바리톤 박경민 교수 등 우리 시대의 기인과 명인, 예술인이 한 자리에 섰다. 범주 스님의 달마선서화전은 3층 갤러리에서 16일까지 계속된다.

통일서예대전 20일까지 전시

한국종교인서예인협회(회장 홍근수)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최창규)는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한글과 문인화 부문은 15일까지, 한문과 전각부문은 15일부터 20일까지 전시된다. 이에 앞서 12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한북강남(漢北江南)'을 출품한 이순단씨가 통일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02)730-4846

백상 출판문화상 불서 3권만 응모

11월 30일 끝난 제41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접수마감 결과 불교관련 서적은 〈한용운 평전〉(고은, 고려원·문학부문) 〈순교자 보우선사〉(박영기, 한길사·철학종교부문) 〈칸트와 불교〉(김진, 철학과현실사·*) 등 3권만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법정 옮김, 나무심는사람) 등 7권을 응모한 작년에 비해 4권이 준 것이다. 한편 저작상과 출판상으로 나눠 심사하는 올해는 모두 156개 출판사에서 777종 1,758권의 도서를 출품했다.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9114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秉也(연년 불로 선경악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은목원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불꺼짐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주름등



(빨강) (연두) (노랑)

공단등



(빨강) (노랑) (오색)

팔모조립등



팔모조립등 보관형태(팔모주름등)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보시가 주는 생활의 여유와 지혜

10루피로 산 행복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티베트 불교에 대한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올해 초부터 출간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를 다룬 책들만도 수십여 권에 이를 정도다. 최근 출간된 〈10루피로 산 행복〉(바다)도 그런 책이다.

기존의 티베트 관련 책들이 달라이 라마의 설법이나 강연, 일대기 위주였다면 이 책은, 티베트인들의 삶과 풍물, 그리고 자연을 우리의 시각에서 쓴 기행문이다. 글쓴이는 여행사 진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선 씨. 그가 찾은 곳은 히말라야 산맥의 서남쪽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로 여러 곰파(사원)를 찾아가는 여정이 이 책의 기둥이다.

돌가루 만다라 만드는 법을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된 글쓴이의 라다크 여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바람이 다니는 길' 편에서는 라다크 지역의 사원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풍물을, '슬픈 영혼의 호수' 편에서는 쿤룬산맥과 히말라야산맥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티베트 고원 속의 삶을 경어체로 소개한다. 낯선 이방인을 집으로 초대해 극진하게 대접하는 라마승, 빈민가에서 고단한 생활을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티베트의 망명자 체링 등의 따뜻함이 행간에 가득하다. 값 7천8백원.

통념 뛰어넘은 재가불교 강론

이기영 전집 제25권 '유마경 강의'



불교학 현대화의 선구자 이기영(1922~1996) 박사의 〈유마경 강의 상·하〉(한국불교연구원)가 출간됐다. 이 박사가 지난 92부터 96년까지 56회에 걸쳐 한국불교연구원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불연 이기영 전집' 25권이다.

이기영 박사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경전 가운데 하나인 〈유마경(維摩經)〉은 반야사상에 입각해 재가불교의 사상을 설한 초기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화엄경〉, 〈법화경〉 등과 함께 불교의 기본적인 교과서로도 꼽힌다. 〈유마경〉은 인도 바이샬리에 살고 있다는 상상의 유마힐(維摩詰) 거사의 칭병(稱病)을 계기로 벌어지는 사건과 불교 사상에 대한 문답을 서술하고 있다. 명료한 문장과 풍부한 문학적 자유로움이 특징이다.

이기영 박사가 남긴 저술들은 관습적인 학문 틀과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는 역사적이거나 훈고학적인 주석에 얽매이지 않고 사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한다. 값 상권 1만3천원, 하권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인도서 체험한 삶과 불교

법륜스님 지음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화려하고 풍요로운 생활과 굶주리고 비참하게 죽어 가는 삶이 공존하는 나라, 인도. 그들에게 있어 삶과 죽음을 무엇일까."

법륜(좋은 벗들 이사장)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땅, 인도에 첫 발을 디디며 품은 화두이다. 그때부터 스님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10여 년 동안 부처님의 발자취가 서린 인도의 불교성지 구석구석을 찾아 다녔다. 그리고 그 해답의 한 자락을 책으로 풀어놓은 것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정토)다.

이 책은 법륜 스님이 부처의 땅, 인도를 순례하면서 느낀 체험과 동행자들에게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유적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적은 인도순례기이자 안내서다.

부처님의 성지를 찾는 본래의 목적은 허물어진 탑이나 건물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살아 있는 부처님의 고뇌와 체취를 생생하게 느끼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다운 성지순례가 된다. 법륜 스님의 성지순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상황과 그 당시 사람들의 고뇌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륜 스님은 보는 자가 아닌 부처님과 똑같이 실천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스님의 인도순례는 '고행'이라 할 정도로 힘겹게 진행되었다. 이를테면 '왜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아니라, 직접 부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체험해 보는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의 출가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캘커타라고 말한다.

석가모니 수행지 두루 답사
'인도순례 10년' 한권에 담아
구석구석 부처님 체취 물씬



"집을 떠났다는 단순한 의미로서의 출가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으면 안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발돋움. 그런 의미의 출가입니다. 캘커타의 숙소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그 앞에 죽어 가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 모습은 출가가 왜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느끼게 합니다."

이 책도 캘커타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최초 설법지 바라나시의 사르나트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간다. 이어 수자타의 공양터와 우루벨라 마을에서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던 모습을 그려보고,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라즈길을 거쳐 파트나와 바이샬리, 그리고 부처님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로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삶을 돌러본 스님은 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해 네팔 국경을 넘어 룸비니를 찾는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출가의 모습을 되새겨본다. 코살라국의 수도였던 쉬라바스티의 기원정사와 천상의 어머님과 마야부인께 설법을 하고 내려왔다는 상카시아를 마지막으로 순례를 마친다.

이와 함께 이 책은 성지에서 부처님이 설한 내용을 가려 뽑은 경전 구절과 성지의 실측도면, 그리고 인도의 사상과 역사를 수록하고 있어, 안방에서도 인도의 불교성지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법륜 스님은 "인도에서 생활하다 보면 경계마다 부딪쳐 짜증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때마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잘 살 필 수 있다면 수행의 여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깥 경계만 탓한다면 힘만 들고 후회되는 여행이 됩니다"고 말한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요가수트라(정태혁 지음, 동문선)= 인도의 육파철학 가운데 하나인 요가학파의 사상과 수행법을 일목요연하게 적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요가학파의 경전인 〈요가수트라(요가경)〉를 우리말로 옮겨 해설하고 있다. 이어 '요가란 무엇인가'를 비롯 요가 역사, 그리고 그 수행법을 알기쉽게 소개한다. 이 책은 글쓴이가 그동안 내놓은 〈요가의 원리와 수행법〉(법문사), 〈요가의 복음〉(까치), 〈요가의 신비〉(백산)의 결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부분만 가려 뽑아 새롭게 엮은 것이다. 값 1만5천원.



▲작은 붓다의 큰 이야기(무묘앙에오 지음, 박은혜·손성애 옮김, 모색)= 도서출판 모색의 에오 명상전집 8번째 권. 에오가 제자인 동소라는 한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만으로 구성된 책. 오직 한 명의 제자를 위해 '우주적 차원의 깨달음'이라는 문제를 설하면서 해탈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글쓴이의 독특한 예언이 곁들여져 있어 이채롭다. 값 1만원.



▲덜렁이 아나운서(이현정 지음, 우석)= 화가에서 불교방송 아나운서로 변신한 이현정 씨의 수필집. 그림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한 여대생이 결혼으로 인해 사랑하던 그림을 잃고 세상이 검은색뿐 이라는 허무감으로 살아가던 중, 불교방송 아나운서 모집 광고를 보고 도전, 아나운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이 책에는 우리가 하는 말이란 무엇이고, 어떤 힘이 있는지, 글쓴이가 직접 방송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말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 있다. 값 7천원.



▲우학 스님 신행상담(우학 스님 지음, 좋은인연)= 불자로서 행해야 할 바른길을 제시한 신행 지침서.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늘 궁금했을 법한 불교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 기도, 천도재, 수행, 불·보살, 경전, 불교용어 등 크게 8부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가벼운 상담부터 전문적인 상담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값 7천원



▲여유(정관스님 지음, 명상)= 대구 선재불교대학 학장으로 있는 정관 스님의 수필집. 오랜 세월 수행자로 살아온 스님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 엿보기'를 시도한다. 청소년·가정 문제에서 노사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전법의 길에서 부딪히는 세속의 관심거리에 대한 생각을 소박하고 정갈한 문체에 담았다. 지난 91년부터 충청일보 '무심천' 코너에 연재됐던 글들을 새로 엮었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2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섭	컬처라인
3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4	아미타불 수행법	청 화	솔 과 학
5	산사에서 부치는 마음의 편지	명 정	좋 은 날
6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7	나의 아들 달라이 라마	주 민 황	한 언
8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9	빠빠지 면담록	데이비드 카먼	탐 구 사
10	법구경	지 현	민 족 사

도서 안내:(02)737-0695

라즈니쉬가 이웃에 전하는 가르침

'많은 일들이 그리고…'



인도의 성자 오쇼 라즈니쉬의 80년대 행적에 대한 소문들은 지금껏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라즈니쉬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신간 〈많은 일들이 그리고 아무 일도 1·2〉(황금꽃)는 바로 그 시기에 대한 '잃어버린 고리'가 되어 주는 책이다. 이 책은 라즈니쉬가 무고하게 미국 정부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추방된 후,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을 찾아 21개국 4만6천 마일에 걸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강의했던 내용들이다. 특히 이 책 속에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녹아 있어 읽는 이를 강력하게 빨아들인다.

이 강의들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사용한 말 그대로 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강의들이 주는 느낌은 색다르다. 이 강의에서 그는 지혜와 빛의 전이라는 관점을 소개하고 강조한다. 그는 인간 의식의 일곱 가지 층들에 대해 상세히 일러주고, 어떻게 제자가 그 층들을 만나고 탐구하고 드러낼 수 있는지를 말한다.

특히 이 책은 인류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상세하게 강의한 것으로 라즈니쉬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쉽게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값 각권 1만3천5백원.

김중근 기자

가까이서 본 미국인 수행자의 마음공부

세등스님 산문집 '그들은 마음을…'



세등 스님의 산문집 〈그들은 마음을 보고 있었다〉(문학동네)의 책장 속에는 눈 푸른 불자들의 수행생활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미국불교를 읽는 창' 역할을 한다.

불교수도원과 선 센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불자들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진다. 글쓴이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공부하는 등 학승의 길을 걸고 있는 비구니 세등 스님. 스님은 불교여성학 연구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4년 간 미국 UC 버클리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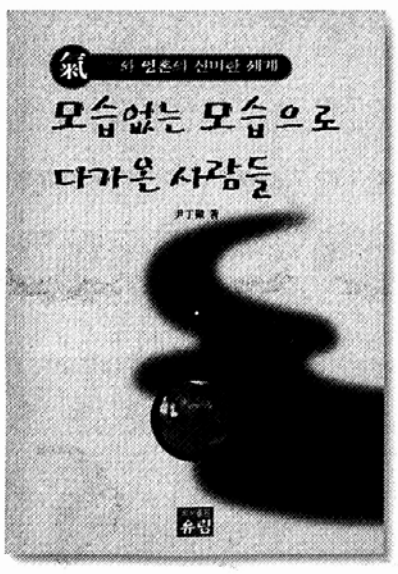
이 책은 그 때 만난 눈 푸른 불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월남전 참전용사, 화학자, 동성애자 등이 바로 그들.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미국에서 불자가 된 이들의 사연은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배꼽을 잡을 만큼 우습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 특유의 '부처님 사랑'이다.

그래도 이 산문집이 우리의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불교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시각이다. 그것은 주로 불교 여성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독립된 주체로서의 여성적 삶을 불교의 근본 사상으로 옹호한다. 이에 대한 스님의 글은 학자이기보다는 여성운동가라고 할 정도로 날카롭다. 그렇다고 '아니다'는 식의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이방의 불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찾고 만났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면 '지금 이곳'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구실도 해 줄 책이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가천도 능력 전수기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요술이 나오는 책입니다.

元極學 진여(眞如) 氣 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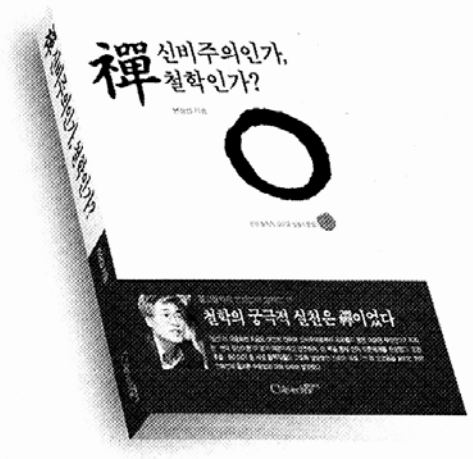
진여氣 수련원 원장 윤정주著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Cultureline 철학라인

수행의 체험에서 나온 책이라야 매력 있는 법
"잘 썼습디다.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통도사 한주 호명 스님



변상섭 지음 / 신국판 336면 / 값 12,000원

참선에 대한 모든 오해와 혼란은
'선의 정신이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화선의 교학적 근거(제1편 선의 정신이론)와 수행이론(제2편 수행론)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시의적절한 대응 -조선일보

서양철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가한 에는 드물었다. -불교신문

불교의 팔만 대장경을 근거로 '선'에 대한 정신이론을 확립 -동아일보

며칠 전에 변상섭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잘 썼습디다.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현대불교 [큰스님과의 대화] 중에서

서양철학이 개념의 이론화 작업에 그친 데 비해 선은 수행과 결부시켜 실천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한발짝 진전된 이론 -경향신문

'선'이 철학의 궁극적 실천이라고 강조 -대한매일

팔만대장경으로 세운 선의 정신이론

禪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41 미진빌딩 4층 Tel (02)336-2260(대표) : Fax (02)336-2151 http://www.cultureline.co.kr

"왕오천축국전 폭넓게 연구"

정수일 박사, 불문硏 강연회서 주장

"90년간 국내 연구서 1권 논문 8편뿐"



신라, 나아가 아시아 불교 문화의 원형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혜초 스님과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 주최 특별강연회에서 실크로드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정수일(사진·前 단국대 사학과 교수) 박사는 '고대 실크로드 불교문화의 교류에 대한 접근-혜초를 통해 본 서역불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 박사는 우선 혜초 스님이 인도 불교의 일시적 부흥기인 8세기 전반기에 인도를 순례하고, 다시 불교 전파 루투를 따라 중국에 도착해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는 데 주목했다.

불교의 전파는 그 과정에서 교리뿐 아니라 의식, 학문, 건축, 공예술 등과 같은 불교의 문화 역시 전하기 마련인데, 〈왕오천축국전〉에는 △불교 전파 루트 △불교의 대승화 추세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왕오천축국전〉은 19세기 말까지도 대장경에 수록된 〈일체경음의〉에 서명과 일부 내용만이 소개된 정도여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1908년 중국 돈황의 천불동에서 두루마리 사본(寫本) 형태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 박사에 따르면 "이 책은 8세기를 전후해 인도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하지만, 지금까지 스님의 생애며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먼저 〈왕오천축국전〉의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왕오천축국전〉 돈황본 사본.

1908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에서 펴낸 〈왕오천축국전〉의 원문 교감과 주석 관련 연구서는 1권. 일본이나 중국에서 6~7권이 나온 것과 비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같은 기간 8편의 논문만이 쓰여진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 박사에 따르면 혜초 스님의 이러한 활동은 신라불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 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불국사에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이 나란히 봉안되고, 석불사의 감실에 10구의 보살상이 〈불정존승다라니염송의궤법〉에 근거한 팔대보살이라는 점에서, 신라 불교 속에 적잖게 밀교의 색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

정수일 박사는 결론에서 "혜초 스님의 사상이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연구의 폭을 신라의 밀교 연구로 확대해, 혜초 스님이 정통 밀교를 계승한 사상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단신

선학회 16일 발표회

한국선학회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원철(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스님의 '〈선림승보전〉에 대하여', 조준호 (동국대 강사) 박사의 '근본불교의 지관에 대해'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에는 임성택(동국대 강사), 황미향(동국대 강사) 박사 등이 나선다. (02)2260-3135

한국사연구 지원 확정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년도 한국사연구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접수된 대상자 가운데 공동연구 5건(20명)과 단독 연구 26건(26명)을 연구지원 대상자로 결정했다. 불교 관련 연구지원 대상자는 '백제의 불교사상 연구'(조경철), '조선후기 불교계의 동향에 관한 연구'(김순석), '20세기 전반기 종교계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수용과 조율에 대한 연구'(윤선자) 등 3명이 선정됐다.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㉛ 남전의 해인사·선석사 편액



◇합천 해인사 '구광루' 편액.



◇성주 선석사 '정법료' 편액.

남전 한규(南泉 光彪 · 1868~1936)는 합천 출생으로 1885년 18세 되던 해에 해인사를 참례하고 문득 발심하여, 신해(信海)를 은사로 득도하고, 완허(玩虛)의 법을 이었다. 이후 그는 청암사 혼원(混元), 동화사 회응(晦應) 등으로부터 교학을 배웠고, 범어사, 오대산 상원사, 해인사, 통도사 등에서 선리(禪理)를 참구하였으며, 1908년 해인사 제산(霽山)으로부터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또한 남전은 동래 포교소 포교사, 범어사 중앙포교당 포교사, 해인사 총섭, 직지사 조실 등을 지내며 포교와 수행에 진력하였고, 1922년에는 도봉(道峰), 석두(石頭), 성월(惺月) 등과 함께 선학원을 설립, 선풍 진작에 노력하였다.

남전운 어려서 12년 동안 인동(仁東) 서송재(徐松齋)의 문하에서 한학을 배웠고, 시문과 글씨 모두에 뛰어 났다고 한다. 남전의 글씨는 특별히 서법에 안주하지 않은 선필이면서도 승려의 글씨라기보다는 의연한 선비의 글씨를 떠올리게 한다. 합천 해인사 〈구광루〉, 성주 선석사 〈정법료〉 편액 등이 그의 대표적인 필적이며, 이외에 해인사 법보전 중앙 통로 좌우에 걸린 주련도 그의 글씨이다.

합천 해인사 〈구광루〉 편액은 세로 6개의 쪽판을 이어 붙이고 그 위에 글씨를 음양각으로 새긴,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것이다.

해인사 '구광루'

6개 쪽판 이어 음양각

선석사 '정법료'

소박하고 단아한 서체

이 편액은 도서나 관지는 없으나 남전의 강건(剛健)한 필선의 계행(楷行)으로, 1908년 해인사 총섭이 되어 절을 정비하면서 써서 건 것이 아닌가 싶다. 편액의 글씨는 조심스럽게 쓴 여타의 대자필(大字筆)과 달리, 일필로 휘쇄(揮灑)한 듯 경쾌하며, 호방하다.

성주 선석사 요사에 걸려 있는 〈정법료〉 편액은 변죽 없이 액판의 사방을 둥글게 귀를 죽인 민판 형식을 취하고 있다. 편액의 형태나 그 단청은 편액이 걸릴 건물의 격에 맞추어 하는 것이 상례로, 이 편액은 한적한 승방을 연상케하는 소박한 것이다. 글씨를 쓴 인연은 알 수 없으나, 액판 좌측에 조그맣게 "남전(南泉)"이라는 관지가 있으며, 청경(淸勁)한 선질과 단아한 서미를 지닌 글씨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디지털 대장경 불교학 연구·교육 무제한적 영향력"

비튼 박사 변화 예견

디지털 대장경은 불교학 연구방법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에 대해 불교학자로서 10여 년 간 경전 전산화에 몸담아온 외국인 학자가 "디지털 대장경은 불교학 연구와 교육 등에 무제한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해 주목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7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불교학 방법론의 변화 전망'을 발표한 크리스찬 비튼(중화대장경연구소·대만) 박사에 따르면, 디지털 대장경은 '발견', '주석 달기', '비교', '평가', '표본 추출', '예시', '번역' 등 연구 절차의 진행 속도와 정확도를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판본을 비교하며 그 속의 인용문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다른 경전을 다시 읽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문서 작성의 국제적인 약속인 마크-업(Mark-Up) 기능으로 다져진 디지털 대장경은 기존의 텍스트(경전 내용)를 체계화해, 연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비튼 박사는 "여러 학자들이 한 주제를 동시에 연구·비교할 수 있는 '다중 연구 체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자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토론하고 서로의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튼 박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전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와 번역서들의 출판이 늘어나고, 그 결과 원전에 밝지 않은 서구의 철학자들도 불교 철학의 논의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소재한 경복사지.

완주 경복사지 '지방 기념물'

열반종의 본산지로서 삼국시대의 대표적 사찰인 전북 완주군 경복사지가 '지방 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북대 박물관이 지난 7월 말 발간한 〈경복사지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경복사지는 문헌자료나 현존 유구로 보아 삼국시대에 창건돼 조선후기까지 법맥을 이어온 매우 가치 있는 폐사지"라고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된 전북대 박관물관의 경복사지 지표조사에서 17개 소의 건물지와 석등대좌의 유구 등이 확인됐다. 특히 '고덕산 경복사 만력40(高德山 景福寺 萬曆四十)'이라는 명문이 쓰여진 기와 조각을 수습해, "650년(고구려 보장왕 9년)에 경복사를 창건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유물로 재차 확인했다.

한편 경복사지의 가치를 확인한 완주군은 지표 조사에 이은 발굴 조사의 의지를 표명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경복사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이번 지표조사 결과를 전북도와 문화재청에 보고한 것은 물론 내년 전북도 및 문화재청 예산에 경복사 복원의 기초가 될 발굴 조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문경훈 교수 논문 발표

"신라 불교 공인 법흥왕 14년 아닌 진흥왕 5년이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때가 법흥왕 14년이 아니라 진흥왕 5년이란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은 개인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승려를 통칭하는 말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문경현(경북대) 교수는 〈민족문화학술논총〉에 '신라불교 초전 고'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문 교수는 "진흥왕 5년(544)에 흥륜사가 완성돼 3월에 사람들이 출가해 승려가 되어 부처를 받드는 것을 허가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주목했다. 신라 최초의 절인 흥륜사가 창건된 이 때가 정식으로 불교가 공인된 해라는 것이다.

또 법흥왕은 생전에 '모즉지(牟卽智)' 또는 '원종(原宗)'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법흥왕이라는 시호는 그가 죽은 뒤 "참 불교를 일으킨 왕"으로 자처했던 진흥왕(眞興王)이 전왕을 추존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흥륜사의 주지가 된 사람 역시 진흥왕으로 그의 법명은 법운(法雲)이었다.

특히 이차돈은 위촉(舶觸)으로도 기록되고 있는데, '고슴도치'를 뜻하는 신라의 옛말 '잇'에서 온 것으로, 숨어서 활동하던 불교 비공인 시대의 승려를 지칭하던 보통명사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근거로 이차돈의 가계에 대한 기록이 어떤 데는 박씨로, 어떤 데는 김씨로, 어떤 데는 석씨로 등장하는 등 조작된 순교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문화유적 보존 국제포럼 열렸다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더 많은 관심 그리고 '과학 기술'이 힘을 합칠 때에만 보다 많은 유물들이 햇빛 아래 숨쉬게 될 것이다."

공주대학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주최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충남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과학재단에서 열린 '새 천년 문화유적 보존 국제포럼'은 선대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환경오염과 문화유적 보존 △문화유적의 풍화원인과 대책 △첨단 문화유적 진단 및 보존기술 △문화재 보존 사례 등 4개 분야에 걸쳐 26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 포럼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7개국의 문화재보존 전문가 13명과 문화재 보존 관련 국제기구인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과 ICOMOS(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의 대표위원 1명씩이 참여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의 문화재 보존 과학의 현황과 전망'(김은영·한국문화재보존과학), '석조문화재의 훼손 양상과 보존'(김수진·서울대), '사찰 벽화 보존'(한경순·경주대) 등 13편의 논문을 발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종욱 기자

생명식의 으뜸은 生 - 선식이다

물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자연식 식사 - 生 선식이 으뜸

특허상표 출원번호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번호 2000-21890

· 제 품 명 : 生-선식
· 원 산 지 : 강원 화천
· 영업허가 : 화천 제1-17호
· 성분 및 배합 :
곡류 80%, 꼴 20% , 빨간팥 1, 흑쌀 5, 검정깨 2, 조 5, 율무 5, 찰현미 5, 쑥 1, 수수 5, 땅콩 1, 흥회씨 2, 흰콩 1, 송화가루 2, 호도 1, 보리 5, 파라콩 1, 얼룩팥 1, 찰흑쌀 5, 기장 5, 흰깨 2, 찰옥수수 5, 잣 1, 호밀 5등



生-선식 연구원 원장 김 영 생

비 만 — 쏙쏙
피 부 — 재생
체 질 — 싹싹
피 로 — 회복
기 운 — 쏙쏙
면역력 — 상승
혈액순환 — 원활

걱 정 끝

· 포장단위 : 한달분 450개(1.8Kg)(1개-4g) · 유효기간 : 6개월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혹시 환에서 벌레가 생겨도 이상이 없으나 환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제 조 원 : 상기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350-2
· 보관방법 :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무료전화 : 080-737-0044 · 소비자상담실 : 02) 723-4463~4
· 서울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휴대용 식사대용

옛 비법의 전통 생-선식 재연

上氣元

※ 맞춤선식 - 몸(체질)에 맞는 선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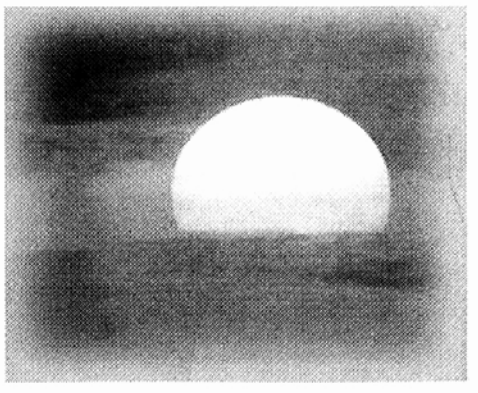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女	130,000
누비 (上,下)	男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女	130,000
누비조끼	男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 9850-4400



깨침 건강 자유

마음을 마음대로
삶을 온전히 누리기
www.now here truth.com
016-206-1001

단 일주일 만에
마음문제 완전 해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미 반은 깨닫습니다)

"불성의 작용은 여덟가지로 나타납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⑪

⑽바라제와 도견왕의 대결

보리달마는 종승의 됨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라제와는 공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종승과 도견왕은 서로 인연이 없었다. 이번에 종승이 나서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그대가 비록 분별지는 있으나 도는 아직 익지 않았네. 그만두는 것이 좋겠구먼!"

이 말을 들은 종승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그는 보리달마가 자기를 믿어 주고 나아가서 밀어 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만약 자기가 가서 도견왕을 설복한다면 명예와 찬사가 온통 자신에게 쏠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28대 조사의 위신도 깎일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싫어서 만류하는 것으로 종승은 지레 짐작했다. 그렇다고 호락호락 물러설 종승이 아니었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할 심산이었다. 종승은 다시 몸을 깊숙이 굽혀 절하면서 말했다.

"조사께서 저의 소청을 받아 주실 것을 거듭 사로옵니다. 저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면 반드시 도견왕을 바르게 이끌고 그 모든 영광은 조사님께 돌릴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조사님 문하의 사문입니다. 제가 도견왕을 교화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사께서 전수하신 불법이 천하 제일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승은 말을 마치자 보리달마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쏜살같이 나가 버렸다.

밤은 어둡고 고요했다. 일년 내내 여름같은 남천축이지만 밤바람은 제법 서늘했다.

거듭되는 상소와 직소

도견왕이 사는 궁전에는 밤늦도록 등불이 휘황찬란했다. 그러나 도견왕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있어 살기마저 감돌았다. 도견왕은 책상 위에 쌓인 상소문을 대충 훑어보고는 마룻바닥에 던져 버렸다. 상소문은 한결같이 삼보(三寶)를 경시하고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매일 거듭되는 대신들의 상소와 직소에 도견왕은 짜증이 나다 못해 울화가 치밀 지경이었다.

도견왕은 이미 마음을 굳힌 지 오래였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 나라의 임금은 곧 천제(天帝)이거늘 불도(佛道)의 제약을 받을 까닭이 없었다. 더군다나 중들의 사설(邪說)을 들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설령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불도에서는 내 몸이 바로 부처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미 내 몸이 부처라면 밖에서 구할 필요가 뭐가 있단 말인가? 스스로 내린 결론에 그는 통쾌함을 느꼈다.

한 번씩 책상 위의 촛불이 바람결에 심하게 흔들렸다. 그 때마다 도견왕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엇갈려 주름이 잡혔다. 냉랭한 얼굴에 감도는 음산함은 섬뜩한 느낌마저 풍겼다.

이럴 때는 누구도 왕과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좋았다. 바로 그 때 내관(內官)이 고승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도견왕은 눈을 부릅뜨고 고승을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먼지가 잔뜩 묻은 회색 가사를 입은 꼴이 어디서 본 듯싶었다.

"언젠가 만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아, 그렇군. 종승 대화상이 아니시오?"

도견왕은 일찍이 종승이 왕궁에 탁발하러 왔던 일을 떠올렸다. 종승은 그 때 무상종의 두 번째 수좌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밤중에 그가 왜 불쑥 찾아온 것일까? 혹시 사찰을 폐쇄하라는 명을 막기 위해 온 것은 아닐까?

도견왕이 자기를 알아보자 종승은 흐뭇했다. 얼른 합장하면서 깊이 머리를 숙였다.

"늦은 밤에 이렇게 대왕을 찾아뵙게 되어 불경죄를 지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도견왕은 기분이 몹시 상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한 장의 상소문마저 바닥에 던지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불경죄인 줄 알면서 왜 왔소? 물러가시오!"

'이미 내 몸이 부처라면 밖에서 구할 필요가 뭔가' 도견왕 스스로 내린 결론

종승은 당황했다. 겸연쩍게 머리를 한 번 쓰다듬은 다음 더욱 공손하게 합장하며 말했다.

"대왕께 삼가 아룁니다. 빈승이 이 밤중에 온 것은 대왕께 보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 하러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도견왕은 기세등등하게 몰아쳤다.

종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연하게 말했다.

"이번에 온 것은 대왕을 교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도견왕은 버럭 화를 냈다.

"건방지도다! 그대가 무슨 도력이 있기에 나를 교화한다는 건가. 도대체 내가 그대에게 무슨 교화를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종승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견왕의 질문을 구실 삼아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했다.

"여쭙겠습니다. 대왕께서는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 어떤 도력에 의지하시는지요?"

도견왕은 큰소리로 웃었다.

"나의 능력에 의지하오!"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까?"

도견왕은 종승이 너무 빤한 질문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따위 질문엔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았다.

"나의 능력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서 배운 것이다! 내가 요즘 너희들의 사악한 법을 물리치고 항복시키려고 하는 까닭도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너희들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다!"

종승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게 전개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대가 나를 교화할 도력이 있다고 했겠다. 그렇다면 그대의 도력으로 어떤 사람을 항복시킬 수 있는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종승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앞에 있는 도견왕조차도 설복시키지 못하는 터에 또 누구를 설복시킬 수 있단 말인가!

종승을 뒤따라 온 바라제

도견왕은 종승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욕설과 비웃음을 한껏 퍼부었다. 마침 그때였다. 밤하늘에서 한 무더기의 흰 구름이 날아와 앞뜰을 둘러싸는 것이었다. 구름 위에는 가사를 걸친 스님이 서 있는 것이 얼핏 보였다. 도견왕은 너무나 놀랐다. 종승에게 거듭 내뱉으려던 조롱의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믿겠는데 구름 위의 스님은 '사(邪)'요 아니면 '정(正)'이오?"

스님이 구름 위에서 대답했다.

"나는 '사'도 아니고 '정'도 아니오. 다만 '사'를 바로 잡으려고 온 것이오!"

그 소리는 도견왕의 오만방자함을 자극한 듯싶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도견왕은 종승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여봐라, 게 누구 없느냐! 이 사승(邪僧)들을 썩 물러가게 하라!"

내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종승을 끌어냈다. 그런 소동과는 아랑곳없이 구름 위의 스님은 이미 앞뜰에 내려와 잔잔한 미소를 품고 서 있었다.



도견왕은 비로소 그 스님이 무상종의 바라제임을 알아보았다.

종승이 보리달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갔을 때부터 가능성은 이미 없어 보였다. 보리달마도 미리 결과를 헤아린 바 있었다. 도견왕을 설득하기는커녕 도리어 불도(佛道)에 해를 입히는 꼴이 될 것을 염려하여 바라제로 하여금 지체없이 종승을 뒤쫓게 했다. 종승도 구하고 나아가 도견왕을 교화하기 위해서였다. 바라제는 보리달마의 공력에 힘입어 구름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들었다. 그때 마침 종승은 혼쭐이나 내몰리던 판이었다.

바라제는 도견왕 앞으로 나서더니 예의도 차리지 않고 질문부터 했다.

"대왕께서는 스스로 도(道)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사문을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어린 석은 소승이 무슨 법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감히 그 까닭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도견왕은 내심 불쾌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종승도 꼼짝 못했는데 바라제인들 별수 있겠냐 싶었다. 그리고 혹시 바라제에게 무슨 신통한 법술이라도 있다면 견문을 넓히는 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좋아요. 내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그대들 승려들은 말끝마다 내 몸이 부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처란 말이요?"

바라제가 대답했다.

"견성(見性)을 하면 곧 부처입니다."

도견왕이 재차 질문을 던졌다.

"대화상께서는 견성을 하셨소?"

"우승(愚僧)은 이미 불성(佛性)을 보았습니다."

"대화상이 견성했다면 도대체 그 본성(本性)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본성은 작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작용이길래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요?"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다

바라제는 어깨를 들썩이며 크게 웃었다.

"저의 불성은 제 몸 안의 작용입니다. 대왕께서 어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도견왕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 말도 일리(一理)가 있는 듯싶었다. 몸 안에서 작용한다면 밖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만약 내 몸 안에도 불성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도견왕은 노기띤 얼굴을 누그러뜨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대화상께 묻겠소. 나에게도 불성이 작용하고 있소?"

바라제는 도견왕의 마음이 바뀌고 있음을 반기면서 얼른 대답했다.

"대왕께서 불성을 아신다면 불성의 작용을 절로 아시게 됩니다. 대왕께서 불성을 아시지 못하시면 불성이 작용하는 것을 보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를 알게 되면 작용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이오?"

바라제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만약 출현한다면 여덟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덟 가지라구요? 대화상께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소?"

바라제는 합장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도견왕을 위하여 게송을 읊기 시작했다.

"태(胎)에서는 몸이 되고(在胎爲身)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 되는구나(處世爲人) 눈으로는 보게 되고(在眼曰見) 귀로는 듣게 되며(在耳曰聞) 코에서는 향내를 판별하고(在鼻辨香) 입에서는 담론이 나오는구나(在口談論) 손으로는 잡고(在手執捉) 발로는 움직이니(在足運奔) 널리 드러나면 온 우주에 다 갖추어져 있고(偏現俱該沙界) 거두어 들이면 아주 작은 티끌 안에도 담아둘 수 있느니(收攝在一微塵)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인 줄 알고(植字知是佛性)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정혼이라고 부르는구나(不識喚作精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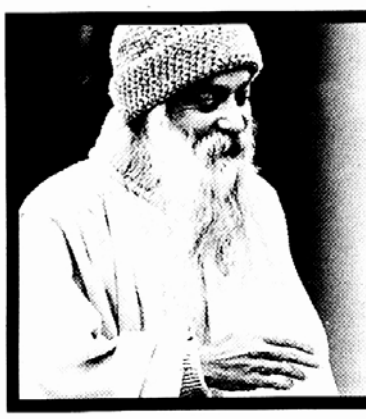
게송을 들은 도견왕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책상을 치며 감탄했다.

"옳고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근본을 잊고 불교를 문죄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견왕은 합장의 자세로 몸을 굽히면서 바라제에게 말했다.

고 침 297호 '달마 이야기'에 소개된 그림의 작가는 '법공' 스님이 아니라 수덕사의 '법광' 스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알 림 만화 '선재네 집'은 작가 사정으로 쉽니다.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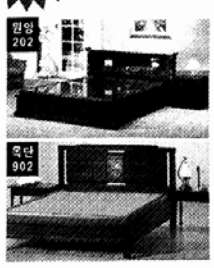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때 우주가 열린다.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그 변화만이 영원하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폭탄세일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건강을 사겠습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149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더이상의 싼가격은 없습니다.
▶ 한정수량 공급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찜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베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화조

101 싱글보료
옥스톤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 옥숯베게

▶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뻐근 합니까? 베게를 바꾸십시요.
▶ 통풍이 잘되고 세탁도 간편한 옥숯 베게
35,000→12,000원 【택배비별 도드 3000】

평상(平床) 제작 전문(휴식, 작업다이), 자동온도 조절기능, 사무용 기구 주문 제작 납품

※단체 주문 환영※ 침대 3대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 할인 가격 우대!! ☎ 02)424-9427 / 2203-7821
서두르십시오 부담없는 가격~

"부처님께 다가가는 산사체험"

사찰·단체 방학 수련프로그램 다채

참선·사경·선체조·교리 등 불교문화 배울 절호 기회

18일을 전후해 전국의 초·중·고 등 학교가 일제히 겨울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은 청소년들이 일상을 탈출해 산사에서 생활하며 불교문화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국 사찰과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들은 다채로운 수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표 참조)

사찰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참가하면 발우공양법에서부터 참선, 불교레크리에이션, 교리, 겨울철새 체험, 별자리보기, 심성훈련 등 학교 생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을 만끽함과 동시에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겨울 수련회중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다보수련원의 '청소년 심성수련캠프', 23일부터 4박5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화두를 들고 하는 명상산행, 사경, 전래놀이, 담력훈련, 달빛 밟기 등이 펼쳐진다. 또 밤에는 수련원마당에서 전문가에게 별자리의 이름과 설명을 듣는 '별자리 여행' 시간도 마련돼 도심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사는 '참나를 찾아보자'란 주제로 백양사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수련회를 개최한다. 참선실수를 비롯해 불교레크리에이션, 108배 정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수계식도 함께 열린다.

대원사도 천봉선원에서 30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수련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성인 참가자들에게 주로 많이 실시됐던 선체조, 티벳불교강의, 좌선기공 기초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무불선원도 21일~24일까지 서산 부석사에서, 우리는 선우가 내년 1월5일~1월8일까지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무진법장사는 23일~24일까지 무진법장사 법당에서 겨울불교학교 및 수련회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봉원사를 비롯해 금강정사, 신흥사, 마곡사, 범어사 등 전국의 주요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산사 체험 수련회가 잇달아 열린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겨울방학을 맞아 사찰에서 산사체험을 할 수 있는 겨울 수련회가 잇달아 열린다. 사진은 청소년들의 참선 수련 모습.



◇사찰 · 단체 겨울방학 수련회

사찰 및 단체	일 정	대 상	전화번호
조계사	12월24일~12월27일	중고생	(02)734-8179
봉원사	12월27일~12월29일	초등학생	(02)363-5268
무불선원	12월21일~12월24일	중학생	(02)541-0002
무진법장사	12월23일~12월24일	초등학생	(02)971-0303
금강정사	12월22일~12월25일	초등학생	(02)893-2700
신흥사	12월23일~12월30일	초중고생	(031)357-2695
마곡사	내년 1월4일~1월7일	중고생	(041)841-6226
범어사	12월24일~12월26일	초중고생	(051)508-3636
대원사	12월30일~내년 1월7일	초중고생	(061)852-1755
우리는선우	내년 1월5일~1월8일	중고생	(02)2278-8672
목동청소년회관	12월28일~12월30일	중고생	(02)2646-0181
부산파라다이타	12월16일~12월17일	중고생	(051)853-2445
부산백련불교화연구원	12월24일~내년 1월13일	초중고생	(051)253-0277
디지털영단상담실	내년 1월12일~1월13일	중고생	(043)257-0807
대한청교간호원	12월23일~12월27일	중고생	(043)833-7780

주부 신행담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②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인 아주머니는 자꾸 사찰에 나갈 것을 권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찰에 나가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막상 사찰에 나가 보니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나로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주인 아주머니의 충고대로 처음에는 절을 많이 했다. 108염주를 손에 쥐고 108배를 하면서 접차 횟수를 늘려 나갔다. 식당일 때문에 주로 출근이고 중단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을때마다 주인 아주머니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자신도 처음에는 기도 드리고 절하는 것이 힘들어 그만 둔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꾸준히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 열심히 해보라고 독려해 주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새벽기도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나자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 2년 동안 직장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던 남편도 다시 조그만 건설회사에 취직이 됐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



그림 · 이준석

새벽기도 1년후 가정 제자리로…

하기 전 새벽을 이용해서 사찰에 나갔다. 어떤때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하다말고 졸기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 했다. 또 안하던 절을 하려니 100배만 넘으면 숨이 가빠지고 허벅지 근육이 뭉쳐 힘이 들었다. 하지만 아침운동 하는셈치고 사찰에 가서 참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일을 나갈때면 마음속에 찌든 때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상쾌했다.

그러나 새벽마다 사찰에 나가는 나를 보고 남편은 "이른 새벽부터 절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면 돈이 나오냐"며 못마땅해 했다. 이렇게 불제자가 되고픈 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남편과 고된 식당일 탓에 3개월 동안은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빼먹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 절로 향하다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되나' 하는 회의가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 온 적도 있었다. 이렇게 몇 번 아가자 가정 형편도 점차 나아졌다. 어느날 아침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나는 '이렇게 가정이 제자리로 되돌아 온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가피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자 남편도 불제자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아침기도 때마다 남편을 사찰에 데려 가려고 설득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은 불교에 취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나의 요구도 끈질겼다. 남편을 포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식당이 쉬는 일요일이면 근처에 있는 단양 구인사로 나들이를 가는 등 어디로 놀러 가더라도 꼭 사찰을 목적지로 삼았다. 또 사찰에 가면 반드시 남편앞에서 나의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가 책과 주인 아주머니를 통해 배운 사찰 예절에 대해서도 아는대로 들려 주었다. 〈계속〉

이민자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⑨

■ 손바닥 뒤집기

퀴즈 하나. 손오공은 왜 아무리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위일까요? 정답#1:부처님의 손바닥이 워낙 넓으니까. 땡. 정답#2:손오공이 숏다리이기 때문에. 땡. 정답#3:부처님께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딩동댕동.

바로 그거다. 부처님께서는 무릎 위에 손을 얹으실 때 우리처럼 손등이 위로 가게 하



지 않으시고 손바닥을 위로 두신다. 그 까닭은? 잠시 접어 두고.

불·보살의 서원을 나타내는 손 모양을 수인(手印)이라 하는데, 그 모양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으로 '항마촉지인·시무외인·여원인·전법륜인·선정인'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섯 가지 근본 수인이라 한다. 그 중 '선정인'에 대해서만 좀더 살펴보자.

선정 삼매의 경지를 상징하는 '선정인(禪定印)'은 달리 '법계정인(法界定印)'이라고도 한다. 그 모양은,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에서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개고 엄지를 살며시 맞댄 형태다. 그런데 이러한 손의 상태는 삼매의 상태에 들게 하는 최적의 정신적·육체적 조건을 만들어 준다. 어떻게?

손바닥을 위로 하면 가슴 열리고 호흡 깊어져

당장 따라해 보자. 양손 바닥을 위로 하고 호흡의 상태를 느껴 보라. 가슴이 열리면서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호흡이 깊어지면 당연히 몸 곳곳으로 전달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난다. 특히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는 하품이 심하게 나오는 등 스스로 자구 노력을 벌인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드드 하거나 특별한 고민거리가 없는데도 우울해질 때는, 손바닥을 뒤집고 앉아 깊은 호흡을 해 보자.

"문화예술 곁들여 법회 즐겁게"

파라미타 청소년문화硏 결성 매월 세미나 포교방법 논의

소그룹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 법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인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연구소가 결성됐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설 문화연구소는 11월 27일 결성식을 개최, 소장에 이학송 법사(광동여고 교감)를 임명하고 매월 연구위원들이 청소년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월례 세미나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런 취지에 맞춰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청소년 포교'란 주제로 처음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양동효 연구위원(광동여고 교법사)은 기조 발표를 통해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회 시간에 미술, 영화, 연극, 문예 등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신행신문 만들기, 경전 내용을 연극으로 각색하기, 불교캐릭터나 불교만화 개발하기, 단청이나 탱화 배우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여명의 연구 위원들도 불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의 특별활동(CA) 시간에 '문화답사반' '명상반' '불교연극반' 등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30일부터 2박3일간 속리산 유스타운과 법주사 등지에서 '제 30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초등교육환경과 어린이 포교의 나아갈 방향' 강의 △N세대를 위한 찬불가와 율동 △선체조 배우기 △우리법회 짱! 짱! 짱!(사례발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27일까지이며 동참금은 5만5천원이다. (051)808-4569

우담바라합창단 10돌 연주회

제주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은 8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10주년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날 공연에서는 뮤지컬 '바라밀다'를 비롯해 구전동요, 국내외 가곡 등 20여곡이 연주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 룸비니연합합창단과 무형문화재 제10호 영산재 전수자 스님들이 특별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제1회 김흥국 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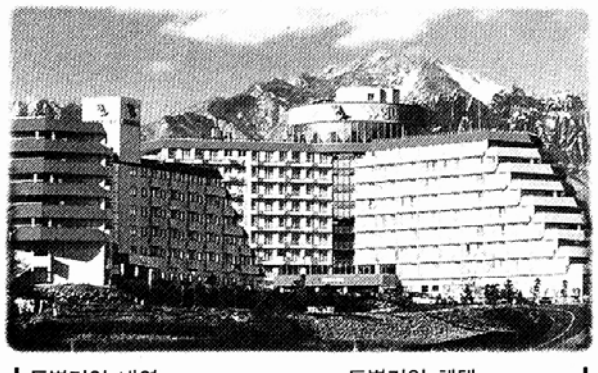
김흥국장학재단은 3일 여의도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본사에서 2000년도 제1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시·군 구청의 협조로 추천된 소년 소녀가장 10명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김흥국 회장은 장학금 수여 학생들에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용기를 잃지말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 훼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가고싶은 설악 품고싶은 동해

설악 콘도 23평 ~~1,584~~만원을 350만원에



특별가입 내역			특별가입 혜택
평 형	총분양가	특 별 가	① 계약과 동시에 전국 23곳 이용 가능
23평형	~~1,584~~	350	② 10년 만기후 전액환불 및 연장가능
사용일수	객실형태	객 실 수	③ 연회비, 입회비 평생면제
30박	방2/거실1	477	④ 초정약수 스파텔 VIP 초대권 증정
			⑤ 초정약수 (탄산수) 무료 한정 공급
			⑥ 양도, 양수, 매매 상속 가능
			⑦ 신용카드 장기분할 가능 (12-18개월)

■ 온라인 카드결재 안내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예 금 주 : 주) 현대훼미리리조트

문의 안내 02) 545-4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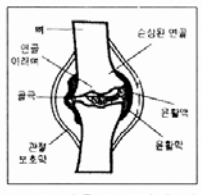
주) 현대 훼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놓고 놓고 다 놓아질 때까지 놓으라

연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문 스님, 수계법회 때 연비를 하는데, 굳이 팔에 흉터가 생기게끔 연비를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부처님의 뜻이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나투시면서 스님들에게 마음으로, 일심으로 이어져 그 부처님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수계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처님의 뜻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그 마음은 둘이 아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 스님들이 우리에게 연비를 주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해서 연비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생각하지 마시고 참다운 생각으로써, 자기 마음과 같이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극락과 지옥이 진짜 있나요

문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실제로 극락과 지옥이 있나요? 그리고 불법공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네가 학교에 가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란다. 어느 것 하나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나로부터 풀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만,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생이 되는데 다음 생에도 그 차원에서 또 고통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들은 이 몸 떨어지기 전에 꼭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항상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하시면서 "너로부터 너를 알고 너에게서 벗어난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라"하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잘 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관념과 습관으로, 부처님 법은 절에만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은 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빌고 밖으로 구하는 습을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런 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항상 말을 하는 거지.

예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밤낮 없이 뛰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부처이자 중생의 삶이야. 마음은 부처요,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이지.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 말씀은 자신부터 알아야 물리가 터져서 일체를 터득하며, 지혜로운 자비가 나오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며, 참나에 일체 제불이 들고 나심을 증득할 것이란 뜻이지.

그리고 현실이 없다면 미래도 없어. 그런데 미래에 승천하자고, 극락가자고 지금 빌고 있다면 그게 말이나 될까?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을까? 오늘 즐거움이 있어야 내일도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무겁게 두 어깨에다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삶은 삶의 보람이 없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다가 다음에 극락가라 하고 설하신 게 아니야. 오늘 모르는데 내일 천당이 어디 있겠니?

그래서 우리는 자기 근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되면 마음이 푸근하게 되면서 그게 바로 극락이자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 그 천국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거든.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을 싸잡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니까. 그러니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천국이 오든 지옥이 오든 겁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언제나 나의 근본, 주인공을 잊지 말고 항상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고 살아가도록 해.

믿는 마음 절실하지 않은데…

문 어린 시절부터 항상 나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나이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고 싶다는 허튼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나름대로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을 주인공에 놓으려고 계속 노력도 해보지만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조금 후엔 다시 또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인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인지 머리로는 주인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절실하게 믿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마음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자꾸 흐트러져요. 주인공에 놓는다는 게 '될대로 돼라. 난 어차피 죽어도 미련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돼 버립니다. 어떡해야 절실하게 마음이 한곳으로 모아질 수 있을 지요?

답 음식을 해서 배부르게 맛있게 먹으려면 우선 음식 할 거리를 사와야죠? 그렇게 음식 할 거리를 장만해 놓고 요량있게 잘 만든다면 먹는 건 아주 쉽습니다. 간편하구요. 그것처럼 우선은 어떤 재료를 사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넣고 만들어야 잘 만들 수 있나 이런 게 문제겠죠. 그런데 직접 믿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왜 이게 안되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될까 하는 온갖 생각으로 고통을 짓는 것은 음식 재료를 사놓지도 않고 만들 궁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투정만 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누가 그걸 대신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어야 자기 배가 부른 걸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대신 누가 똥눠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죽어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산 것대로 그냥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을 구태여 짊어지고 다니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에 맡기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대로 그냥 찰나찰나 없어진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찰나찰나 없어지면서 한 발로 그냥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손 없는 손과 발 없는 발이 그대로 여여하게 함이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어리석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직 한 구멍을 기준해서 모든 걸 입력한다면 현실로 나오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스스로 능력있게 자재할 것이니, 지금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보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세생생 자유권을 얻게도 되겠지요.

처음부터 절실하게 되지 않겠지만 오직 나의 근본을 진실히 믿고, 체념하듯 팽개치지 마시고 '다가오는 모든 것을 오직 내 안의 근본, 당신만이 나를 진실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맡겨놓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소식이 올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믿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림 · 최주현

근본에 맡겨놓고 살다보면
손없는 손과 발없는 발이
함이 없이 하는걸 알게 돼요

올바로 놓는 법 무엇인지요

문 놓는 다는 것이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인식이니 뭐니 하는 논리는 모두 허구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걸 다 놓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둘이 하나 되는 도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저 놓는 연습, 그리고 믿고 바치는 연습이면 될는지요? 이 질문은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저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전 그저 성내지 않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 놓고 놓고, 놓지 않음이 없을 때까지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공부는 길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이죠. 그런데 나라는 것이 '한 알갱이라도 남아있다면 한 발자국이나마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고 드는 모든 것을 근본에 일임을 하고, 항상 주인의 뜻을 따르는 충직한 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과 시자라는 틈 없는 틈이 열려서, 자(子)가 일을 할 때는 부(父)가 하나로 돼주고, 부가 일을 할 때는 또 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직 믿고 맡길 곳은 근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진실하게 근본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실 알고 본다면, 원래 부와 자는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인데도 내가 나라고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부와 자는 요만큼의 틈도 없이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살아간다, 내가 공부한다, 내 것이다.' 고 고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멈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사 근본과 둘이 아니게 하나로 계합이 됐다 하더라도 또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기 전에는 물질로 끄달리는 마음을 내 안으로 다잡아서 놓아야 했지만, 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 마음 안에서 이끄는 것마저도 다시 되놓아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걸려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것을 근본에 놓고 자유스럽게 살아가세요. 문 아닌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야 문이 열리든지, 아주 부서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누구 다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발전하는 공부이니까요.

직장생활하며 수행하는 법

문 우연히 좋은 곳을 발견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입니다. 마음이 허전해서 작년 가을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웠는데 오고 가며 길가에서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안거땐 집에서 지장경 예찬문을 읽고 절을 했는데 회양하면서 무엇을 할까 망설이다 요즘은 가까운 절에서 틈틈히 천불명호집을 사서 절을 하는데 무엇이 참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중심이 되는 부처님을 그리라 하는데 아직 생기지 않고 저처럼 그저 혼자 시간 날 때 절을 찾아 땀이 흐를 만큼 절만 하고 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저처럼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전철에서나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많은 경전중에서 진실로 무엇을 선택해서 해야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참 스승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는데 스님을 뵈옵게 되어 감사합니다.

답 수행의 문은 많이 있습니다. 염불을 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경을 읽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모두 다른 문이 아닙니다. 주인공! 즉 마음 자체는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질문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것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며 이끌고 다니는 참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불이 공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에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붙잡을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나게 하고, 이것저것 보게 하고, 이것저것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이 안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있으니 우주가 있고 내가 있으니 세상만물이 벌어졌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합니다만 일체만물이 본래 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알고 부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른대서야 달리 무엇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내 탓이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다 하는 말을 철두철미하게 들어야 할 겁니다. 내가 없다면 경계는 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흥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도 풍비박산 나게 하는 것도 다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잘났든 못났든 자기가 자기를 진실히 믿고 일체의 살림살이는 바로 이 껍데기가 아닌 진짜의 나,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거기다 놓고 거기서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공에 빠진다는 의미

문 스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에 보면 잘못해서 공에 빠지면 천리 만리 길을 그르치고, 현실에 매달리면 더디어져서 어느 천년에 싹이 틀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공에 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같은 시대에 사는데도 악행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만약에 독 있는 독사가 먹는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이 될 것이며, 약초가 먹는다면 그건 더불어 약초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똑같은 칼이라 해도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알고 본다면 한마디도 한 게 없고 한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 생각도 한 것이 없고 행동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 참자기를 믿는다 해도 중심을 세우지 않고 물질세계에 흔들려서 산다면 그것은 물질세계에 끄달리게 되는 것이고, 나를 발견을 했다하더라도 안에서 시킨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또 행을 한다면 그건 정신계에 끄달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난다고 남이야 어찌됐건 상관없이 생각 일어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안의 의식들은 나쁘고 좋고를 모르니 자기가 생각내는 대로 그냥 따라줍니다. 그럴 때 사람에 따라서 악한 마음이 더 강하냐 선한 마음이 더 강하냐 하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좋은 시대에서 살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지요. 저 언덕을 넘어서야 만이 우리들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죠. 고해의 강을 건너서 만납시다 하는 것과 같죠. 저편 언덕 뒤에는 항상 밝음이 있고 감로수가 있으니 그리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컴컴하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부할 때 정신계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공에 빠져서 물질계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면 바로 여러분 자체일 겁니다, 아마. 정신이 빠져도 육신은 송장이 되니 무효고 또 정신계만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그러면 어떡해야 옳을까요? 정상체로 만들려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이 돼서 중용으로 사셔야 정상적이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해야 합니다. 실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것이지 실생활 빼놓고 도가 따로 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부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따로 있는 걸로 아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몸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법도 나의 생활의 법과 같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는 내 아픔이 전체의 아픔인 줄 알고 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용의 길을 걷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 진척 안됩니다

문 선원과 인연이 닿은 지도 4년입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제 나름대로 스님 말씀 따라 '일체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한다'는 것을 그 어떠한 신조보다도 우선으로 믿고 오계를 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떨어질 것도 없는 현실 속에 너무나 힘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지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니 저도 저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서 하루빨리 제가 하는 일이 시작도 하고 마무리도 되어야 하겠는데 아무리 주인공 그 자리에 관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답 그 모든 것은 자기 중심에, 자기 뿌리에 진짜로 믿고 감사하게 맡기고, 슬기롭게 맡기고, 또 굴려서 맡겨야만 통신이 되는 것이지요. 사대(四大)가 다 통신이 돼요. 그러면 안과 밖이 다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너무 넘치는 거는 제거하면서 잘 이끌어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 얼마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속에서 허락을 안 하더랍니다. 이거는 아주 돈 벌기는 딱 참한데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만 안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회사가 아니고 남의 이름을 빌려 가지곤 돈을 몇 사람한테서나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고 믿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직 믿을 데가 한 군데 있지요? 자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콩싹에 콩씨가 붙어있듯이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가고, 슬기롭게 이끌어가고, 또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러죠.

☞ 20면으로 계속

가족은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오직 믿고 맡길 곳은 근본밖에 없어

☞ 19면에서 계속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체를 되게 하고 안 되게도 하는 본래 그 자리를 믿으시고 일체를 거기에 맡기는 작업을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생에 만나 함께 하고 싶은데

문 저는 불교에 관심이 많은 주부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책도 읽고 나름대로 마음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잘 통하고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 이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처지이지만 다음 생을 믿고 꼭 그 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주인공을 믿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정말 그분하고 다시 만나서 한번 멋지게 살아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그분을 다음 생에 꼭 만날 수 있는지요.

답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을 하거든 놔줘라.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육신을 붙들고 함께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차원을 높여서 마음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생에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다음 생에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모르면서 만나기만 한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생에 인연지은 지금의 생활을 내팽개치고 다음 생만을 기다리며 살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언젠가 했던 얘기지만, 어느 부부가 참 정답게 살았더랍니다. 서로를 아껴주며 정답게 살다가 한 사람이 일찍 죽었더랍니다. 한쪽이 일찍 죽으니까 남은 사람은 그걸 못 잊어서 항상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간직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부인을 따라갔는데 그 부인은 벌써 남편을 좇아서 이 세상으로 나왔더랍니다. 그랬으니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은 다시 또 염원을 해서 남편을 좇아갔는데 남편은 또 들어오게 됐죠. 맞추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중에는 돌다 돌다가, 즉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스쳐가기만 하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만나보기를 염원했건만 시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는지 모릅니다. 또 만났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살면서 나이가 맞지 않으면 안되죠. 10년이 위일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위일 수도 있는데, 어른하고 애하고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추려고 남편이 나오니깐 또 뒤쫓아 나오고 뒤쫓아 나와도 또 어린애더랍니다. 그래서 허덕지덕 하며 살다 닦고 닦아서 다시 나왔는데, 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종의 집 딸로 나오고 하나는 양반의 집 아들로 나왔으니 할 수 없이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빌었답니다.

나는 언젠가 여기서 벗어나서 저 양반 선비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얘기이니 그렇지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항상 인연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연히 그렇게 인연 따라서 도는 것이죠. 인연 따라서 식구들이 한데 모인 거고, 자기 차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고 정치인들이 한데 모이는 겁니다. 은은 은대로, 금은 금대로 그 차원에 따라서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으로까지 살게 됐고 그 선비는 주인으로 살다 일찍 죽으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염원을 하면서, 그분 자손들의 밑에 가서 그렇게 염원을 하면서 애를 썼더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똑같은 문벌과 똑같은 양반의 집에 태어나서 둘이 재미있게 살았다 합니다.

그렇듯이 한번 만나서 인연을 맺고 사는 것이 그다지도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서로 염원하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부부로 만나서 살다보니 나중에는 알게 되더랍니다. 부부라는 것이 잠시잠깐 뜬구름같이 만나서 사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이날까지 염원을 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거를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 앞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그때서야 알고서 40살이 가까웠는데도 입산을 했습니다.

스님이 돼서야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내 안에 내 님이 계시고 내 님 안에 밝음이 있으니 이것이 칠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한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아픔을 가셔줄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돌고 돌면서 헤맸던 인연에 의한, 자기 마음의 깨우침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인도해 주셨고 노력을 해주셨다는 것을 진정코 알아 항상 보배로서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허망한 사랑을 붙들고 있지 말고, 이번 생을 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들을 들고나게 하는 그 근본을 찾아서 다 녹여버리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몇 생을 그 집착 때문에 홀러 돌아야 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 애닯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연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터인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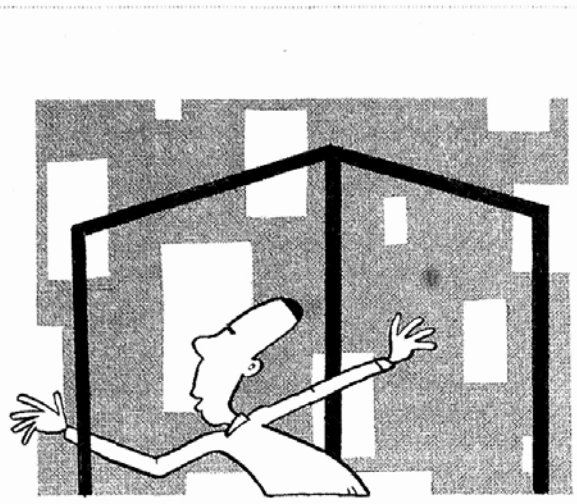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가 있으면 한 발자국도 뗄수 없어

자성불, 고정됨 없이 空해서 돌아가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사는 게 도깨비 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본다면 사랑의 감정은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이 모습 저 모습을 지니면서 짝짓기 하던 습이 남아서 서로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인간의 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유지가 되었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차원마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습을 지니고 세세생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진실한 의리와 도의, 깊고 깊은 참다운 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큰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주인공, 좋아하는 이 감정도 당신으로부터 나왔으니 당신만이 이 감정을 녹일 수 있다.'고 지극하게 믿고 맡기세요. 그 길만이 서로의 마음을 집착으로 불태우지 않게 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하고 진실하게 믿고 맡긴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학업 대신 장사해 보고 싶어요

문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능시험이니 대학이니 하고 인생을 걸고 그것에 실패하면 사람 대접도 받을 수 없는 양 서로를 다그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회가 다 학벌이나 간판 위주로만 흐르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아도 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도 않고 해서 일찌감치 그만두고 장사를 해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걱정을 하세요. 스님 제 생각이 정말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스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 너라는 모습은 엄마 아빠의 정자난자로 인해서 그 모습이 형성됐어. 그런데 태어날 때 네가 생명력은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임신이 돼서 우리가 모두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과거 너를, 과거 너라는 게 너의 과거 원소라는 말이야. 원소, 근본을 말하는 거지. 너의 그 원소 자체를 에너지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는 그 원소에다 모든 걸 맡겨야 돼. 때로 주위에서 너를 욕한다 해도 '주인공, 이렇게 안되게 하는 것도 당신 아냐' 하고 매사 걸 다 거기다 맡겨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동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입력이 돼, 즉 말하자면 어저께 잘못했으면 입력이 돼서 몇 달 후에 나오기도 하고 몇 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유전성도 영계성도 업보성도 모두가 거기서 출발하게 돼. 그러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면 그 입력된 나쁜 거는 다 없어져, 알았지? 그러니 거기다 다 맡기고 살어. 그래야 너도 잘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어, 알았니? 상대방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지 않아 천하없어도 그런 게 입력이 되어 붙어 다니면 뭘 하려고 해도 될래야 될 수가 없어. 하려고 아무리 해도 뒤로 돌아서게 돼.

또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학교 과정은 마쳐야 제대로 뭘 할 수가 있지. 지금 세상이치가 그래. 장사를 해도 멋있게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냐. 장사를 해도 내가 그런 게 있어야 나와 남이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문제 아냐?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사는 게 아주 피곤해져. 내가 이런 소리하면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지? 되는 대로 살면 사는 거야 되지. 그렇지만 너 혼자 묵묵하게 그냥 산다고 해서 평생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속 안 썩고 살 자신 있어?

앞으로 얼마나 지나면 앞날에 네가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게 되겠니? 잘 생각해봐. 부모도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그때는 네가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네가 세상이치를 알아야 옳은 짝을 만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제대로 자식을 둘 수 있어. 그런데 마음에 안 내킨다고 공부를 안한다면 그 모든 걸 순조롭게 하기가 어려워. 하기 싫다는 생각도 마음에 달렸거든. 마음에서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내내 그냥 마음에서 싫은 생각이 들고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되질 않어. 그러니까 '주인공, 싫지 않게 하고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하고 열심히 제대로 심부름을 해나가게 해' 하고 관해봐. 빛나게 살아야 한다.

사무치게 진실로 놓는 법

문 주인공에 사무치게 진실로 놓고 관하라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치게 진실로 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처절한 사연으로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의 심정인지, 평상심에서 가벼운 생각으로 무심히 놓는 것 인지요. 예를 들면 저의 집 위로 매일 미군 헬리콥터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 저 헬리콥터가 다른 곳으로 날아다니게 해. 너무 시끄럽잖아." 하고 관합니다. 그런데 매일 매 시간 날아다니니까 저는 매일 매 시간 주인공에 같은 말을 합니다. 이때 놓는 다는 것과 관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답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라는 것도 거기이고, 그것이 나오는 것도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들고 한 군데서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거기요, 감사하는 것도 거기요, 꺼내는 것도 거기입니다. 그 세 가지만 되면은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긴박한 상황일 때도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아!' 하고 관합니다. 이건 거기에서부터, 내 본래면목에서부터 내가 형성된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본래면목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니까, 또 행동도 하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악이든 선이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만 이 전체에 다 통신이 되어서 해결이 날 것은 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쥐고 온 것도 없어지고 안고 갈 것도 없어진단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그대로 갈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급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당신이, 본래면목 당신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만 하고 그 한생각을 냈을 때 그걸로써 족하고 그 생각으로만 간절해야지, 발버둥을 치고 방황하면 못 믿는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쏭달쏭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알쏭달쏭하게 되는가? 나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래면목인 주인공을 못 믿는 겁니다. '야,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급작스럽게 일이 닥쳤을 때는 누가 아무리 여기에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량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해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것도 네가 할 것이고 사는 것도 네가 할 것이다.' 하고 탁 내버릴 텐데 이걸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놔버린 자에게는 사는 도리가 있고 붙들고 있는 자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야만야한 데서 나무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너는 이거를 놔야 산다' 하고 일러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못 놓는 거야, 왜?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본래면목 그 자체를 믿는다면 이것도 무난히 놓을 수 있습니다. 무난히 놓으면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알게 되고, 낭떠러지도 본래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높고 낮음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고 내가 아니라는 존재도 없습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내 희생과 인내와 노력, 그런 정진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것은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고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지어놓고 맡기지 말고, 오직 그 자리에서만이 해결 할 수 있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맡겨놓는 그 믿음이 사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붙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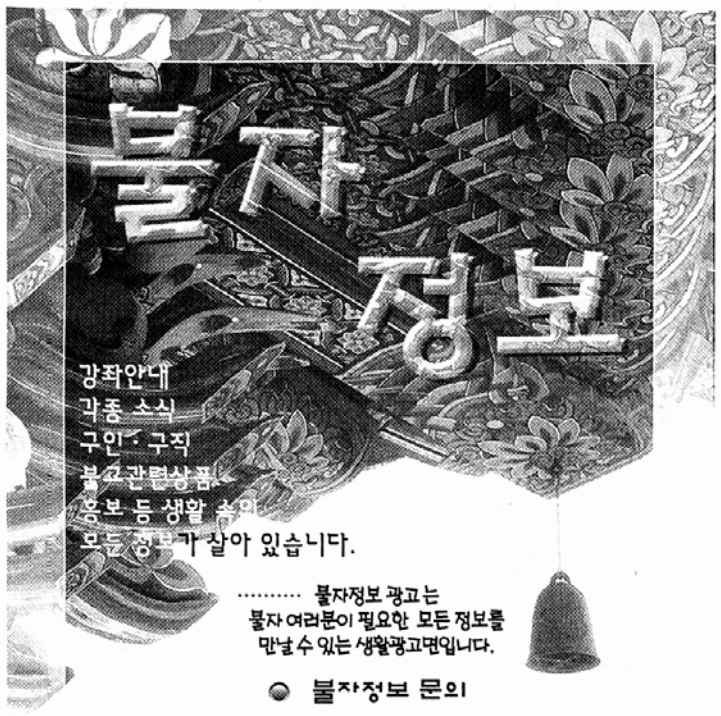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018 한통엠닷컴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비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구갑염주 구갑은 장수와 행운을 뜻합니다. 어러한 진귀한 소재로 판같이 만들어 만든 부적입니다. 이 부적에는 4글자의 글이 한데 어울리며, 부부가 화합하면서 차랑도 안전하고 사업이 대길하고 무병장수한다는 뜻의 부적입니다.
크기 6.5..5,.0.2
· 차량 또는 집안에 걸거나 지갑에 곳고 다니면 좋습니다
· 진동이부 · 모사리를 살짝 놓고 대서 냉세를 말으면 김적 이해 창 안약 구갑이 진동이 아니면 100배 변상 함
가격 30,000원
· 구입요망 · 전화를 주시면 구갑부적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구갑염주(108) 10MM 150,000원
· 구입요령 · 전화를 주시면 구갑부적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 A급시야기, 진품, 후불, 고급케이스, 고긋실매듭
◇ 문의전화 : 02)444-2822 017) 208-2822 "구갑사"

男女철학원생모집
과 목 풍수,사주,직명,궁합,관상,부적
과 정 초급반,고급반,개원반,자격증반
강 사 원장직강(사주비전外100권 저술)
사주·감정 의뢰하실분(3만원입금후 전화요)
계좌번호 기업은행012-027395-01-017달마사
卍 달마사 포교원 달마스님
(051)328-5551 (051)312-4804
(02)999-5551 (02)999-4804

탈종공고
소재지 : 경남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 3동 454-17호 용천사 포교원
귀 종단 한국대선불교조계종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한국 대선불교 조계종 종정. 총무원장 법하
2000년 12월 5일 화요일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소원 성취 비법
⊙ 2001년도 한가지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분 (불가 사의한 신통력을 가진 엄청난 인생비법)
⊙ 사업번창, 삼재예방, 관재구설, 부부화합, 결혼성취, 교통안전, 학업성취, 각종시험 합격기원 건강 쾌차
상담전화(053) 982-4976 지장선원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운전 가능자 우대 -
053)628-5430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기도하실 보살이나 처사님 모십니다.
- 50세이상~65세 미만 -
017)708-0635

출가한지 4년된 39세 사미승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054)762-9097
017)515-7527

사주 초명학특강 30년
· 실제 체험 경력으로 속성지도
· 기간 : 3개월 · 수강료 : 월 10만원
· 강사 : 지원 삼장법사
· 스님 불자 출가 상담 환영
· 위치 :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로타리 조흥은행 후문
051) 818-7863

불치병 치료
마음의병, 각종 말기암, 당뇨합병증, 혈압합병증, 병명없이 고통받고 있는병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무료로 치료 완치합니다.
도금사 합장
055)754-91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충북 증평 -
011)486-4408
043)838-3562

암자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을 암자에 기거하실 불자님을 찾습니다.
011)492-2944

부전스님 구합니다.
051) 263-9623
051) 264-9621
011) 577-7600

기도, 수양, 공부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 강 사
055)932-5706

안 내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신도 중 보살님)
· 법패를 가르키는 강사입니다. 연락바랍니다.
031)865-4893
011)661-9119

배우자 구함
◎ 女 51세 (자녀 없음)
◎ 대구, 경북 거주자 원함
◎ 전직 공무원, 미모 겸비
– 불자의 만남
불연 결혼 연구원 –
053)982-6778
011)9353-6006

조용한 사찰에서 함께 기도하실 보살님을 구합니다.
(40 ~ 60대)
▷ 강원도 강릉 ◁
033)661-5878

행자 모집
만 19세이상
38세미만
학력 : 고졸이상
042)583-5214

사찰(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수서 근교
- 대지170평 인법당
- 개인사정 4억 5천만원 현 시가 당 4백만원 이상임.

※ 경치와 호수가 보이고 물이 좋은 큰산 밑 밭 1500평 위 사찰 포함, 5억 7천만원 양도. 현 시가 당 십만원 이상임.

017) 339-800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체,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 : 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샤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구들 뜨끈 뜨끈 지글 지글
- 하루밤 자고나면 온몸이 확 풀립니다.
- 방하나를 구들로! 연료비 절감!
- 황토주택, 황토방 시공
- 사찰 암자 주말주택, 농가 환영

"표준적인 황토 구들 시공으로 최고의 열효율 유지"
≪구들돌 납품 할 시람 연락요≫
한국표준구들 054)335-6708
011)533-738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6천 - 답사 후 절충 (보증금 3천 2백, 월 30포함)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118평 ● 법당 : 18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6천 5백
- 청평 800평 1억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지장,관음(동봄조성),후불,신중, 칠성탱화,대북,범종,(불단조각,단집)경탁,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 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사 찰 안 내
- 위 치 : 원주시 문막소재
- 부 지 : 5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50평
- 주차장 있음
- 신세종은 기도 정진 도량임
- 양도가 : 1억 8천 (분할가능)
- 위 치 : 전남 여수시내 소재
- 대 지 : 40평
- 법 당 : 25평 (2층)
- 요사채 : 30평 (1층)
- 양도가 : 1억 7천 (융자 가능)
- 15년 역시의 도심포교당 임 신도수 많음, 비구니스님 환영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군위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기 용인
- 법당 : 24평
- 요사 : 67평
- 부지 : 67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 19평
- 요사 : 70평
- 부지 : 39,000평
- 가액 : 4억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사시면 반드시 賴터 - 마당 넓고 뒷山 명당지 마을 맨 끝집 휴양지, 기도터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 불때면 3일간 따뜻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 바닷가 부근
- 구조 : 법당, 공양간,주지실 (총 53평)
- 특징 : 최고의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
011)868-599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8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전세 1억 5천)

016)651-1800
011)870-1463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 60평
- 건물 : 1층 36평 (요사) 2층 25평 (법당)

※ 주택가 뒤산밑 위치, 차량진입 가능 교통 편리, 50여년의 연혁으로 특히 법당 잘 모셔져 있음. 급한 개인사정에 속히 양도코저 함
011)234-5967

하우스(토굴) 장기임대
■ 위치 : 경기 용인 외대 ■ 전세 : 2천 오백만원
■ 대지 : 150평 전답 300평 사용가능
■ 건물 : 법당 요사 욕실 주방 특수제작 (50평)
■ 용도 : 선방 화실 도예 연구실
■ 특징 : 자연 암반 1급 약수터 잣나무 숲과 등산로 멀리 남한산성 바라다 보이며 마을과 1Km떨어져 있어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터임. 대중교통은 서울근교에서 최고임 즉시 입주 가능함.
연락처 011) 888-0538

사찰(터) · 납골당안내
- 장소 : 원주시 문막면 기두리
- 평수 : 63,000평
- 가액 : 평당 4천원

좌청룡 우백호 큰 사찰터나 납골당 유력지. 산세좋고 물이 많이 흐르는 천연의 대지입니다.
011)268-268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내 중심지 산사
- 평수 · 대지 : 250평 전 150평
- 건물 · 법당 : 24평 요사 30평 차량진입, 다량주차
- 가액 : 2억 8천 (답사후결정)

032)424-3324

안 내
·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 43세된 비구스님
· 산세좋은 계곡의 불사 중 3000만원 모자라 중단중 현재 1억 2천원 들어갔음.
· 투자하신분들에게는 명의이전해드립니다.
041)545-7653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절충

02)481-448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소재
- 부지 : 약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0평 (목조+황토)
- 가액 : 1억 5000만원
- 특징 : 산새와 계곡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의 기도정진 할 도량으로 아주좋음.

※ 전국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서울 02)326-1060 대구 053)655-1062 · 1063 휴대폰 018-334-9021
동진불사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융자 포함 매 5억 2천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 시장 내에 3층
- 평수 : 35평 10년 됐음
- 가액 : 5천만원 전세

02)2618-0767
011)753-0768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연무동 274-14
- 법당 (25평) 요사 총 45평
- 가액 :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포함)
011)9760-3520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합양 용추 계곡 옛날집 1채, 화장실, 전기, 전화 약 5,100평 도로에서 7분거리
- 특징 : 물좋고 폭포 산세좋고 함양 남도규산, 거창 가막산 한천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앞과 뒤가 한일자형 교통편리 함. 거창에서 안의 용추사까지 하루 13번 운행.

055)962-0082/963-33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326-0671
011)843-5672

세상 포근히 감싼 '자비의 이불'

정억순보살, 소년가장·노인·소방관에 보시

40년간 1만여채 전달…"내년엔 선방에 온정"



◇6일 정억순보살이 경남도내 소방서에 전달할 이불 210채를 트럭에 싣고 있다.

"시민들 위해 목숨까지 내 놓고 일하는 소방관들, 소년소녀 가장, 외로운 어르신들이 사랑의 이불을 덮고 잠시라도 포근하게 잠들었으면 합니다."

6일 경상남도 소방서에 210채의 이불과 베개를 보시한 것을 비롯 경상남도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어르신 등에 이불 총 700여채를 보시한 정억순(63·미륵원 원장)보살의 바람이다.

정보살의 이불 보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13일 경상북도의 소방서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에 까지 전달된다. 이번에 보시하는 이불만도 총 1200여채. 지난 1년간 하루 6명의 인원을 동원, 일일이 검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직접 시침을 다시 해 만든 이불들이다.

"판매하는 물건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으면 벌써 부자됐을 것"이라며 웃는 정보살. 베개도 인조속을 하지 않고 쌀겨를 직접 구해 말려 만들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불을 덮게 하고 싶어 몇날을 꼬박 새우곤 했다. 눈이 시리고 따가워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성과 사랑으로 한땀 한땀 지은 이불과 베개들이 고운 빛을 더하며 정보살의 손길을 떠나 춥고 외로운 이들에게 전해진 것.



◇정억순 보살

정보살은 먹고 입는 것을 아껴가며 모아온 몇 억원을 고스란히 이불 보시에 사용했다.

정 보살은 "너무 힘들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추운 사람들 생각하면 그만 둘수가 없다"며 "부처님의 원력이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 이불보시를 40년째 이어오며 그동안 총 1만여채를 보시한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이며 원력이라고 겸양을 보인다.

"남을 위하는 일은 자신을 위하는 일보다 더욱 철저하고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정보살은 모든 것에서 철저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이불 보시를 앞두고 직접 소방서를 답사했다. 마루에 전기장판을 깔고 춥게 자는 소방관들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안타까웠다고.

"소방관들 너무 고생해요. 자다가도 출동을 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얇은 이불 덮고 웅크리고 자면 피로가 안 풀려요. 잠간을 자도 따뜻하게 자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돼죠."

잠못 자는 소방관들 걱정하는 정보살이지만 정작 자신은 하루 한시간의 잠도 제대로 못잘 때가 많다. 이불감을 뜨고 이불을 만들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일까지 모든 일을 직접 챙기기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러나 정보살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 좌선으로 녹여 버린다. 참선이 아니면 견뎌내지 못할 정도의 고달픔을 내면의 힘으로 충전을 하며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불을 받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따뜻하다"고 감사 전화를 해 올 때면 그간의 고생이 말끔히 씻겨 버린다.

'세상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서' 결코 이불 보시를 멈출수는 없다는 정보살. 앞으로 가난한 선방이나 행자교육원 등에도 이불을 보시하겠다는 정보살은 내년에는 봉사활동 틈틈히 선방 결제를 목표로 내면적인 마음공부에도 원력을 쏟을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불교성지 존자암터 훼손위기

케이블카 반대 제주도민 연대 철회투쟁

민족의 영산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를 포함한 범 제주도민연대가 출범했다.

'한라산케이블카 반대 제주불교대책위원회'를 비롯 제주범도민회, 제주경실련,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단체와 1,000여명의 도민들은 3일 한라산국립공원 영실매표소 입구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반대 제주드민연대' 결성대회를 가졌다.

케이블카가 놓여지는 선작지왓 구간은 영실 오백장군의 등허리, 우리나라 불교의 남방 전래설이 시작되는 존자암이 있으며 생태계의 보고다. 여기에 20여개의 15층 높이 철탑을 빼곡이 설치한다는 것.

제주도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제주 탄생의 원천이며 국토 최남단 영산에 쇠말뚝을 박으려는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산케이블카 반대 제주불교대책위' 위원장 광조스님(관음사 부주지)은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하루 7000여명의 인파가 정상 가까이 몰려 1800여종의 자생식물이 과괴되는 것은 물론 다량의 매장 성보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는 존자암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0일까지 시민단체 등 사회단체와 여론을 수렴,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한창인 곳은 경남 통영 미륵산, 밀양 천황산, 남해 금산, 울주 신불산 등 모두 4곳이다. 김재경 기자

"반달곰 사는 지리산 보호"

국민행동 '댐 백지화' 촉구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은 최근 지리산에서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의 생존이 17년만에 확인된 것과 관련, 9~10일 해발 1000미터 이상의 지리산 일대에서 '지리산 반달곰 보호, 밀렵도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

환경부 후원으로 환경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13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반달곰 및 야생동물 보호 활동(덫과 올무 수거, 먹이주기)과 지리산 댐 백지화 캠페인을 벌였다.

이와 관련 환경연합 양장일 조사국장은 "지리산 인근에 계획 중인 2개의 대형댐이 건설되면 기상이변으로 반달가슴곰의 주된 먹이인 상수리나무의 생장과 도토리 결실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줘 결국 반달가슴곰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면서, "반달가슴곰의 보전을 위해서도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리산을 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02)735-7000 김재경 기자

목포교도소 수계법회

목포교도소 불교교화위원회(회장 정각스님)와 교도관불자회인 성불회(회장 차재영)는 14일 오후 1시 30분 교도소내 강당에서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해남 대둔사 주지 보선스님의 증명으로 거행되는 이날 수계법회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자 재소자 83명이 수계받을 예정이다.

목포교도소(소장 김양택)에는 현재 1,300여명의 재소자가 있으며, 이중 개신교 신자 600여명, 불교 및 천주교 신도 각 150여명이 종교활동을 결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암투병 김현석군 살리자"

선운정사 특별법회

제주 선운정사(주지 삼중스님)는 6일 골육증 암으로 투병중인 애월중 김현석군의 수술비 모금을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특별법회에서는 최근 미얀마의 자티카리마 수도원에서 기증·이운돼온 부처님 진신사리와 아라한 사리 친견법회도 함께 열렸다. (064)799-8588.



英여왕 서명 청기와 봉정사 대웅전 올려

안동 봉정사(주지 문인)는 2일 보수중인 대웅전 지붕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서명한 청기와를 얹었다(사진·중앙일보 제공). 또 여왕의 방문장면을 찍은 화면도 CD에 담아 보수중인 대웅전 기둥속에 넣었다.

대웅전 지붕 용마루 한가운데 올려진 청기와는 지난해 4월 21일 이곳을 찾은 영국여왕이 서명해서 봉정사에 남긴 것.

당시 여왕은 방명록에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라는 글귀 아래 영어로 '엘리자베스'라 서명하고 청기와에도 흰색 글씨로 이름을 적었다. 총무 성묵스님은 "여왕이 청기와에 남긴 서명을 기와불사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동·서양 문명의 만남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행자교육원 부지 심의

교육원(원장 일면)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원회는 19일 제4차 회의를 개최, 상설행자교육도량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을 신청한 본사는 현재 제4교구 본사 월정사와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두 곳. 월정사는 무량수전과 동당 강의실을 비롯해 서당 강의실, 대법당, 방사(30개) 등의 현 시설과 신축중인 목욕실(2개소), 화장실(2개소), 방사(4개소)의 완공을 전제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금산사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소재 안심사를 상설행자교육원으로 신청해 놓고 있다.

백양사 '참사랑 수행'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다정)는 오는 27~31일까지와 2001년 1월7~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참사람 수행 결사'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서옹큰스님의 법문과 화두간택, 좌선의, 선종사 등 불교교리가 강의되며, 참선과 함께 겨울 산행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대상은 20~65세까지의 일반 남녀로 모집인원은 각 23명이며, 참가비 7만원. (061)392-7502.

태고종

'동방인의 밤' 행사



종립 동방불교대 총동문회(회장 도성)는 4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총무원장 종연스님등 종단 스님들과 동방불교대 동문등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4회 동방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동방대 동문간의 유대강화와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모색하기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1부 기념법회와 2부 친교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방불교대 범패시연

종립 동방불교대 범패과 졸업시연회가 1-2일 양일간 서울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종연 총무원장 스님,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이번에 졸업하게 되는 범패과 11명이 지난 2년간 배운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등 전통범패의 식을 시현했다.

천태종

상월조사 탄신 90돌 법요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 제90회 탄신봉축 법요식이 23일 오전 10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스님의 증명과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이다.

진각종

보광심인당 진각의 밤

구미 보광심인당은 어려운 경제 회복과 종단발전을 서원하고 신교도들의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제2회 진각의 밤'을 16일 오후 6시 팔레스호텔 3층 느티나무홀(구 프린스호텔)에서 개최한다.

복지재단 새해예산 53억원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은 11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1년도 예산을 2000년에 비해 3억2천7백만원 증가된 53억7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진각복지재단은 이에 따라 2001년을 '진각복지 위상 정립의 해'로 정하고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행정연구 프로그램 개발주력 △국제구호사업 강화 등을 주요활동 방향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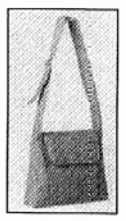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이보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t.co.kr
E-mail:bokbat@kornet.net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특허청 : 상표등록증 등록제 0472513호

▲B-1001 ₩40.000

▲B-1002 ₩35.000

▲B-1008(中) ₩25.000

◀B-1003(大) ₩35.000

◀B-1004(小) ₩33.000
■방 거 지

<팔각>

<타원형>

<조리개, 곤>
▲B-1005 ₩20.000 ▲B-1006 ₩20.000 ▲B-1007 ₩20.000
※본 바랑 및 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사 ☎(054)636-6546 / Fax:632-6545
입금계좌 농 협 : 061-17-001230
우체국 : 013805-01-001737
국 민 : 831-25-0022-019
예금주 : 주)천화 무역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서울 이화불교사 02)720-1700 / 대복전 02)737-0969 / 성불사 02)735-3543 / 전지불교사 02)739-3032 / 제일불교사 02)735-0918 / 도선사예점 02)906-2279 / 구룡사 02)575-7766
부산 부다가야 051)865-4383 / 신사회불(법어사) 051)508-6300 / 고려불교예술원 051)807-6842 / 불광불교예술원 051)525-7450 / 한국음승복사 051)642-6020 / 해동불교사 051)337-6386 / 사하불교연합회 051)205-4535
대구 삼영불교전시관 053)425-4097 / 동화불교사 053)255-0784 / 관음불교사 053)424-5462 / 연화불교서점 053)253-1923 / 해인불교서점 053)425-0108
광주 해동불교백화점 062)224-6696 / 김천유기 062)363-5219 / 봉해불교미술원 042)274-3727 / 금성상회 062)369-1937
대전 보문불교서점 042)257-0161 / 백제불교사 042)253-9907 / 대구승복사 042)254-8772 / 반야불교사 042)822-2356 / 고려불교사 042)221-0889
경기 공덕불교사 042)822-1083 / 삼원불교사 031)771-4747 / 수원포교원 031)253-1055 / 구리만물 031)563-7554 / 이천고려반물 031)633-6023 / 용인성원불교만물 031)336-0337
안양일심불교사 031)447-5685 / 외정부불교만물 031)842-8671 / 수원풍년사 031)256-4127 / 김천은혜사불교용품 054)433-4179 / 구구종합불교사 054)682-2869
경북 안동보리수불교사 054)854-2114 / 상주불교상회 054)535-2474 / 경주불교서점 054)749-1580 / 구미불교사 054)453-3077
포항만덕불교전시관 054)241-2402 / 영주불교상회 054)632-2248
경남 김해일광불교사 055)325-0780 / 창원경남불교전시관 055)295-8911 / 하동절보정사 055)883-7771
진주진흥불교사 055)743-4655 / 진주제일불교사 055)742-8174 / 한건당(태인사) 055)932-7473
김원 원주공간불교사 033)743-7442 / 홍천아하불교사 033)434-9446 / 감응공원불교사 033)642-8880
충북 청주불교만물사 043)258-4725 / 제천불교사 043)645-7517 / 음주구원불교사 043)848-8411
충남 공주백제불교사 041)855-5621 / 조치원동양불교사 041)865-4544 / 천안불교백화점 041)551-4766
전북 전주성문각 063)274-6639 / 이리우기 063)855-3883 / 남원불교사 063)625-0234 / 정읍거북불교사 063)532-2986
전남 목포정해원불교용품 061)243-2453 / 여수이화불교백화점 061)643-7533
인천 강화불교사 032)932-0647 / 제일불교전시관 032)505-3861
울산 대원불교전시관 052)260-6617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즉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의정부시사암연합회, 용현성당, 대광교회 등 3대 종교 신도 등 200여명은 11월 30일 의정부시 통일안국사에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를 펼쳤다.

김장 담그기…환경정화…국난극복 기도

종교인 합심 자비 실천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종교가 종교이념을 초월해 손을 맞잡고 이웃사랑을 잇달아 실천해 세밑의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인 200여명은 11월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통일안국사 앞마당에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를 펼쳤다. 이들은 오후 5시까지 배추 2천 포기와 무 80단으로 김치를 담궈 혼자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1백50가구의 저소득층 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어 5일 오전 서울 도봉산 망월사 부근, 의정부지역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성직자와 신도 100여명은 망월사 산행을 하며 '종교합동 등산대회 및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고 '안·고·실·미' 운동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종교간 벽허물기 행사를 가졌다.

'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실례합니다·미안합니다' 란 말을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웃간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이 운동은 남북, 동서, 종교간에 벌어진 마음을 하나로 이어보자는 취지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월운, 이하 좋은모임)이 결치는 종교화합운동의 하나.

의정부시 제2건국위원회가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지역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모임'의 종교 화합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19일 오후4시에는 의정부 삼천리회관 예식장 5층 부례회관에서 '종교합동 국난극복 송년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와 사회의 화합을 위해 종교인들이 해야할 일에 대해 각 종교단체에서 연구발표를 한 뒤 친교의 시간도 갖는다.

'좋은모임'의 이건식 사무국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내 불우이웃을 보살피고 종교단체 끼리 화합하기 위해 김장 나누기, 환경보존 캠페인, 국난극복 합동기도회 등을 기획했다"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열리는 종교화합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계사(주지 성공)와 강북구 수유1등 성당(주임 이종남 신부), 송암교회(당회장 박승화 목사) 역시 6일 종교연합 바자(11월 11일)로 모금한 2,006만8,370원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해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성금을 전달받은 어린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엄하나(16), 임아름(14)양 등 7명이다.

의정부시사암연합회 회장 지섭스님(원각사 주지)은 "자비와 사랑의 정신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화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 등서·남북화합을 이루고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일본군 위안부출신 김군자할머니

'희망주는 시민'에 선정

전재산 사회환원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일본군 위안부 출신 김군자(75) 할머니가 시민운동가 100인이 뽑은 '우리시대 희망을 주는 시민'에 선정됐다.

참여연대 월간 소식지 〈참여사회〉는 최근 전국의 시민운동가 100인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시대 희망을 주는 인물' 중 시민부문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김군자 할머니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 8월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평생 모은 재산 5천만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었다. 할머니는 17세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20세까지 위안부 생활을 했으며, 정부보조금과 단추끼우기 등 소일거리로 모은 재산을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한편 1935년부터 10년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한 이후 정부보조금과 민간단체 지원금 등으로 모은 전재산 4천3백만원을 지난 6월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에 기탁했던 故 문명금 할머니도 '희망을 주는 인물' 후보에 올랐다. 문 할머니는 11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축 장엄등 강습회

조계종 '18~22일' 등 두차례

대한불교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는 18일~22일, 내년 1월 8일~12일 두 차례에 걸쳐 '봉축 장엄등 제작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연등 축제의 상징인 장엄등의 뼈대 및 중심대 만들기, 전기 설치 등의 제작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5인 1조가 되어 가로 세로 2m 크기의 탑등, 코끼리등을 실습으로 제작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강습회 참가단체를 대상으로 이후 단체 장엄등 제작비도 지원한다. 강습회 모집인원은 1·2차 각각 40명씩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두식 기자

불교자원봉사련 '통일씨앗 가족 2001 행사'

탈북주민 34명 생활체험

탈북주민 교육기관인 안성 '하나원'에 기거하고 있는 탈북주민 34명이 부처님과 함께 하며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

이들은 6일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탈북주민 남한사회 이해를 돕기 위해 주최한 '통일씨앗 가족 2001 행사'에 참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대문시장과 경복궁을 돌며 남한의 물가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들 탈북주민들은 서울 노원구 사천왕사에서 출발, 지하철을 이용해 동대문시장에 도착한 뒤 평화시장과 흥인시장을 둘러보며 거대한 시장규모와 다양한 상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지급한 2만5천원으로 의류를 비롯해 생필품, 서적 등 각자 원하는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점심을 해결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남한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물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탓에 상품 이름이나 물가, 문화에 대해 생소해하는 표정은 역력했지만 자원봉사자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됐다.

10년간 군 생활을 했다는 이대정(가명, 42)씨는 "오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거듭 표했다.

북한에서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8월 한국에 들어온 윤일오(가명, 40)씨는 "남한과 북한의 생활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을 돕는 스님들을 훌륭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로 나섰던 박종애(55)·박추애(53) 사촌자매는 분식점에서 탈북주민과 함께 둥태찌개로 점심을 들며 "남한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부자로 살 수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면 정착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한 탈북주민이 노점상에서 빗을 사며 자원봉사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진각종 총금강회 회장

백진호씨 재선출



진각종 총금강회는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총인원에서 진기 54년도 임원 및 대의원 수련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백진호(사진·시경심인당) 현 회장을 재선출했다. 감사에는 민정호(밀각심인당)씨, 노성자(탑주심인당)씨가 각각 선임됐다.

앞으로 2년간 총금강회를 이끌 백진호 회장은 인사를 통해 "다시 중임을 맡게 된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총금강회와 종단이 더불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5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수련회에서는 납골당 조성, 자성학교 활성화 등의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이경숙 기자

종교연합 화장장려 세미나

14일 영천 만불사서

재단법인 만불회(회주 학성)는 14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 만불사에서 납골당인 극락원 왕생단 개원을 기념한 '종교연합 화장장려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묘제도 개선 실천을 목적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4대 종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날 세미나는 김시덕(국립민속박물관)씨의 '올바른 장묘문화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에 이어 불교측에서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이, 개신교는 정다운 목사(기독교장례문화협의회), 천주교는 나기정 신부(대구가톨릭대 교수) 유교는 이승관씨(성균관 전의)가 각 종교의 장례문화 개선운동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한편 만불회는 54평 규모의 극락전을 신축하고 영가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왕생단을 설치,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원식을 갖는다. 왕생단은 개인단·부부단·가족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어 세미나 뒤에는 '화장유언 남기기 발대식'을 봉행하고 화장장례문화보급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

만불회는 96년부터 부도탑묘 2000기를 설치해 불교식 장례문화를 선도해 왔다. (053)756-0101

한명우 기자

'독도찾기 본부' 창립

종교계와 노동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우리독도찾기운동본부'가 2일 서울 종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독도찾기운동본부는 한국정부가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두는 등 이미 일본으로 넘어간 반쪽의 주권을 찾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펼친다.

김재경 기자

재가연대 '뉴스레터' 창간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6일자로 주간 '전자뉴스 레터'를 창간했다. 이 뉴스 레터에는 심포지엄, 포럼, 수행모임, 성명서, 불교NGO 소식 등을 실었다. 분기별로 책자화 해 배부도 할 계획.

한편 재가연대는 16일 오후 5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성사 '봉사단' 모집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달라이 라마의 2001년 방한 성사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평화봉사단'을 모집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봉사단원 및 방한준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방한준비, 본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실비도 제공한다.

모집 분야는 영문 번역(티베트 불교, 달라이 라마 관련 영문자료 번역) 3-4명, 한글및 맥킨토쉬 편집(자료집, 팜플릿 제작) 1-2명, 전화 및 메일 발송 4-5명, 웹디자인 1-2명이다. 모집기간은 12월 20일까지.

(02)730-8586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뽀타 센터

아뽀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뽀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청 원 서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 유남파 의장님 귀하

존경하는 중앙종회의장님!

봉원사는 불교법난이래 종단의 중심에 서서 정법안장과 법등수호에 앞장서 온 종단의 대본산 수사찰(首寺刹)로서, 지난 11월 23일 선암사에서 개최된 종무원장 선거에 있어 중대한 하자(瑕疵)가 있다고 판단되어 종단의 장래를 염려하는 애종심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결연한 의지로 우리의 견해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리오니 가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중앙종회에서 선출된 송종연 당선자는 총무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종단의 종헌종법(총무직원법)에 의하면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법계(法階)가 종사 이상이 되어야 총무원장에 입후보할 수 있으나, 종연스님은 법계가 종덕으로 자격이 미달되어 원칙적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격이 없습니다.

종헌종법에 명문화된 실정법은 강제준수조항으로 중앙종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법규의원회 결의는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종무직원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미달자가 총무원장에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연스님은 자격없는 사람이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참고 : 종연스님은 1년전인 1999년 3월에 실시한 법계고시에서도 종사법계를 받지 못하였음)

2.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瑕疵)가 있습니다.

가) 종연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 2차 결선투표에서 26대 27로 단 한표차로 총무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총무원장에 입후보한 사람은 입후보(추천)와 동시 종회의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투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종단은 종도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직접선거가 아니고 종회의원이 종도의 권한을 대신하여 총무원장을 뽑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후보자는 자신의 문제에 관련된 어떠한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수 없는 제척(除斥)사유에 해당되어 종연스님은 투표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제척사유는 대의원이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사회단체에 적용되는 불문율임) 따라서 투표권이 없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표를 찍어 단 1표차로 당선된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나) 총무원장은 종단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4년동안 종단운영을 책임질 행정수반이므로 후보자에게 자신의 소신과 종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주므로써, 종회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평가하여 합당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종회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후보자와 종회의원들의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에 의한 비민주적 선거가 된 것입니다.

3. 종연스님은 출가승려로서 유사종교에 심취한 사람으로 인격과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연스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야산에 있는 마음수련교육회라는 유사종교단체에 가입하여 교육과정을 마치고 유발(有髮)상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성불교는 평생을 수행해도 성불할 수 없으나 이곳에 들어와 3주일만 공부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정통불교를 폄하하고 이단설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감언이설로 주위사람(천지, 도반, 신도 및 일반종도)들을 끌어 들이는데 앞장서왔으며, 이러한 공로로 이 단체의 서울시 협의회 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종도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여왔고, 종단공찰인 성주암 소유의 불교재산(부산소재 약5억 상당의 부동산)을 이 단체에 헌납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단적인 돌출행동을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종단발전을 저해하는 해종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상법법에 의하면 교리에 대하여 이단설을 주장하거나 타 단체의 간부직에 있는 자는 징계(치탈도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연스님은 총무원장은 그만두고 일반승려로서 징계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이처럼 자기철학도 없고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종단을 맡겨도 좋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4. 종연스님은 선거기간 중 매직(資職)과 금품살포 같은 부정행위를 자행한 의혹이 있습니다.

가) 우리종단은 그동안 깨끗한 선거를 통하여 총무원장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종연스님은 이번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을 동원, 사찰을 방문하여 불전금 명목으로 일부 종회의원들에게 적지않은 금품을 살포하였는가 하면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려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으므로써 사상유래없는 달법혼탁선거를 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질스런 선거운동은 사회에서도 법률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종단의 장래를 위해서도 마땅히 규명되고 응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종연스님은 모 종회의원스님에게 자신이 총무원장이 되면 부원장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지키지도 못할 매직행위를 남발하였으며, 총무원장이 되고 나서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등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5. 종연스님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여 종도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가) 종연스님은 자신이 총무원장이 되면 사찰분담금을 폐지하고 본인의 재산(건물)을 팔아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돈 많은 국가지도자가 국민의 세금을 없애고 자기돈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선거후에는 그런 공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음)

종도의 자존심을 짓밟고 종단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어리석은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강남 일원동에 소재한 불국사(임야)에 총무원을 짓겠다고 합니다. 일원동 불국사는 공원용지이며 군사보호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이미 오래 전에 (박서봉 총무원장 당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가 결론을 내린 곳입니다.

다) 인천 용궁사에 동방대학을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또한 신공항이 들어선 이후 집 한 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만일 이 땅들이 풀려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대공사를 예산수급대책도 없이 종연스님이 무슨 돈으로 총무원과 학교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종도를 기만하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삼사배제를 명분으로 종도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종연스님은 평소 태고종이 삼사를 위한 종단이냐고 비판하면서 이번에 삼사와 철인방을 배제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삼사는 불교법난이래 종단의 법등을 계승하고 정법을 지키기 위한 종권수호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봉원사는 사중의 재산을 팔아 종단에 제공하는 등 종단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혼연일체가 되어 종단을 지원하므로써 종단의 재정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봉원사는 앞으로도 종단을 수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찰과 종도가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화려했던 과거의 전통종단의 위상과 역사를 되찾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종단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삼사배제라는 실익없는 허구적인 명분을 내세워 종단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은 실로 한심한 일로 그의 사고와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 론

우리종단은 한국불교 1천6백년의 역사를 계승한 전통종단으로 불교법난이래 이종욱 김법린 임기산 박대륜 안덕암 이남채 박영지 우백암 박서봉 스님같은 덕과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가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도자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종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을 총무원장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위에 열거한 몇가지 사례를 보면 종연스님은 정통불교를 비하하는 이단승으로, 총무원장으로서의 인격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총무원장을 할 경우 종단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명확관화한 일로서, 우리는 종연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협조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 원 요 지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탈법적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선거과정의 총체적 하자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앙종회가 종회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송종연 당선자의 ①유사종교단체 가입과 포교활동사항 및 재산 현납상황 ②금품살포 같은 선거기간 동안의 부정행위 ③현행법상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유무 ④공약사항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 ⑤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종도들에게 공지·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뜻있는 종도들과 연대하여 확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4년 12월 1일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주지 박인공

크고 흰 영산 태백 더 오를곳 없는 산마루

백두대간 속으로 〈26〉

태백산



◇태백산에 있는 세개의 천제단 중 가장 높은곳에 있는 천왕단. 옛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태백산엔 이미 상고대는 물론이거니와 눈꽃까지 피었다. 천제단에서 장군단쪽을 보았다. 뒤로 높이 솟은 산은 함백산.

바람도 금속성 고체처럼 느껴지는 겨울 밤. 산 마루에 서서 별을 본다. 시린 눈 달래느라, 물 먹는 병아리마냥 하늘 보고 땅 보며. 그러다 문득, 저 산 아래, 아련한 추억처럼 가물거리는 불빛을 본다. 산 마을 외딴 집 좁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사람의 빛이다. 아, 저곳에도 별이 있었구나.

내 어릴 적, 문풍지 비집고 들어온 조각 바람에도 마구 흔들리는 알전구 아래서, 내 그림자와 키재기를 하며 겨울을 났다. 어젯밤은 고구마, 오늘밤은 무를 깎아 먹으며. 그리고, 참 많은 꿈을 꾸었다.

산 아래로 내려앉은 별빛을 보며 생각해 본다. 만약 저 집에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다면 지금 무슨 꿈을 꿀까? 빨리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는, 도회지로 이사를 가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는, 빛나는 별을 단 군인이 되는…. 그런 꿈을 꿀까? 그 무엇이 됐건, 절대로, 꿈꾸기를 그만 두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겨울 밤, 산 마루에 서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



◇구룡산에서 바라본 백두대간. 멀리 보이는 산이 태백과 함백이다.

태백산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늘이 비좁아진다. 그 틈새로 난 길(998번 지방도로)을 따라,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을 거쳐 경북 봉화군 춘양면으로 넘어가다 보면 백두대간 등성이에 고개 하나가 걸려 있다. 도래기재다. 이곳에서부터 구룡산 넘어 신선봉, 갓대봉, 부소봉 지나 태백산, 태백산에서 다시 허리를 낮춰, 함백산을 오르기 전에 잠시 숨을 돌리는 화방재까지가 이번에 가야할 길이다. 도상거리는 24km 쯤. 하나 같이 우뚝한 봉우리이고 첩첩이 휘돌아가는 길이지만, 산세가 그리 야박스럽지 않은데다 육산들이라 그리 고생스런 길은 아니다.

도래기재(780m)에서 구룡산(1345.7m)을 오를 때는 서둘지 말아야 한다. 들머리가 된비알이기도 하지만, 잎 떨군 참나무 숲 사이로 시리도록 푸르른 소나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세한(歲寒)에 더 돋보인다는 옛 사람의 말이 절로 떠오른다.

구룡산의 꼭대기는 두어 시간 다리품에는 과분할 만큼의 빼어난 조망을 안긴다. 이곳에서는 태백과 함백의 웅좌가 손뼘으면 닿을 듯 눈높이로 걸린다. 벌써 태백의 등마루는 눈을 덮고 있다. 한밤 뫼, '크고 하얀 산'이라는 태백의 우리말 풋에 잘도 어울리는 모습이다.

구룡산에서부터 신선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태백산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줄 정도로 동남쪽으로 휘돌아 갓대봉(1370m)으로 오른다. 구릉에 가까운 형국에다 조릿대로 덮여 있는 갓대봉에서부터 길은 순해진다. 그러나 이 때부터는 눈길이다. 한동안 발바닥과 눈이 실랑이를 하는 것 같더니 곧 정이 든다.

갓대봉에서는 눈 앞에 태백산(1560.6m)을 두고 곧장 나아가지만, 겨울 짧은 해는 부소봉(1546.5m)에 당기도 전에 제 온 곳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 발빛은 눈길 위에 장검다리를 놓는다. 그 빛을 즈며 밟으며 부소봉 정상을 왼쪽으로 비껴 삼포시 가라앉았다 솟으면 천제단이다.

아침, 또 새날이 열리고, 나는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선다. 아득한 옛날부터 얼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심경은 이미 오래전에 고려 말의 문신인 안축(1287~1348)이 노래한 바 있으니, 나는 그저 옮기는 것만으로 분에 넘치는 즐거움을 얻는다.

정상 천제단 해마다 하늘에 제사
유일사·망경사·단종비등 볼거리

허공을 곧추 올라 안개 속으로 들어서니
비로소 더 오를 곳 없는 산마루임을 알겠네.
둥그런 해는 머리 위에 나직하고
물레의 뭇 봉우리들은 눈 아래 내려앉네.
나는 구름에 몸을 실으니 학의 등에 올라탄 듯하고
허공에 걸린 돌층계는 하늘 오르는 사다리인 양하네.
비 그치자 골짝마다 시냇물은 흘러 넘쳐
오십천 구비구비 가이없이 맴도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고려 때의 사람인 최선(崔詵)의 예안 용수사기(龍壽寺記)를 인용하여 "천하의 명산은 삼한에 많고, 삼한의 명승은 동남에 가장 뛰어나다. 동남에서는 태백이 가장 빼어나다"고 적고 있다.

신라 때부터 태백산(북악)은 토함산(동악), 계룡산(서악), 지리산(남악), 부악(중악, 팔공산)과 함께 오악(五嶽)으로 기림을 받았고, 고래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올려왔다. 정상의 천왕단 말고도 북쪽에 장군단, 남쪽에 하단(이름을 알 수 없음)이 있다.

태백산이 영산으로 받들어지는 것은, 환인(桓因)의 서자이자 단군(檀君)의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곳이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기인한다. 삼국유사의 기이편을 보면, "환웅은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 했다"고 적혀 있다. 하나, 일연 스님은 분명히 태백산 옆에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명기했고, 지리적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는 '백두산'이 바로 그곳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로서의 태백산은 보통명사에 가깝고, 단군신화에서 말하는 태백산은 백두산이며, 오늘의 태백산은 신시(神市)의 상징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으로 이해하면 별 무리가 없을 성싶다. 어쨌거나 태백산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아 나라를 세울 곳으로 점지할 만한 그런 형상과 기운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천제단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유일사가 자리한 북서쪽으로 내리막을 이루며 화방재로 향한다. 천제단에서 북동쪽으로 500m쯤 아래에는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이 물부처가 되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절을 지었다는 망경사가 있고, 그 옆에는 동강 어라연 물그림들의 간청으로 태백산의 산신이 되었다는 단종의 비가 세워져 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법보종찰 해인사 1029일 영가천도대법회

- 1029일 동안 49재를 21회 봉행 -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불기 2544년(2000) 11월 2일에 법보종찰 해인사의 주지 소임을 맡은 세민입니다. 삼라만상 온누리에 부처님의 광명과 복덕이 두루하여 세상은 안락하고 평화로우며 우리 불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옵길 부처님께 축원올리며 그리고 이 지면을 빌어 모든 사부대중께 인사드립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이 땅에 펴고자 화엄의 중중무진한 진리를 받들어 의상조사의 법손인 순응, 이정 두 큰스님이 해인성지를 열어 이 민족의 번영과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온 지 어언 1200년이 넘었으며 그리고 민족의 보배이자 인류의 문화 유산인 팔만대장경판을 봉안하고 법보신앙의 구심점으로 추앙되어온 지 어언 600여년이 흘러온 해인사는 불자들의 신앙적 귀의처이며 정신적 의지처일 뿐 아니라 깨달음을 열어가는 총림도량으로 한국불교의 요람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상징인 21세기 새천년이 시작되었으나 동서와 남북은 서로 반목하고 사회의 각 계층과 세대간에는 서로 양보없는 갈등으로 분열되고, 삶의 터전인 환경은 파괴되어 인간의 참된 길마저 방황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업력 소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창건이래 어려운 고비마다 민족의 번영과 중생의 등불이 되어온 해인사에서는 법전 방장큰스님을 모시고 주지이하 총림대중들이 뜻을 모아 이곳 대적광전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매일 4분 정근으로 『**호국영령과 선망부모, 무주고혼 등 제위를 위한**』 **1029일 천도재동안 21회의 49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 **천도기도 입재 일시 :** 2001년 1월 9일 (2000.12.15)11시
- **천도기도 회향 일시 :** 2003년 11월 3일 (2003.10.10)11시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 접 전 : 주지 박세민 스님, 노전 선해스님
- 기 도 비 : 망축(시대, 천정) 생축 1029일간 백만원(분납도 가능함)
- 전화문의 : (055)931-8771 · 8772 FAX : (055)931-1010
- 접수안내 : 천도법회 동참하실분은 양력 2001년 1월 7일 까지 생축, 망축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농 협 : 843174-51-009176 예금주 : 해인사 천도법회
  우체국 : 611806-01-002618 예금주 : 해인사 천도법회

특히 2545년(신사년)은 삼재(돼지, 토기, 양띠)와 윤달이 겹치는 어려운 때를 맞아 우리 조상들이 대장경 판각에 의한 부처님의 공덕으로 국난을 극복하였듯이 이제 이러한 팔만대장경판이 모셔진 성스러운 도량에서 봉행하는 천도법회로 국난은 극복되고 불자님의 가정과 직장에도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일이 순탄할 것을 확신합니다.

매번 49재에 동참하는 불자님들에게는 큰스님의 설법으로 참된 불자의 길을 열어 복덕과 지혜가 충만케 할 것이며 위패를 모신 영가에게는 부처님의 법식과 법연을 베풀어 일체 호국영령을 안온하게 하며, 불자님들의 선망부모와 무주고혼 영가들로 하여금 왕생극락케 하고 국가는 태평하고 민생은 안정되어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고자 해인사가 창건된 이후 가장 긴 시간인 **1029일 동안에 걸쳐 147회의 재와 21회의 49재**와 법문으로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에 의하면 한 번의 49재를 봉행하여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영가 모두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다하였는데, 해인성지에서 오백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의 법력과 염원으로 1029일 동안의 천도야말로 희귀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인사 영가천도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가내의 모든 권속들의 생존자는 소망이 성취되고 돌아가신 모든 영가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나아가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년 12월

법보종찰 해인사 증명 방장 법전 대종사
주지 박 세 민 합장